연구보고 RR 2015-07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연구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015

연구책임자
이 재 덕(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김 정 민(한국교육개발원)
권 순 형(한국교육개발원)
김 도 기(한국교원대학교)
도 승 이(성균관대학교)

연 구 조 원
문 민 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선행학습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학습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교육부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 선행교육 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등 선행학습을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선행교육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정책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선행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 외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에 제안한 정책들이 실행이 되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밖 요인들이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윤종혁**

연구요약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행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체제 및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 사회·문화 등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외부에 존재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밝히고,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학습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가? 둘째, 선행학습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밖의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Ⅱ장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 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선행학습의 폐해를 알아보았다. 또한 선행학습 예방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분석하여 그것이 선행학습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의 의미와 범위를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 보다 한 학기 이상 앞서서 과외, 학원,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를 활용하여 유료로 한 달 이상 지속하는 학습'으로 정의 하였다.

Ⅲ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선행학습의 실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대략 29%에서 61%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고등학생들은 조사 대상의 29%가 영어 선행학습을, 36%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였다. 중학생들은 44%가 영어 선행학습을, 54%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54%, 수학 과목에서 61%가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의 시점을 보면, 고등학생 가운데 7%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영어 및 수학 교과 선행학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중학생 가운데 22%이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영어 교과 내용을, 19%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 교과를 선행학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을 분석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밖의 요인은 정책·제도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책·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며 이와 더불어 '자사고 및 특목고 입학을 통한 대학입시 우위 선점'이 주요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의 높은 난이도'와 '사교육업체의 불안감 조성' 등도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사회·문화 인식'과 '학벌사회 인식' 그리고 '사교육 홍보 인식'이 주요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역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 '학벌 중심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면담조사에서는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방안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사회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 '입시제도의 개선', '평가 방식의 개선', '진로교육의 강화' 등을 제안 하였다.

Ⅵ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자료를 토대로 초점집단 면담과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으로 도출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도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해소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제도 측면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특목고 및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목고 및 자사고에서는 학생 선발 시 중학교 교육에서의 산출물(학교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 동일계열로 진학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즉, 특목고 평가 시 동일계열 진학 비율 지표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은 학생 선발 시 동일계열 여부를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유형별로 선발 시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급학교 입시에서 성취수준 중심 내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한 경쟁 탈피와 학생들의 부담감 해소, 그리고 공교육 중심 입시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성취평가제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고교 입시에서 그 자료가 활용되어,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낮추고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고교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높고 양이 많다면 고교 교육을 기반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학별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사교육 업체 홍보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개정하여 사교육 업체의 홍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측면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학벌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의 학벌사회인지 고찰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 중 학벌 이외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사교육 홍보에 의존하는 인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사교육 업체의 홍보로 인한 불안감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조사하고 그 불안감이 실제에 근거하는지를 알아본 후, 이를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교육홍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발달과 뇌 발달에 기반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인지발달과 뇌 발달이 저해 받지 않도록 학습 내용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현장에서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선행학습 없이 학교 내용을 충실히 따라오는 학생들을 칭찬하거나 더 높이 평가해 줌으로써 선행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주제어 : 선행학습, 선행교육, 선행학습 유발 요인, 사교육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및 절차 ····· 7
4. 연구의 한계 및 범위 ····· 16

Ⅱ. 이론적 배경 / 17

1.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9
2. 선행학습 예방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 26
3. 선행학습의 의미와 범위 ····· 27
4. 선행연구 분석 ····· 29

Ⅲ. 선행학습 실태 분석 / 37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 39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 49
3. 선행학습 실태 종합 및 시사점 ····· 53

Ⅳ.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 57

1. 설문조사 분석 방법 및 결과 ····· 59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 95
3.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및 시사점 ····· 110

Ⅴ.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121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23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 131
3.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43

Ⅵ. 정책적 제언 / 147

1. 정책·제도 측면의 해소 방안 ····· 150
2. 사회·문화 측면의 해소 방안 ····· 156

참고문헌 ····· 165

Abstract ····· 169

부　　록 ····· 173

표 목 차

〈표 Ⅰ-1〉 표집 대상 학교의 분포와 비율 ····· 8
〈표 Ⅰ-2〉 학생용 설문조사 내용 ····· 9
〈표 Ⅰ-3〉 학부모용 설문조사 내용 ····· 10
〈표 Ⅰ-4〉 연구 대상의 특징 ····· 13
〈표 Ⅱ-1〉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와 그 특징 ····· 21
〈표 Ⅱ-2〉 선행학습의 범위 설정을 위한 준거 및 기준 ····· 29
〈표 Ⅱ-3〉 선행 연구에서 밝힌 선행학습 유발 요인 ····· 33
〈표 Ⅱ-4〉 선행 연구에서 밝힌 선행학습 예방 방안 ····· 35
〈표 Ⅲ-1〉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 ····· 39
〈표 Ⅲ-2〉 초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 40
〈표 Ⅲ-3〉 초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 41
〈표 Ⅲ-4〉 중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 ····· 42
〈표 Ⅲ-5〉 중학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 43
〈표 Ⅲ-6〉 중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 44
〈표 Ⅲ-7〉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 ····· 44
〈표 Ⅲ-8〉 고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 45
〈표 Ⅲ-9〉 고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 46
〈표 Ⅲ-10〉 영어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 47
〈표 Ⅲ-11〉 수학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 48
〈표 Ⅲ-12〉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면담 결과 ····· 49
〈표 Ⅲ-13〉 중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면담 결과 ····· 50
〈표 Ⅲ-14〉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면담 결과 ····· 52
〈표 Ⅳ-1〉 학생 표본의 분포와 비율 ····· 59
〈표 Ⅳ-2〉 학부모 표본의 분포와 비율 ····· 60
〈표 Ⅳ-3〉 변인 및 문항 내용 ····· 62
〈표 Ⅳ-4〉 기술통계 분석 결과(초등학교) ····· 64
〈표 Ⅳ-5〉 선행학습 참여에 대한 학교 간 차이(초등학교) ····· 66
〈표 Ⅳ-6〉 초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67
〈표 Ⅳ-7〉 초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69
〈표 Ⅳ-8〉 초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71
〈표 Ⅳ-9〉 초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73
〈표 Ⅳ-10〉 기술통계 분석 결과(중학교) ····· 75
〈표 Ⅳ-11〉 선행학습 참여에 대한 학교 간 차이(중학교) ····· 77

〈표 Ⅳ-12〉 중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78
〈표 Ⅳ-13〉 중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79
〈표 Ⅳ-14〉 중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81
〈표 Ⅳ-15〉 중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83
〈표 Ⅳ-16〉 기술통계 분석 결과(고등학교) ····· 86
〈표 Ⅳ-17〉 선행학습 참여에 대한 학교 간 차이(고등학교) ····· 88
〈표 Ⅳ-18〉 고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88
〈표 Ⅳ-19〉 고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90
〈표 Ⅳ-20〉 고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92
〈표 Ⅳ-21〉 고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 93
〈표 Ⅳ-22〉 자료 수집 방법 ····· 96
〈표 Ⅳ-23〉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 110
〈표 Ⅳ-24〉 중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 111
〈표 Ⅳ-25〉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 113
〈표 Ⅳ-26〉 면담조사 결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 118
〈표 Ⅴ-1〉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의 선호도 ····· 123
〈표 Ⅴ-2〉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 개선 ····· 124
〈표 Ⅴ-3〉 과도한 경쟁의식 개선 ····· 125
〈표 Ⅴ-4〉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 ····· 125
〈표 Ⅴ-5〉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126
〈표 Ⅴ-6〉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 127
〈표 Ⅴ-7〉 대입 내신점수 반영 시 절대평가 활용 ····· 127
〈표 Ⅴ-8〉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 128
〈표 Ⅴ-9〉 사교육 성행지역 관리·감독 ····· 129
〈표 Ⅴ-10〉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절대평가 과목 확대 ····· 129
〈표 Ⅴ-11〉 개인의 심화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지원체제 구축 ····· 130
〈표 Ⅴ-12〉 선행학습 무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 131
〈표 Ⅴ-13〉 면담조사 결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 144
〈표 Ⅵ-1〉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 152
〈표 Ⅵ-2〉 사교육 업체의 홍보 관리를 위한 법률화 방안 ····· 156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개념 모형 ····· 11
[그림 Ⅰ-2]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5
[그림 Ⅱ-1] 부챗살 모양의 새로운 기능 형성과정 ····· 23
[그림 Ⅱ-2] 과제학습 시 성장곡선: 초보자, 보통 수행자, 전문가 ····· 24
[그림 Ⅵ-1] 학벌중심 사회 개선 방안 ····· 159
[그림 Ⅵ-2] 선행학습의 구조적인 원인 및 정책 목표 ····· 162
[그림 Ⅵ-3]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종합 ····· 163
[그림 Ⅵ-4] 정책 제안 로드맵 ····· 164

KEDI

PAR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연구의 한계 및 범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3월, 정부는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긍정적인 기대와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2014.8: 12-13)에서 제공한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에 의하면,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선행학습의 수행 여부는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학기 외의 선행학습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정책이 실행되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의 정의뿐만 아니라 선행학습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2012.9.25.)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내용 등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시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선행학습의 폐해를 과학적·실증적으로 연구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행학습 해소 정책 발표 이후 국책연구기관에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선행학습의 영향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이종태·김양분·이인효·윤초희·성기선·김미숙 외(2002)에 의하면 석차 백분율 차이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 분석한 결과 수학과 국어의 차이점수는 선행학습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의 경우 병행집단과 비과외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장기 및 단기선행과 비과외 집단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지선·박형빈·이헌수(2013)에 의하면 영재교육원 입학 이전의 수학 선행학습이 영재교육원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수학

선행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재한(2009)의 연구에서도 수학교과의 선행학습 경험이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 29% 가운데 1.5%만 설명하는 정도로 매우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최정선·박종근·구인선·김봉곤(2007)의 연구에서는 과학 선행학습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과학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관련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과학 선행학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단순 비교한 것인데 이는 김성천·신철균(2011)의 연구로 반박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초기 모델에서는 선행학습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전년도 학업 성취 수준, 가정 배경, 그리고 수학 학습 태도 등을 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선행학습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행학습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현철·윤유진(2011)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69.6%가 영어 선행학습을 실시하였고, 수학은 63.2%가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선행학습에서도 영어의 경우 12.2%, 수학의 경우 8.7%가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9월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60.2%, 중학생은 55.9%, 고등학생은 47.4% 이상이 사교육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의 대중화는 김정민·김일혁·김정숙(201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영어나 수학 선행학습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84.1%, 중학생의 87.0%, 고등학생의 86.5% 이상이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정도는 모든 학교급에서 1개 학기 이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행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다른 곳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행학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령, 이종태 외(2002)의 연구는 선행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식이 아닌 실제 성적 자료를 활용하고 질적 연구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선행학습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탐색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현철·윤유진(2011)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개인 및 가정, 학교수준에서만 선행학습의 원인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보인다. 그리고 김정민 외(2013)는 경기도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 수준 변인과 학교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교 체제나 학교 밖의 요인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체제 및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 사회·문화 등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 및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체제 및 학교 밖의 요인까지 고려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 외부에 존재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입각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의 선행학습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외부에 존재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밝히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가?
둘째, 학교급별 선행학습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밖의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가. 선행학습에 대한 이론적 검토

먼저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지 발달과 뇌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할 경우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선행학습 예방 관련 법률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전에 수행된 선행학습 해소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선행학습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선행학습의 효과, 유발 요인, 예방 방안을 분석하였다.

나. 선행학습 실태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의 선행 정도와 선행학습 형태별 주당 학습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선행학습 결정 주체, 시작 시기, 학습 내용 및 형태, 선행학습 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두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탐색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선, 양적 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알아보고, 가정 배경, 학생의 사회·심리적 인식,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학교 배경,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인식,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선행학습 실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말하는 선행학습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라.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추출해 낸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면담조사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제안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은 정책·제도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해소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해소 방안 실행을 위한 법률화 방안 및 장기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문헌 연구

이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검색 사이트에서 '사교육', '공교육', '선행학습' 관련 검색어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후 선행학습의 실태, 선행학습의 효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선행학습 예방 방안을 준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부 홈페이지 공시 자료 및 내부 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선행학습 예방 정책의 실행과정,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준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의원실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토론 자료들 가운데 선행학습의 실태, 선행학습의 효과, 선행학습 유발요인, 선행학습 예방 방안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나.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표집 방법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1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493,500명이다. 통계적 분석에 적절한 사례수를 조사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따라 모집단 규모가 작은 유층의 경우 과대표집을 하였다. 그리고 학년별 표본 학생 수가 대표성을 가지기 위하여 오차한계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연구의 표본 학생 수는 전체 모집단 학생 중 약 0.70%인 10,500명이었다.

총 표본 학생 수를 결정한 후 표본 학생 수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총 표본 학교 수를 산출하였다. 총 표본 학교 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학교를 군집으로 하는 층화군집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모집단 학생 수와 평균 학급당 학생 수(초 22명, 중 31명, 고 33명)를 고려하되 학교별 2개 학급 표집을 기준으로 하여, 표본 학생 수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표본 학교 수는 총 213개교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한 14개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9개교(93.4%)에서 학생 10,351명, 학부모 10,020명이 표집되어 분석에 활용[1]되었다. 표집대상 학교의 분포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표집 대상 학교의 분포와 비율

지역	총학교수				표집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비율)	중학교 (비율)	고등학교 (비율)	계 (비율)
서울특별시교육청	598	383	183	1,164	12 (2.01)	17 (4.44)	9 (4.92)	38 (3.26)
부산광역시교육청	305	171	80	556	7 (2.30)	2 (1.17)	7 (8.75)	16 (2.88)
대구광역시교육청	220	124	50	394	4 (1.82)	3 (2.42)	2 (4.00)	9 (2.28)
인천광역시교육청	253	134	79	466	3 (1.19)	2 (1.49)	2 (2.53)	7 (1.50)
광주광역시교육청	152	88	47	287	2 (1.32)	2 (2.27)	1 (2.13)	5 (1.74)
대전광역시교육청	146	89	37	272	3 (2.05)	1 (1.12)	1 (2.70)	5 (1.84)
울산광역시교육청	121	62	36	219	0 (.00)	1 (1.61)	0 (.00)	1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6	13	5	44	0 (.00)	0 (.00)	0 (.00)	0 (.00)
경기도교육청	1,226	604	344	2,174	13 (1.06)	10 (1.66)	19 (5.52)	42 (1.93)
강원도교육청	398	163	87	648	5 (1.26)	2 (1.23)	1 (1.15)	8 (1.23)
충청북도교육청	273	128	47	448	4 (1.47)	3 (2.34)	1 (2.13)	8 (1.79)
충청남도교육청	424	189	72	685	5 (1.18)	2 (1.06)	1 (1.39)	8 (1.17)

1) 조사된 자료 가운데 무응답과 결측치는 다중대체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지역	총학교수				표집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비율)	중학교 (비율)	고등학교 (비율)	계 (비율)
전라북도교육청	420	209	91	720	6 (1.43)	3 (1.44)	2 (2.20)	11 (1.53)
전라남도교육청	501	260	88	849	5 (1.00)	5 (1.92)	3 (3.41)	13 (1.53)
경상북도교육청	527	289	123	939	7 (1.33)	5 (1.73)	2 (1.63)	14 (1.49)
경상남도교육청	514	274	136	924	5 (.97)	4 (1.46)	4 (2.94)	13 (1.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9	44	21	184	1 (.84)	0 (.00)	0 (.00)	1 (.54)
합 계	6,223	3,224	1,526	10,973	82 (1.32)	62 (1.92)	55 (3.60)	199 (1.81)

2)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학생용과 학부모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학생용 설문지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의 선행 정도, 선행학습 형태 및 주당 선행학습 시간,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실태, 유발 요인, 배경 정보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20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선행학습 실태 영역의 조사 목적은 선행학습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행학습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 영역을 조사하는 목적은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선행학습 참여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2〉 학생용 설문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문항 번호
선행학습 실태	1) 현재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의 선행학습 시기	1
	2) 과거 선행학습 당시 학습 형태 및 주당 소요 시간	2
	3) 미래에 배울 내용에 대한 현재 선행학습 여부	4
	4) 현재 선행학습 형태 및 주당 소요 시간	5
	5) 선행학습 결정자	3, 6

영역		조사 내용	문항 번호
선행학습 유발요인	개인	1) 학습 관련 의견 존중	2. 14)
		2) 학습 스트레스	2. 15)
		3) 지적 호기심	2. 17)
		4) 막연한 불안심리	2. 16)
	사회·문화	1) 경쟁적인 사회문화	2. 1)~3)
		2) 학벌사회 인식	2. 4)~6)
		3) 사교육시장의 마케팅	2. 11)
	정책·제도	1)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진학	2. 7)
		2)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입 시험	2. 8)
		3) 대학 논술 준비	2. 9)
		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2. 10)
		5) 입시를 위한 내신 준비	2. 12)~13)
학생 배경정보		1) 학급 내 과목별 성적	8
		2) 진로 및 진학계획	9
		3) 성별, 학교급, 지역	10

다음으로, 학부모용 설문지는 선행학습 비용,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는 총 28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 학부모용 설문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문항 번호
선행학습 실태		1) 선행학습 비용	1
선행학습 유발요인	개인	1)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_외재적	2. 14)
		2)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_내재적	2. 17)
		3)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_위탁적	2. 15)
		4)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_경쟁적	2. 16)
	사회·문화	1) 경쟁적인 사회문화	2. 1)~3)
		2) 학벌사회 인식	2. 4)~6)
		3) 사교육시장의 마케팅	2. 11)
	정책·제도	1)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진학	2. 7)
		2)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입 시험	2. 8)
		3) 대학 논술 준비	2. 9)
		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2. 10)
		5) 입시를 위한 내신 준비	2.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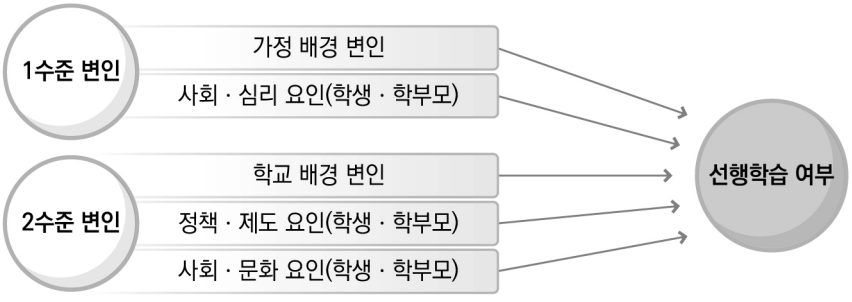
영역		조사 내용	문항 번호
개선방안	사회·문화	1) 경쟁적인 사회문화 개선	3. 1)
		2) 학벌사회 인식 개선	3. 2)
		3) 학습자 존중 문화 형성	3. 3)
		4)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4)
		5) 학업 스트레스 상담	3. 5)
	정책·제도	1) 내신 점수에 절대평가 점수 활용	3. 6)
		2) 상급학교 입시 수준 점검	3. 7)
		3) 사교육 성행지역 관리·감독	3. 8)
		4) 대입 시험에서 절대평가 활용	3. 9)
		5) 심화교육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강화	3. 10)
		6)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홍보	3. 11)
	기타	1)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기술	4
학부모 인적사항		1) 성별	5. 1)
		2) 월평균 가구 소득	5. 2)
		3) 부모의 교육정도	5. 3)
		4) 부모의 연령	5. 4)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표집 대상을 선정한 후 각 학교에 전화로 설문 협조 요청을 하였다. 협조에 응한 학교에 우편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각 학교의 대상 학급 담임 교사가 설문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도록 하였다. 각 학교별 담당 교사는 수거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회송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념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Ⅰ-1]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개념 모형

위와 같은 개념 모형에 따라서 설문조사가 설계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첫째,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의 배경변인별로 t-검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을 위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 정책·제도 요인, 사회·문화 요인을 개인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2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에서 종속변인인 선행학습 여부는 선행연구(김현철·윤유진, 2012)에서 활용한 방법대로 참여와 비참여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가운데 학교 밖의 학교 체제 및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변인은 조사 대상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방지 방안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방지 방안 분석을 위하여 방안별 선호도를 분석하고, 배경변인별 t-검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면담 조사

1) 면담 대상자 선정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과 해소 방안 분석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을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분하여 선정한 이유는 선행학습 주체로서 학생과 학부모, 실제 행위자로서 학생, 그리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간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 중 학생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선행학습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면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급별로 선행학습을 많이 실시하는 학년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초등학생은 6학년, 중학생은 2~3학년, 고등학생은 2학년으로 선정하였다.

학부모는 면담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최대한 동일한 상황 속에 놓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행학습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선행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년에 맞춰 초등학교 6학년 교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교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교사를 선택하였다. 중등교사의 과목은 선행학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과 그렇지 않은 국어, 기술·가정을 각각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담 대상자 총 25명 중 학생은 여자 6명,

남자 3명이고, 학부모는 여자 8명, 남자 1명, 교사는 여자 6명, 남자 1명이다. 학부모의 직업은 대체적으로 면담이 용이한 전업주부가 많았고, 그 외 교수와 교사, 미술작가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이 속해있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고(3개교), 경기, 인천, 충남은 각각 1개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대상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 Ⅰ-4〉 연구 대상의 특징

연번	학교급	지역	구분	이름	성별	직업(과목)
01	초등학교	서울	학생	김민서	여	6학년
02			학부모	이지현	여	전업주부
03			교사	정지순	여	초등교사
04		서울	학생	이승현	남	6학년
05			학부모	김미란	여	초등교사
06			교사	박선영	여	초등교사
07	중학교	인천	학생	김정아	여	2학년
08			학생	조덕제	남	2학년
09			학생	김시윤	남	2학년
10			학부모	김윤정	여	전업주부
11			학부모	이영애	여	전업주부
12			학부모	김혜진	여	전업주부
13			교사	한정혜	여	중등교사(수학)
14		천안	학생	김혜린	여	2학년
15			학생	김지은	여	2학년
16			학부모	나지선	여	전업주부
17			학부모	김혁규	남	교수
18			교사	박두식	남	중등교사(기술가정)
19			교사	차주영	여	중등교사(국어)
20	고등학교	서울	학생	주아름	여	2학년
21			학부모	박은하	여	미술작가
22			교사	차혜정	여	중등교사(수학)
23		안양	학생	김인희	여	2학년
24			학부모	한유진	여	전업주부
25			교사	이채영	여	중등교사(수학)

2)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개방 코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방 코딩은 질적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08: 475). 즉, 수집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상에 적합한 용어와 이름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법에 기초하여 자료 안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표현이나 용어에 주목하고 이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약호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귀납적 코드(inductive codes)들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라. 초점집단 면담

1) 면담 대상자 구성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자를 선정하여 토의하고 자문을 받았다. 초점집단 면담 대상자는 사교육 성행지역 및 비성행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명, 공교육정상화법 및 고교 체제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 2명, 사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 3명, 사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회단체 관계자 1명, 사교육 기관 운영 및 강의 경험이 있는 관계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2) 면담 실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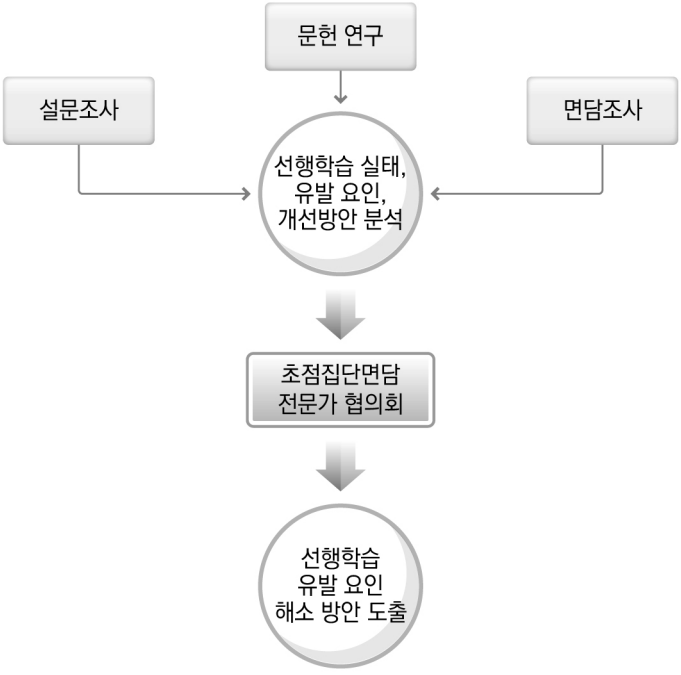
초점집단 면담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찾고, 유발 요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원,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 등 특성별로 고르게 구성하여 총 3회 실시하였다. 제1회 면담에서는 이메일로 개방된 의견을 받아서 공유하였고, 제2회 면담에서는 정리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의 방향을 마련했으며, 제3회 면담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다.

마. 전문가 협의회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해소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가로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사교육 담당 장학사 1명, 자사고 담당 장학사 1명, 특목고 입

학담당관 1명, 학교급별 교사 2명 등이다. 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 면담, 초점집단 면담 등에서 나온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점검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나 사전에 고려해야하는 여건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연구의 내용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Ⅰ-2]와 같다.



[그림 Ⅰ-2] 연구의 방법과 절차

4 연구의 한계 및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외부의 요인을 밝히고 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김정민 외(2013)에서 이미 학교 내부의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연속성 및 차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선행학습의 개념적 범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과목을 1개 학기 이상 앞서 1달 이상 지속적하여 유료로 학습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범위는 법령과 법령을 해설하는 매뉴얼, 교육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진들이 토론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이 범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층 무선 표집으로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선정 과정에서 학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학교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표집 대상학교를 바꿀 때 지역, 학교 규모,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설문 내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앞 문항과 뒤 문항에서 다르게 응답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해당 사례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 간 변량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셋째,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찾는 다층모형에서 학생 요인과 학부모 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학생 요인과 학부모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학생 요인과 학부모 요인 사이에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으로 영향력이 잘못 나타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부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교 내부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내부 요인 연구 결과와 외부 요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T

II

이론적 배경

1.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선행학습 예방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3. 선행학습의 의미와 범위
4. 선행연구 분석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2)]

선행학습을 논할 때는 학습자의 발달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선행학습과 학습자의 발달과 관련하여 인지발달과 뇌 발달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인지발달과 선행학습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이 미리 갖추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인지발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은 마치 걸을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습자의 인지발달과 학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아제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사고과정을 심리학적 구조로 조직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 구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율되고 재구조화하게 되면서 더 효율적이게 된다(김동일·김신호·이근재·정일호·정종진, 2003).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피아제에 따르면 모든 아이들은 이 네 단계를 통해 성장한다(Driscoll, 2002, 양용칠 역, 2007; Eggen & Kauchak, 2010, 신종호 외 역, 2011; Siegler & Alibali, 2005).

류지은(2005)은 네 가지 단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 2장1절은 공동연구자인 도승이(성균관대학교)가 작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감각운동기(sensory-motor period) 초기에 아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감각운동기 후기가 되면 아동은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시작된다.

두 번째 단계인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에 아동은 언어습득이 빠르게 일어나며, 영상이나 언어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전조작기의 아동은 지각에 의존하는 사고를 하며, 지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한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중심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 자신이 보는 것처럼 바라본다고 믿는다.

세 번째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는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비로소 아동은 지각적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조작적 사고'를 시작한다. 아동이 조작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존, 가역성 등 대상이나 상태를 변형하는 논리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수 개념 이해에 매우 중요한 분류와 서열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대상에 한 가지 논리를 적용할 수 있고, 대체로 두 가지 이상의 논리를 통합·적용하거나 가설을 세워 입증하는 등의 논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구체적인 물체를 경험하면서 정신적 조작이 가능하다.

네 번째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는 피아제 인지발달의 최종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 가상의 것에 대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추상적 사고란 융통성 있는 사고, 효율적 사고, 복잡한 추리,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 그리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피아제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구조는 아동이 그 이후 단계로 이동해도 상실되지 않고, 이후에 나타나는 구조와 통합되고 조절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아동은 더욱 정교한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Driscoll, 2002, 양용칠 역, 2007).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단계별 특징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와 그 특징

단계	특징	예
감각 운동기	목표지향 행동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상자의 뚜껑을 연다.
	대상 영속성 (대상을 기억에 표상하기)	부모의 등 뒤에 숨어 있는 물체를 찾는다.
전 조작기	언어능력의 급격한 성장과 언어사용의 과잉 일반화	"엄마, 할아버지가 식사하시고, (동생인) 철수도 식사를 하셔."
	상징적 사고	차의 창밖을 가리키며 "트럭!"이라고 말한다.
	지각에 의해 지배됨	세면대의 모든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물체를 논리적으로 조작함	두 물체가 저울에서 평형을 이룬다면 한 물체가 다른 것보다 부피가 크더라도 두 물체의 질량은 같다고 결론짓는다.
	분류와 서열화를 함	그릇을 부피가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이고 가상적 문제를 해결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패배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한다.
	조합적인 사고를 함	세 가지 종류의 고기, 치즈, 빵을 가지고 몇 가지 샌드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출처. Eggen & Kauchak(2010), 신종호 외 역(2011), p.74.

피아제는 각 인지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연령에 대해 감각 운동기는 출생 후 대체로 2세까지, 전조작기는 2세부터 대체로 6~7세까지, 구체적 조작기는 6~7세에서 대체로 11~12세까지, 형식적 조작기는 11~12세부터 어른이 되기까지의 시기라고 보았다(류지은, 2005; Sime, 1973, 문용린 역, 1998). 다시 말해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는 주로 초등학교 시기이고, 중학교 시기부터 형식적 조작기 시기가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피아제가 연령이 더 높은 아동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Eggen & Kauchak, 2010, 신종호 외 역, 2011). 이들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사고가 여전히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하였다(Alexander, 2006; Cole, Cole, & Lightfoot, 2005).

피아제의 인지발달과 학습 간 관계에서 전제는 인지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아제는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학습에 반대하며, 발달 단계에 따른 학생의 인지구조에 맞게 학교에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류지은, 2005). 가령, 형식적 사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추상적 사고를 요하는 과제를 풀도록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암기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중·고등학교에서도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에 맞게 연관되는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Eggen & Kauchak, 2010, 신종호 외 역, 2011).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한국 학생들의 선행학습 실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진도를 나가는 실정이며,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발달에 근거한 학습보다는 문제 패턴을 암기하는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많은 교육량과 발달 단계보다 앞선 교육 내용으로 인해 학습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학습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 기관에서는 보다 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과 학습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교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학생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지 않다면 그는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 과제가 학생들의 인지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거나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황윤한, 2004).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을 하면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어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과목에 대해 동기와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학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 부모의 기대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Elkind, 1983). 이렇게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을 강요할 때 학생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뇌 발달에도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소절에서 뇌 발달과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스트레스가 뇌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뇌 발달과 선행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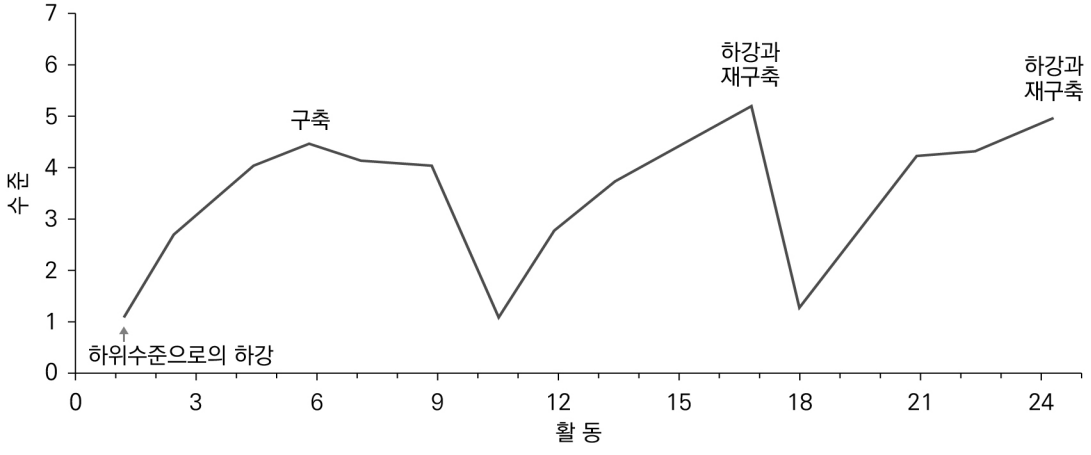
인생의 초기에 인간의 뇌는 미분화된 상태로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 환경과의 접촉 또는 교육 방식을 통하여 적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화가 이루어진다. 뇌에서 뉴런은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생성된다(Halpern & Weissman, 2008). 뉴런에는 약 2,500개의 시냅스(연결망)가 있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면서 인지발달이 일어난다(Byrnes, 2001). 학습경험은 뉴런의 수와 각 뉴런 당 시냅스의 연결을 증가시킨다. 구체적으로, 영아기인 초기 3년 동안 뇌에서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크워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생성되는데, 시냅스는 영아의 적극적인 탐색 및 감각활동을 통해 형성된다(Kim, Moon, Kim, Cho, Kim, Ryu & Lee, 2000). 2세 전후부터 뇌 기능이 분화되는 발달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5세를 기점으로 전문화가 진행된다.

전두엽은 3~6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달하지만 20세 이후까지도 꾸준히 발달하여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기능과 인간성, 도덕성, 종교성 등을 담당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뇌량의 발달이 더 이루어지고 좌반구와 우반구 간의 신속한 교류가 촉진되면서 인지발달에서 형식적 조작기의 기초가 이루어진다(김성이·김은아, 2004).

뇌 발달과 학습 수행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은 순차적이고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익힐 때 감각표상에서 추상적 사고 간의 이동이 여러 번 반복되는 부챗살 모양의 학습패턴이 나타난다(Battro, Fischer, & Léna, 2008; 김유미 역, 2009). 어떤 과제를 숙달하려면 표상이나 때로는 영아의 행위와 비슷한 감각동작 수준까지 하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과제의 감각동작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지적 적응력이 유연해지고 다양한 과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감각동작 패턴을 배운다. 새로운 과제를 학습할 때 낮은 인지수준까지 하강했다가 다시 추상적 사고로 올라오는, 이러한 부챗살 모양의 학습과정은 정상적이며 필수적이다([그림 Ⅱ-1] 참조).

연구자들은 몇 개월에 걸친 중학생의 과학 학습, 대학원생의 통계분석을 위한 컴퓨터 활용법 학습 등에서 부챗살 모양이 반복적인 파동으로 일어남을 발견했다(Granott & Parziale, 2002; Schwartz & Fischer, 2005; Zheng & Fischer, 2002). 또한 구체적인 기능 습득 보다 일반 지식에서 학습이 느리고 힘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예를 들어 남북전쟁의 원인, 에너지의 개념, 진화의 증거분석, 논설문 쓰기)을 숙달하려면 한 학기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 Layna, 2003; Perkins & Salomon,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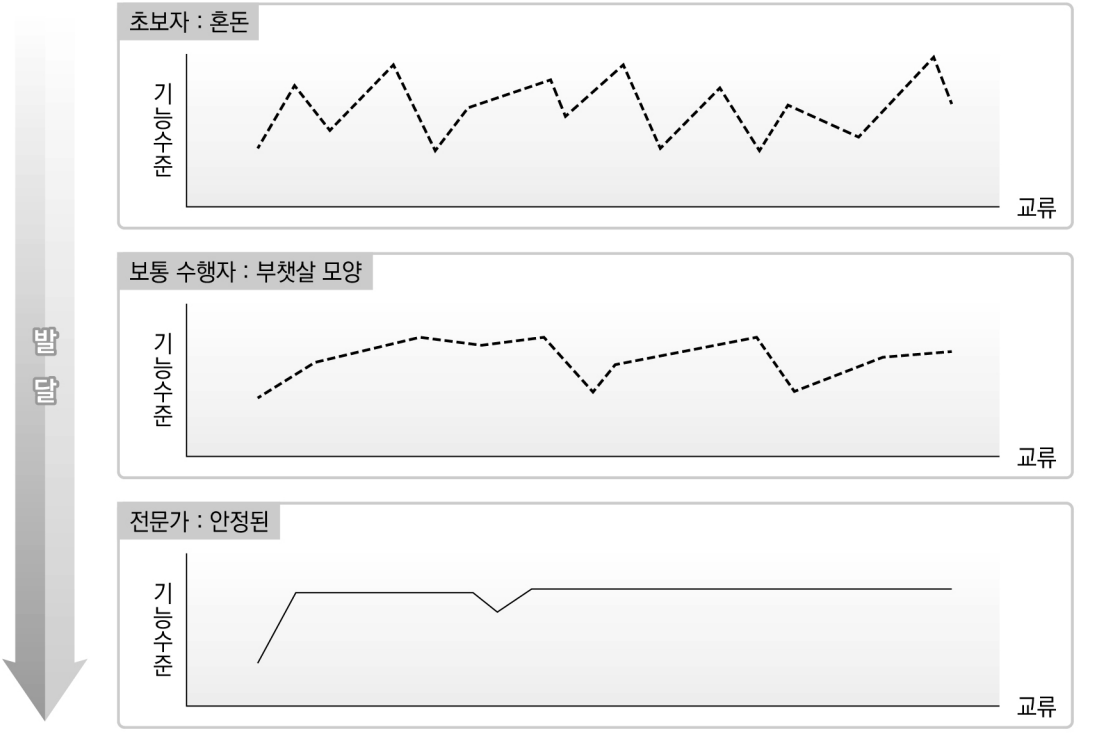


[그림 Ⅱ-1] 부챗살 모양의 새로운 기능 형성과정

(참고. 1~3 수준은 감각동작 관련. 7이상은 추상적 사고와 관련)

※ 출처. Battro et al.(2008), 김유미 역(2009). p.219.

위에서 설명한 학습에서 부챗살 모양은 전체 학습과정의 중간쯤에서 나타난다. [그림 Ⅱ-2]에 나타난 것처럼 학생이 초보자여서 해야 할 과제가 낯설거나 부담스러울 때에는 [그림 Ⅱ-1] 보다 수행의 변동이 훨씬 더 크다(Zheng & Fischer, 2002). 다시 말해, 초보자의 수행은 혼란스럽게 위아래로 요동치다가 과제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생기면서 부챗살 모양으로 바뀐다. 보통 수행자는 초보자에 비해 고차원적인 수준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기적으로 급강한다. 일정 기간 동안 과제를 계속 하면, [그림 Ⅱ-2]의 맨 아래 곡선처럼 안정되고 고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패턴이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보통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림 Ⅱ-2] 과제학습 시 성장곡선: 초보자, 보통 수행자, 전문가

※출처. Battro et al.(2008), 김유미 외 역(2009). p.220.

뇌 발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학습은 학부모나 교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학생은 학습을 할 때 표상부터 감각수준까지 경험을 해야 추상적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개념을 새로 배울 때에는 초심자의 성장곡선과 같이 수행이 혼란스럽게 요동치다가 부챗살 모양의 패턴을 보이고, 이후에 안정된다.

대다수의 학부모,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선형적으로 이해하여 적절한 수업과 학습내용을 습득하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 학업성취가 나와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사교육 기관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두뇌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학생의 두뇌가 더디게 발달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의 두뇌는 20살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스트레스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두뇌가 발달하는데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세포 시냅스가 엉성하게 형성되어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빈약한 연결망에 과부하가 걸려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이성을 담당하는 신피질의 조절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우남희, 2002).

스트레스와 불안은 현재 수행하는 인식의 과정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나 불안이 증가하면 평소에 수행하는 것처럼 자동화 단계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명시적 규칙을 적용하여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게 되는데, 인지단계로 회귀하게 되면 수행 능력은 저하된다(우민정, 2009; Fitts & Posner, 1967). Chetty 외(2014)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두뇌 구조와 기능의 장기간의 변형을 초래하며, 이것이 스트레스에 노출된 어린 학생들이 불안증, 정서장애와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선행학습을 논할 때 학습자와 학습의 내용 측면에서 학습자의 인지 발달과 뇌 발달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인지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상적 사고를 요구받게 되면서 무조건 암기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인지 구조로 처리되지 않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학습동기의 저하와 학업스트레스를 겪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 발달과 학습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학습은 선형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부채꼴 패턴으로 성장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학습의 내용을 습득할수록 지속적으로 학습이 증가하고 성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인 감각이나 경험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두뇌의 학습패턴과 두뇌 발달이 고려되지 않고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아직까지 완전히 두뇌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의 신경연결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

2 선행학습 예방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가.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과 쟁점

공교육정상화법의 핵심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제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각급 단위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는 첫째,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 금지, 둘째, 학교시험 및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셋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 기관의 광고 및 선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제9조에서는 첫째,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과 방법 금지, 둘째,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점수, 자격증 반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법조항을 보면,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 및 선전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교육이 사교육 기관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학교시험, 교내 대회, 입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시험에서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 남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장차 남보다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시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선행학습 해소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선행학습 해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2년 9월부터이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선행학습 해소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 및 시정, 둘째, 고입 전형·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셋째,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 넷째, 선행학습 폐해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다섯째,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 등 집중 점검 등이다.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수학교과 내신평가 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사례를 점검하여 이를 시정·조치

하는 것이다. 2015년 현재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영어와 수학을 연 1회 점검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기별 3과목(수학은 매학기)을 선정하여 연 2회 점검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내용은 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서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와 대학 입시에서 이전 학교급 교육과정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시험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과 면접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심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 등 집중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도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시정명령 및 경고가 810건, 교습정지가 150건, 등록말소가 37건, 고발이 19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원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수이다. 공교육정상화법과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해소 정책의 경우도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 주로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원이 적발된 사례는 무등록,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인원 초과 등이며 선행교육을 하여 적발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선행학습 해소 정책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보다는 선행교육과 선행평가를 금지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경우 선행교육을 따라가기 위하여 학원에 의존할 수도 있으며, 입시에서 선행평가를 할 경우 학교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학원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평가를 제한하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선행학습의 의미와 범위

'선행학습'을 정의하는 방식은 선행연구들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종태 외(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선행학습 개념을 따르는데, 이종태 외(2002)는 선행의 기준을 1개월로 설정하여 학교 교육과정보다 1달 이상 먼저 배울 경우 선행학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선행학습은 다시 '단기 선행'과 '장기 선행'으로 구분되는데, 단기선행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서 선행하는 경우를, 장기선행은 4개월 이상 앞서 선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1학기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전 겨울방학에 다음 학기 진도를 선행학습 한다면 단기 선행, 방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 학기 진도를 선행학습을 한다면 장기 선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교육부가 규정한 학기단위 선행은 장기 선행에 해당한다.

김현철·윤유진(2011)은 선행학습의 범위를 공교육에까지 확대시켰으며, 학습자와 학부모가 선행학습을 계획해야 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1개월을 기준으로 선행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교과와 달리 기능 숙달이 필요하므로 회화 수업, 외국 장기 방문 등 영어학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학습 유형도 선행학습으로 분류하였다. 김정민 외(2013)에서는 선행학습을 단순히 1~2주일 앞서 예습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스스로 혹은 학원, 과외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보다 최소 1개월 이상 앞서 공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교육부(2014: 12-13)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에서는 선행학습을 선행교육과 개념상 구분지어 정의한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행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일반'을 의미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하는 선행교육은 공교육 기관이 주체가 되어 학습자에게 선행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다.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허용되지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과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교육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보다 1개월 이상 먼저 학습'하는 것을 지칭하며, '공교육 선행학습'은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한 학기 앞서 학교가 제공한 선행교육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규정은 선행학습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고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말아야 하는 학습 방식은 선행학습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기 단위로 운영 되는 수업에 맞춰서 그 전 학기에 학습한 경우로 한정해야 분명하게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행학습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준거와 기준을 다음 〈표 Ⅱ-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2〉 선행학습의 범위 설정을 위한 준거 및 기준

준거	기준	비고
선행 정도	1학기 이상 앞서 하는 학습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겨울방학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공부를 하는 경우
선행 유형	과외, 학원수강,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방문학습지는 과외에 포함하되 EBS 및 방과후 학교는 제외
선행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비주지 교과는 제외
선행 기간	1달 이상 지속적으로 학습	간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제외
비용	유료로 하는 학습	가족의 도움, EBS 수강 등 무료로 하는 경우는 제외

4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선행학습의 실태 및 효과, 선행학습 유발요인, 선행학습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교육 연구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과 완전히 분류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연구 결과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가. 선행학습 실태 및 효과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처음 시행한 연구는 이종태 외(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종태 외(2002: 39)의 연구에 의하면 5개 교과의 과외 비율은 국어 48.0%, 영어 56.6%, 수학 67.2%, 사회 14.9%, 과학 42.8%로 나타났다. 이 때 과외를 한 학생들 가운데 5개 교과 모두 단기(1-3개월)로 선행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5%이상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병행과 장기(4개월 이상) 선행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20% 정도였다. 최정선 외(2007: 199)에 의하면 선행학습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2006년 중간고사 성적 중위권(70점-90점)인 학생이 42.2%, 상위권(90점 이상)인 학생이 40.2%, 하위권(70점 미만)인 학생이 17.6%로 나타났다. 또한 김현철·윤유진(2011)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69.6%가 영어 사교육 선행학습을, 63.2%가 수학 사교육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선행학습에서도 영어의 경우 12.2%, 수학의 경우 8.7%가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최근 연구인 김정민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학생들 중 86.5%가 영어, 수학의 선행학습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 중 90.6%가 선행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행학습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행학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선행학습이 과연 학업성취도와 학습 태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학습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이종태 외(2002)에 의하면 2년 동안의 석차 백분율 차이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수학과 국어의 차이점수는 선행학습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의 경우는 병행집단과 비과외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병행집단의 경우 평균 2.55점 상승하였지만 비과외집단은 오히려 평균이 .92점이 하락했다. 반면 장기 및 단기선행을 받은 집단과 비과외집단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선행학습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는데, 신재한(2009)에 의하면 수학교과의 선행학습 경험이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 29% 가운데 1.5%이고, 심리적 가정환경이 수학교과의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26.8%로 나타났다. 인내심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변량 12.8% 가운데 0.9%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홍진곤·장보윤·김경록·진석언(2008)에 의하면 선행학습 수준이 성취도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어떤 상관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 어느 것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지선 외(2013: 98-100)의 연구에서도 선행학습이 성취도 및 자아효능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영재교육원 입학 이전의 수학 선행학습이 입학 이후의 영재교육원 학업성취도와 자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중학생의 선행학습 기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는 선행학습 기간이 4년 이하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3.55점, 4년 초과와 1년 이하가 3.33점, 2년 이하가 3.31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 역시 선행학습 기간이 4년을 초과했을 때 4.08, 3년 이하일 때 3.70 등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천과 신철균(2011)에 의하면 초기 모델에서는 선행학습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가정 배경과 수학 학습 태도 변인, 전년도 학업성취 수준 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끝으로 김현철·윤유진(2011)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의 경우 선행학습 이후 성적이 올랐다고 응답한 학생은 56.3%로 나타났고, 성적이 같거나 떨어졌다는 학생은 43.7%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는 60.6%가 선행학습 이후 성적이 올랐다고 응답하였고, 39.4%가 성적이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과학과 국어의 경우는 선행학습을 한 경우 성적이 떨어졌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선행학습을 시켰지만 성적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졌다고 응답한 학생이 높게 나타나 선행학습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낮은 것(김현철·윤유

진, 2001: 132)'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행학습은 그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최정선 외(2007)에 의하면 과학 선행학습을 한 집단의 과학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관련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과학 선행학습을 한 집단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선행학습이 학교 과학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신감이 생겨 학교 수업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55.4%를 차지했으며, "미리 배운 내용이므로 흥미를 잃게 되었다"는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78.4%로 나타나 선행학습이 오히려 학교 수업에서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김성천·신철균(2011)의 연구와 같이 학습 태도 변인이나 전년도 학업 성취수준 변인 등을 통제하고 결과를 비교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선 외(2007)의 연구결과를 일부분 지지할 수 있는 연구는 박현정·상경아·강주연(2008)의 연구가 있다. 그들에 의하면 사교육 참여 경험이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수학 성취도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도 격차는 학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서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집단이라고 해서 다른 집단들보다 성취도가 더 많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진영(2007)은 과외 여부가 수능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는 학습시간의 증가 때문이지 선행학습이나 과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승이·김성식·김현철·손수경(2012)도 사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학생 집단의 성적이 높은 편이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사교육 요소만으로 중학생의 학업 성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의 외적·내적 변인들도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교육 및 선행학습은 매우 성행하고 있지만 실증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창의력 등의 요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태 외(2002: 52)는 선행학습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영어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

서 '학교수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선행학습을 받는다고 응답(31% 이상)하였다. 뒤이어 20% 정도의 학생들이 '교과 실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기초 강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현철·윤유진(2011: 52)의 연구에 의하면 선행학습을 받는 주된 이유는 첫째, 성적 향상과 내신 관리 등을 위한 학교수업의 보충, 둘째, 사교육 선행학습을 하면 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셋째, 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제5차 토론회 자료집(2012: 14)에 의하면 선행학습 참여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설문에서 중학생 응답자의 73.5%가 '미리 배워두면 학교수업을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으며, 40.97%의 학생은 '학교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좇아가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5.1%의 학생이 '남들이 다하니까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안상진(2013: 10)에 의하면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정책 및 제도 요인, 사교육 업체의 홍보 효과, 그리고 수요자의 의식요인 등으로 구분된다. 정책 및 제도 요인은 첫째,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학교 시험, 둘째, 속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셋째,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대학별고사와 대입전형, 넷째, 난이도가 높고 양이 많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다섯째,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하는 수능 제도, 여섯째, 상대평가 내신제도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 등의 요인이 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쟁심과 불안감, 그리고 이를 자극하여 선행학습의 수요를 증폭시키는 사교육 마케팅 등이 있다.

김현철·윤유진(2011: 12)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하여 선행학습의 주요 요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수능시험 대비 위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둘째,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 간의 괴리, 셋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수리논술 시험 사이의 불일치 등이다. 김정민 외(2013: 145)의 연구에 의하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학벌사회 인식, 상급학교 입시에 대한 인식, 가구 소득, 중학생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학생의 성적,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 성행 지역 여부, 초등학교의 지역규모, 초등학생의 진학희망 고등학교, 어머니의 교육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천·신철균(2011)의 연구에서는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대체로 고등학교 3년 수학과정을 고등학교 2학년에 마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른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 둘째, 특목고 입시는 상당 수준의 학습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 셋째,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유도 전략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 넷째, 공교육에서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밝힌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선행 연구에서 밝힌 선행학습 유발 요인

선 행 연 구	선행학습 유발 요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김성천·신철균 (2011)	•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처 부족	학교 내부 요인	
	• 특목고 대비 • 수능 대비	학교 외부 요인	정책·제도
	• 사교육 마케팅 전략		사회·문화
김양분·김미숙 (2002)	• 성적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학교 외부 요인	개인
김정민 외 (2013)	•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수업 •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 진도 • 수업과 평가의 수준 차이 • 교내 경시대회 준비 • 학생 수준별 지도 학습 부족 • 시험 후 피드백 부족	학교 내부 요인	
	• 학생의 성적, 월평균 가구 소득 • 어머니의 교육 수준	학교 외부 요인	개인
	• 상급학교 입시 인식 • 진학 희망 고등학교		정책·제도
	•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 • 지역 규모 • 학벌사회 인식		사회·문화
김현철·윤유진 (2011)	•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 학교 수업을 받는 데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	학교 외부 요인	개인
	• 성적 향상, 내신관리		정책·제도
김희삼 (2009)	• 교원의 평균 학력 • 교과교실 운영 여부 • 교사 열의	학교 내부 요인	
박현정 외 (2008)	• 교사평균 연수시간, 시설 여건 낙후도 • 교사열의	학교 내부 요인	
송경오·이광현 (2010)	• 방과후 학교, 수준별 수업, 자율학습 참여 여부 • 기간제 교사의 비율 • 교과협의회	학교 내부 요인	
안상진 (2013)	• 높은 수준의 학교 평가 내용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내부 요인	
	• 학생의 불안심리	학교 외부 요인	개인

선 행 연 구	선행학습 유발 요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학능력 시험 • 상대평가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 •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대학별고사와 대입 전형		정책·제도
	• 경쟁을 자극하는 사교육 마케팅 전략		사회·문화
이광현 (2012)	• 특목고·자사고 진학 계획	학교 외부 요인	정책·제도
이수정·민병철 (2009)	• 방과후 학교 충실도 • 수준별 이동수업 여부	학교 내부 요인	
이종태 외 (2002)	• 경시대회 • 교사의 무관심 •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부재	학교 내부 요인	

다. 선행학습 예방 방안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학습 예방 방안은 대체로 개인 및 학교 내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정책·제도 영역의 방안, 사회·문화 영역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 및 학교 내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이 제안되었고, 학교에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방안, 참여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교원 업무 조정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정책·제도 영역에서 제안된 예방 방안은 평가 및 학생 선발 방식 개선, 교육과정의 수준과 양 조절, 교육 여건 개선, 단위학교 자율성, 교원 양성 방식 및 교원 평가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선행학습이 효과가 없다는 홍보, 학력·학벌 위주의 사회풍토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선행 연구에서 밝힌 선행학습 예방 방안

선행 연구	영역	예방 방안
김성천·신철균 (2011)	학교 내부	• 학생 참여를 통한 수업 방법
	정책·제도	•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 교육과정, 수준별로 구성된 교과서
	사회·문화	• 사교육 및 선행학습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사교육 시장에 의한 정보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김양분·김미숙 (2002)	학교 내부	•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다양한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수업 이외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행정 방식으로 개선
	정책·제도	• 학생 선발 방식 및 평가의 다양화 • 특목고 선발 방식 개선 • 대입을 위한 학생 선발 방식 개선 • 영재 선발 및 경시대회 문제 개선 • 학교 교육 여건과 시설 개선 • 교육의 질 향상 • 교사 선발 방식 및 교사 양성 체제 개선
	사회·문화	• 학력·학벌주의 풍토 개선
김영철 (2003)	정책·제도	• 학교교육 내용과 입시내용 간의 괴리 축소 • 학교교육의 결과를 대학진학제도에 중점적으로 반영
	사회·문화	• 학력위주의 평가관 시정
김정민 외 (2013)	학교 내부	• 교내 경시대회 수준과 학교 수업의 수준·범위 일치 • 학교 평가와 수업 내용·수준 일치 • 기초적인 수준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정책·제도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공교육 여건의 개선과 내실화
김정민 외 (2014)	학교 내부	• 수준별 학습 지도 방안과 수업·평가 모델 개발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제공
	정책·제도	• 교육과정의 수준과 양 점검 •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김현철·윤유진 (2011)	학교 내부	• 자기주도학습 강화 프로그램 마련
	정책·제도	• 대학 입시 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문화	• 선행학습이 실제적인 교육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홍보
김희삼 (2009)	학교 내부	• 학생들의 이해력 차이를 고려한 수업 제공
	정책·제도	• 교원 양성 방식의 개선, 학생의 수업 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강화
도승이 외 (2012)	개인	•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사회·문화	•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
박현정 외 (2008)	사회·문화	•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폭넓게 홍보

KEDI

PART III

선행학습 실태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3. 선행학습 실태 종합 및 시사점

Ⅲ 선행학습 실태 분석

선행학습의 실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행학습 실태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영향요인 분석 단계에서 종속 변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먼저 각 학교급별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행의 시작 시기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받고 있는 선행학습의 유형과 유형별 주당 학습시간을 분석하였다.

가.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1) 선행학습 시작 시점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을 묻는 질문은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등 3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3,518명의 응답자 가운데 영어는 801명(22.77%)이, 수학은 457명(12.99%)이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에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

과목		초 4학 (또는 그 이전)	초5	초6	선행 안함	무응답	합 계
영어	빈도	801	524	550	1,416	227	3,518
	비율	22.77	14.90	15.63	40.25	6.45	100.00
수학	빈도	457	993	673	1,248	147	3,518
	비율	12.99	28.23	19.13	35.48	4.18	100.00

2) 선행학습 유형별 초등학생의 주당 학습시간

가) 초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실태

초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3,518명의 응답자 가운데 2,020명(57.42%)이었으며, 과외의 경우에는 2,546명(72.37%)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료인터넷 강의는 2,643명(75.13%), EBS 강좌는 2,655명(75.47%), 방과후 수업은 2,661명(75.64%), 기타는 2,617명(74.39%)의 학생들이 각각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선행학습 유형별로 학습 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선행학습에 1~2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222명(6.31%)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과외의 경우 선행학습에 1시간 미만과 1~2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79명(2.25%)이었다. 유료 인터넷 강의는 1시간미만, 1~2시간 정도에서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 수가 각각 31명(0.88%)으로 가장 많았고, 방과후 수업 역시 같은 시간대에서 선행학습을 받는 수가 각각 22명(0.63%)으로 가장 많았다. EBS 강좌와 기타의 경우 1시간미만으로 선행학습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34명(0.97%), 49명(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초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구분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수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시간	2,020	57.42	2,546	72.37	2,643	75.13	2,655	75.47	2,661	75.64	2,617	74.39
1시간 미만	92	2.62	79	2.25	31	0.88	34	0.97	22	0.63	49	1.39
1-2시간	222	6.31	79	2.25	31	0.88	27	0.77	22	0.63	28	0.80
2-3시간	145	4.12	33	0.94	12	0.34	4	0.11	5	0.14	12	0.34
3-4시간	113	3.21	35	0.99	7	0.20	2	0.06	15	0.43	17	0.48
4-5시간	181	5.14	22	0.63	3	0.09	3	0.09	7	0.20	8	0.23
5-6시간	188	5.34	15	0.43	2	0.06	3	0.09	6	0.17	4	0.11
6-8시간	155	4.41	15	0.43	2	0.06	3	0.09	1	0.03	6	0.17
8시간 이상	135	3.84	10	0.28	3	0.09	2	0.06	3	0.09	9	0.26
무응답	267	7.59	684	19.44	784	22.29	785	22.31	776	22.06	768	21.83
합계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나) 초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실태

초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전체 3,518명의 응답자 가운데 2,212명(62.88%)이었으며, 과외의 경우 2,577명(73.25%)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료인터넷 강의는 2,747명(78.08%), EBS 강좌는 2,734명(77.71%), 방과후 수업은 2,767명(78.65%), 기타는 2,684명(76.29%)의 학생들이 각각 선행학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 유형별로 참여 시간을 보면, 학원에서는 1~2시간을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203명(5.77%)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강좌, 방과후 수업, 그리고 기타 유형에서는 1시간미만 참여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133명(3.78%), 31명(0.88%), 48명(1.36%), 22명(0.63%), 56명(1.59%)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표 Ⅲ-3〉 초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구분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수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시간	2,212	62.88	2,577	73.25	2,747	78.08	2,734	77.71	2,767	78.65	2,684	76.29
1시간 미만	74	2.10	133	3.78	31	0.88	48	1.36	22	0.63	56	1.59
1-2시간	203	5.77	106	3.01	22	0.63	27	0.77	8	0.23	45	1.28
2-3시간	129	3.67	43	1.22	12	0.34	10	0.28	8	0.23	30	0.85
3-4시간	108	3.07	44	1.25	6	0.17	1	0.03	6	0.17	11	0.31
4-5시간	120	3.41	17	0.48	2	0.06	1	0.03	3	0.09	12	0.34
5-6시간	138	3.92	13	0.37	3	0.09	2	0.06	1	0.03	10	0.28
6-8시간	104	2.96	14	0.40	2	0.06	2	0.06	2	0.06	3	0.09
8시간 이상	126	3.58	8	0.23	4	0.11	3	0.09	3	0.09	14	0.40
무응답	304	8.64	563	16.00	689	19.58	690	19.61	698	19.84	653	18.56
합계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0	3,518	100.0

나. 중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1) 선행학습 시작 시점

중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을 묻는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등 5개 항목 중에서 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3,571명의 응답자 가운데 영어는 545명(15.26%)이, 수학은 911명(25.51%)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중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

과목		초4 (또는 그 이전)	초5	초6	중1-1	중1-2	선행 안함	무응답	합 계
영어	빈도	367	142	279	236	545	1,586	416	3,571
	비율	10.28	3.98	7.81	6.61	15.26	44.41	11.65	100.00
수학	빈도	296	119	287	301	911	1,195	462	3,571
	비율	8.29	3.33	8.04	8.43	25.51	33.46	12.94	100.00

※ 참고. 중1-1은 1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를, 중1-2는 1학년 2학기 겨울방학까지를 포함한 기간임.

2) 선행학습 유형별 중학생의 주당 학습 시간

가) 중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중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3,571명의 응답자가 가운데 2,006명(56.17%)이었으며, 과외의 경우 2,489명(69.70%)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3,571명 중 유료 인터넷은 2,597명(72.72%), EBS 강의는 2,557명(71.60%), 방과후 수업은 2,582명(72.30%), 기타는 2,532명(70.90%)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선행학습 참여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영어과 선행학습을 받는 시간과 관련하여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그리고 방과후 수업의 경우 모두 1~2시간 정도 선행학습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194명(5.43%), 82명(2.30%), 26명(0.73%), 24명(0.67%)이었다. EBS 강좌와 기타의 경우 1시간미만으로 선행학습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46명(1.29%), 68명(1.90%)으로 가장 높았다.

〈표 Ⅲ-5〉 중학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구분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수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시간	2,006	56.17	2,489	69.70	2,597	72.72	2,557	71.60	2,582	72.30	2,532	70.90
1시간 미만	60	1.68	42	1.18	12	0.34	46	1.29	22	0.62	68	1.90
1-2시간	194	5.43	82	2.30	26	0.73	25	0.70	24	0.67	44	1.23
2-3시간	187	5.24	43	1.20	11	0.31	19	0.53	13	0.36	22	0.62
3-4시간	169	4.73	41	1.15	7	0.20	10	0.28	5	0.14	10	0.28
4-5시간	193	5.40	27	0.76	1	0.03	2	0.06	5	0.14	7	0.20
5-6시간	176	4.93	18	0.50	5	0.14	5	0.14	3	0.08	0	0.00
6-8시간	112	3.14	15	0.42	2	0.06	4	0.11	2	0.06	5	0.14
8시간 이상	154	4.31	11	0.31	6	0.17	5	0.14	4	0.11	11	0.31
무응답	320	8.96	803	22.49	904	25.32	898	25.15	911	25.51	872	24.42
합계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나) 중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중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3,571명의 응답자 가운데 1,749명(48.98%)이었으며, 과외의 경우 2,316명(64.86%)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3,571명 중 유료 인터넷은 2,452명(68.66%), EBS 강좌는 2,401명(67.24%), 방과후 수업은 2,433명(68.13%), 기타는 2,357명(66.00%)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선행학습 참여 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과 관련하여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그리고 방과후수업의 경우 1~2시간 정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각각 245명(6.86%), 89명(2.49%), 22명(0.62%), 28명(0.78%)이었다. EBS 강좌와 기타는 1시간미만으로 선행학습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각각 47명(1.32%), 71명(1.99%)이 응답하였다.

〈표 Ⅲ-6〉 중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구분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수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시간	1,749	48.98	2,316	64.86	2,452	68.66	2,401	67.24	2,433	68.13	2,357	66.00
1시간 미만	66	1.85	60	1.68	17	0.48	47	1.32	26	0.73	71	1.99
1-2시간	245	6.86	89	2.49	22	0.62	35	0.98	28	0.78	63	1.76
2-3시간	198	5.54	63	1.76	14	0.39	27	0.76	17	0.48	31	0.87
3-4시간	191	5.35	47	1.32	7	0.20	11	0.31	7	0.20	17	0.48
4-5시간	210	5.88	33	0.92	6	0.17	5	0.14	4	0.11	5	0.14
5-6시간	181	5.07	24	0.67	3	0.08	2	0.06	1	0.03	1	0.03
6-8시간	161	4.51	18	0.50	1	0.03	3	0.08	4	0.11	4	0.11
8시간 이상	210	5.88	17	0.48	6	0.17	5	0.14	2	0.06	16	0.45
무응답	360	10.08	904	25.32	1,043	29.21	1035	28.98	1,049	29.38	1,006	28.17
합계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3,571	100.00

다.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1) 선행학습 시작 시점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을 묻는 질문은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9개의 항목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3,262명의 응답자 가운데 영어는 336명(10.30%)이, 수학은 600명(18.39%)이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시작 시점

과목		초4 (또는 그 이전)	초5	초 6	중 1-1	중 1-2	중 2-1	중 2-2	중 3-1	중 3-2	선행 안함	무응답	합계
영어	빈도	160	40	45	85	31	67	63	90	336	2,309	36	3,262
	비율	4.91	1.23	1.38	2.61	0.95	2.05	1.93	2.76	10.30	70.79	1.10	100.00
수학	빈도	135	38	72	90	46	41	33	94	600	2,057	56	3,262
	비율	4.14	1.17	2.21	2.76	1.41	1.26	1.01	2.88	18.39	63.06	1.72	100.00

※참고. 중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포함한 수임.

2) 선행학습 유형별 고등학생의 주당 학습 시간

가) 고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고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3,262명의 응답자 가운데 2,454명(75.23%)이었으며, 과외의 경우 2,589명(79.37%)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3,260명 중 유료 인터넷은 2,655명(81.39%), EBS 강좌는 2,607명(79.92%), 방과후 수업은 2,585명(79.25%), 기타는 2,604명(79.83%)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선행학습 참여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과 관련하여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에 3~4시간을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108명(3.31%)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 수업, 그리고 기타 모두 1~2시간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51명(1.56%), 14명(0.43%), 44명(1.35%), 51명(1.56%), 51명(1.56%)이 응답하였다.

〈표 Ⅲ-8〉 고등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구분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수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시간	2,454	75.23	2,589	79.37	2,655	81.39	2,607	79.92	2,585	79.25	2,604	79.83
1시간 미만	22	0.67	9	0.28	9	0.28	29	0.89	32	0.98	36	1.10
1-2시간	68	2.08	51	1.56	14	0.43	44	1.35	51	1.56	51	1.56
2-3시간	86	2.64	39	1.20	8	0.25	25	0.77	21	0.64	38	1.16
3-4시간	108	3.31	46	1.41	6	0.18	16	0.49	6	0.18	22	0.67
4-5시간	77	2.36	20	0.61	0	0.00	6	0.18	5	0.15	10	0.31
5-6시간	57	1.75	12	0.37	1	0.03	0	0.00	2	0.06	6	0.18
6-8시간	38	1.16	2	0.06	0	0.00	1	0.03	1	0.03	4	0.12
8시간 이상	31	0.95	3	0.09	3	0.09	1	0.03	3	0.09	4	0.12
무응답	321	9.84	491	15.05	566	17.35	533	16.34	556	17.04	487	14.93
합계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나) 고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고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전체 3,262명의 응답자 가운데 1,992명(61.07%)이었으며, 과외의 경우 2,243명(68.76%)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체 3,262명의 응답자 중 유

료인터넷은 2,349명(72.01%), EBS 강좌는 2,294명(70.32%), 방과후 수업은 2,281명(69.93%), 기타는 2,300명(70.51%)이 각각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선행학습 참여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과 관련하여 학원의 경우 3~4시간 정도는 150명(4.60%)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과외의 경우 2~3시간 정도가 85명(2.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료 인터넷 강의의 경우 1~2시간과 3~4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20명(0.61%)이 응답하였다. EBS 강좌와 방과후 수업은 1~2시간 정도가 각각 58명(1.78%), 67명(2.0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타의 경우 1시간미만이 43명(1.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9〉 고등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 시간 분석 결과

구준	학원		과외		유료 인터넷 강의		EBS 강좌		방과후수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시간	1,992	61.07	2,243	68.76	2,349	72.01	2,294	70.32	2,281	69.93	2,300	70.51
1시간 미만	12	0.37	13	0.40	9	0.28	42	1.29	41	1.26	43	1.32
1-2시간	125	3.83	70	2.15	20	0.61	58	1.78	67	2.05	42	1.29
2-3시간	131	4.02	85	2.61	18	0.55	26	0.80	26	0.80	30	0.92
3-4시간	150	4.60	58	1.78	20	0.61	13	0.40	16	0.49	19	0.58
4-5시간	138	4.23	59	1.81	16	0.49	10	0.31	9	0.28	16	0.49
5-6시간	119	3.65	29	0.89	6	0.18	2	0.06	2	0.06	7	0.21
6-8시간	93	2.85	11	0.34	6	0.18	3	0.09	2	0.06	3	0.09
8시간 이상	117	3.59	10	0.31	8	0.25	3	0.09	3	0.09	17	0.52
무응답	385	11.80	684	20.97	810	24.83	811	24.86	815	24.98	785	24.06
합계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3,262	100.00

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가) 영어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영어과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선행학습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관련하여 모 학력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영어과 선행학습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급별 차이에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영어과 선행학습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Ⅲ-10〉 영어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

구분		선행학습 함	선행학습 안 함	전체	χ^2
학생 성별	남학생	2,507	2,772	5,279	2.44
		47.00	53.00	100.00	
	여학생	2,363	2,455	4,818	
		49.00	51.00	100.00	
학부모 성별	아버지	998	1,122	2,120	1.31
		47.00	53.00	100.00	
	어머니	1,924	2,299	4,223	
		46.00	54.00	100.00	
모학력	고졸이하	4,190	4,465	8,655	1.34
		48.00	52.00	100.00	
	전문대졸 이상	202	191	393	
		51.00	49.00	100.00	
부학력	고졸이하	3,822	4,112	7,934	8.46**
		48.00	52.00	100.00	
	전문대졸 이상	451	393	844	
		53.00	47.00	100.00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432	1,609	3,041	2.66
		47.00	53.00	100.00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126	2,281	4,407	
		48.00	52.00	100.00	
	600만원 이상	509	510	1,019	
		50.00	50.00	10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058	1,416	3,474	726.50***
		59.00	41.00	100.00	
	중학교	1,949	1,586	3,535	
		55.00	45.00	100.00	
	고등학교	934	2,309	3,243	
		29.00	71.00	100.00	

**$p<.01$, ***$p<.001$

나) 수학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수학과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성별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선행학습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5$), 학부모 성별에 따른 선행학습 경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과 관련하여 모 학력의 수준이 전문대 졸 이상인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부 학력 역시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급별 차이에서는 중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수학과 선행학습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Ⅲ-11〉 수학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

구분		선행학습 함	선행학습 안 함	전체	χ^2
학생 성별	남학생	2,914	2,374	5,288	5.87*
		55.00	45.00	100.00	
	여학생	2,772	2,049	4,821	
		57.00	43.00	100.00	
학부모 성별	아버지	1,164	961	2,125	.00
		55.00	45.00	100.00	
	어머니	2,313	1,913	4,226	
		55.00	45.00	100.00	
모학력	고졸이하	4,902	3,761	8,663	5.45*
		57.00	43.00	100.00	
	전문대졸 이상	247	148	395	
		63.00	37.00	100.00	
부학력	고졸이하	4,484	3,455	7,939	8.19**
		56.00	44.00	100.00	
	전문대졸 이상	520	324	844	
		62.00	38.00	100.00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676	1,374	3,050	2.04
		55.00	45.00	100.00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478	1,934	4,412	
		56.00	44.00	100.00	
	600만원 이상	585	436	1,021	
		57.00	43.00	100.00	

구분		선행학습 함	선행학습 안 함	전체	χ^2
학교급별	초등학교	2,238	1,248	3,486	748.07***
		64.00	36.00	100.00	
	중학교	2,347	1,195	3,542	
		66.00	34.00	100.00	
	고등학교	1,181	2,057	3,238	
		36.00	64.00	100.00	

*$p<.05$, **$p<.01$, ***$p<.001$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설문조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행학습 실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총 25명의 면담대상자 가운데 실태에 대해 응답한 9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면담내용의 분석 결과는 선행학습 결정 주체, 시작 시기, 내용, 유형 선택 기준, 선행학습 형태, 선행학습 비용 등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가.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및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 선행학습의 효과 등에 대해 면담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면담 결과

구 분	김민서	이승현	
선행학습 결정 주체	엄마	엄마	
선행학습 시작 시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선행학습 내용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수학	영어
선행학습 유형 선택 기준	접근성	주변의 소문	
선행학습 유형	학원	학원	
선행학습 비용(월 기준)	28만원	60만원	35만원

두 학생 모두 선행학습을 결정한 주체는 엄마였으며, 선행학습을 시작한 시기는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으로 둘 다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김민서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네 과목이며,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집과의 거리, 즉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사교육비는 한 달에 28만원으로, 종합학원이기 때문에 네 과목의 비용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였다. 반면 이승현 학생은 수학과 영어 두 과목만을 선행하고 있었고, 학원 선택의 기준은 주변의 입소문을 통해 이미 입증된 학원이었다. 한 달에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수학 60만원, 영어 35만원으로 총 95만원이었다.

김민서 학생은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학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학교 시험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과 엄마가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모르는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학원에 다니고 싶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의 강요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김민서 학생의 선행학습은 전적으로 엄마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승현 학생은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배울 때 좀 더 쉽다는 점과 수학 과목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학교에서의 수업과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중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중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및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 선행학습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중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면담 결과

구 분	김혜린		김지은		
선행학습 결정 주체	엄마		본인	엄마	본인
선행학습 시작 시기	초 5	초 1	초 4	초 2	중 3
선행학습 내용	수학	영어	수학	영어	과학
선행학습 유형 선택 기준	부모의 추천-입소문		부모의 추천-입소문		
선행학습 유형	과외		과외	교습소	학원
선행학습 비용(월 기준)	15만원		15만원	30만원	20만원

김정아	조덕제		김시윤		
본인	부모		부모의 권유와 본인 선택		
중 3	초 2	초 2	중 1	중 1	중 2
수학	수학	영어	수학	영어	국어
친구 소개	학원강사의 지도 스타일		친구 소개, 입소문		
학원	학원		학원		
23만원	15-20만원		23만원	35만원	15만원

중학교 면담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결정하는 주체는 부모가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선행학습의 시작 시기가 김정아와 김시윤 학생을 제외하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은 스스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행학습을 결정할 만큼 성숙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유나 강요가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선행학습의 기간을 살펴보면, 김혜린 학생은 이미 9년 정도가 되었고, 김지은, 조덕제 학생도 8년 정도 선행학습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매우 어린 시기에 선행학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학습 과목은 수학과 영어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국어나 과학 과목을 선행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학원이 많았으나, 과외나 교습소 같은 곳을 통해서도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면담 학생들은 선행학습의 방법을 선택할 때 대체적으로 입소문을 통해 이미 실력이 입증된 곳을 선호하였고, 선행학습 비용으로는 한 달에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7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린 학생은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에 대해 예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학교 수업을 받을 때 오히려 복습 같은 느낌이 들어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공부에 대해 매우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지은 학생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고 싶은 마음에 학원을 처음 선택하여 선행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원에서 한 번 배운 내용을 학교 수업시간에 한 번 더 듣기 때문에 학기 중에 편하고, 수업 내용이 이해가 잘 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선행학습을 하면 항상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런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아 학생은 수학과 선행학습을 중학교 3학년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약 특목고에 들어갔을 경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입학하여 헤매는 것보다 지금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선행학습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면담 학생 중 유일하게 중학교 3학년에 들어와서 선행학습을 시작한 경우로 이는 나름 뛰어난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게 될 특목고에서의 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현재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약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선행학습의 효과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덕제 학생은 선행학습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의 강요로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선행학습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학원을 꾸준히 다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원의 강제력이 나태한 성격의 자신을 잘 관리해주고 있고 성적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다.

김시윤 학생은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 외고를 준비하고 있고 외고 입학 후에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 미리 고등학교 내용에 대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덕제 학생처럼 자신의 나태한 성격으로 인해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통한 강제력이 필요한 것 같고, 김정아 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미리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효과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다.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및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 선행학습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실태 면담 결과

구 분	주아름	김인희	
선행학습 결정 주체	본인과 부모의 협의	본인과 부모의 협의	
선행학습 시작 시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 1학기
선행학습 내용	수학	수학	과학
선행학습 유형 선택 기준	학원강사의 성향	접근성과 학원강사의 실력	
선행학습 유형	학원	학원	
선행학습 비용(월 기준)	20만원	80-90만원	60-70만원

주아름 학생과 김인희 학생 둘 다 선행학습은 학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학원을 결정한 주체는 부모의 권유와 자신의 동의에 의한 협의라고 언급하였다. 주아름 학생은 현재 수학 과목에 대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여 현재 4년째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원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학원 강사와 본인의 성향이 서로 맞는지의 여부이고, 사교육비로는 월 2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김인희 학생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선행학습하고 있는데, 수학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였고, 사교육 비용은 80-90만원이라고 했다. 또한 과학은 3학년 1학기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였는데, 그 비용은 60-70만원이라고 말하였다.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성과 학원 강사의 실력을 가장 중요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비교했을 때,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을수록 부모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선행학습의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아름 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는 해당 학기에 수학을 배워서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학 과목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이해가 되고, 한 학기에만 배워서는 공부하는 데 있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인희 학생은 선행학습을 받는 이유에 대해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단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행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에 처음 들어갔다기보다는 내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원을 찾았고, 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다보니 이제는 선행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학기에 공부해서는 학교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미리 배우는 것이 내신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 선행학습 실태 종합 및 시사점

설문조사에서 선행학습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대략 29%에서 61%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생들은 조사 대상의 29%가 영어 선행학습을 하였고, 36%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

였다. 중학생들은 44%가 영어 선행학습을 하였고, 54%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54%, 수학 과목에서 61%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선행학습 시점을 보면 고등학생 가운데 7%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영어 및 수학 교과 내용을 선행학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 가운데 22%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영어 교과 내용을 선행학습 하고, 19% 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 교과를 선행학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에서 선행학습 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형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로 1~2시간 정도를 선행학습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 시간은 중학교의 경우 수학에서 학원을 이용하여 8시간 이상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210명(5.88%)으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수학과목을 위해 8시간 이상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들(각 126명, 117명)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 영어에서 학원을 이용하여 8시간 이상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154명(4.31%)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영어 8시간 이상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각 135명, 31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각 교과별 선행학습 경험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학습이라는 특성상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을 미리 학습한다는 것 때문에 잔여 학령 기간이 가장 길게 남은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선행학습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생의 선행학습 실태를 살펴보면, 선행학습은 대체로 부모의 강요 혹은 부모의 권유에 따른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학습의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선행학습 시작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늦을수록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과목은 주로 수학과 영어 과목이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원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고 그 비용은 월 기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60만원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선행학습 시작 시기가 초등학교일 경우, 대부분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선행학습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학부모의 불안의식과 경쟁의식이 학생들을 어린 나이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선행학습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사교육을 시작한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른 나이에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아이들은 그곳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선행학습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는 더욱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self-direction learning)이란 학습자가 교사나 타인의 도움과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Knowles, 1975). 김희삼(2011)은 학업성취도 향상 요인으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영향을 많이 미치며 사교육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만, 자기주도학습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력을 지니게 된다면 사교육에 의존한 선행학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부모 및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교육의 첫 경험이 학생들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부모의 '강요'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KEDI

PART Ⅳ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방법 및 결과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3.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및 시사점

Ⅳ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학교 밖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도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설문조사 분석 방법 및 결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학교급별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어서 다층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층분석모형에서는 학생 데이터와 학부모 데이터를 구분해서 대상별로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총 10,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학부모 10,020명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집의 분포 비율과 응답 현황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학생 표본의 분포와 비율

(단위 : 명, %)

학교급	여학생	남학생	무응답	계
초등학교	1,712(48.66)	1,737(49.37)	69(1.96)	3,518(100.00)
중학교	1,594(44.64)	1,907(53.40)	70(1.96)	3,571(100.00)
고등학교	1,550(47.52)	1,692(51.87)	20(0.61)	3,262(100.00)
계	4,856(46.91)	5,336(51.55)	159(1.54)	10,351(100.00)

〈표 Ⅳ-2〉 학부모 표본의 분포와 비율

(단위 : 명, %)

학교급	모	부	무응답	계
초등학교	1,337(39.13)	694(20.31)	1,386(40.56)	3,417(100)
중학교	1,420(41.67)	719(21.10)	1,269(37.24)	3,408(100)
고등학교	1,500(46.95)	726(22.72)	9,69(30.33)	3,195(100)
계	4,257(42.49)	2,139(21.35)	3,624(36.17)	10,020(100)

2) 분석 모형의 설계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일반화선형모델(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이 선행학습 결정 유무와 같은 이분변인이기 때문이다(Raudenbush & Bryk, 2002).

가) 1수준 모형 : 개인 수준 모형

HGLM의 1수준 모형은 표집모형(a sampling model), 연결함수(a link function), 구조모형(a structural model)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Raudenbush & Bryk, 2002). 본 논문에서는 선행학습 결정 여부에 대한 로짓 연결함수를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동일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때 투입되는 독립변인은 학생 변인과 학부모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 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투입모형

$$\eta_{ij} = \beta_{0j} + \beta_{01}(\text{Ln월평균가구소득})_{ij} + \beta_{02}(\text{모연령})_{ij} + \beta_{03}(\text{부연령})_{ij} + \beta_{04}(\text{모학력})_{ij} + \beta_{05}(\text{부학력})_{ij}$$
$$+ \beta_{06}(\text{학습의견존중})_{ij} + \beta_{07}(\text{학습스트레스})_{ij} + \beta_{08}(\text{지적호기심})_{ij} + \beta_{09}(\text{막연한불안감})_{ij}$$
$$+ \beta_{10}(\text{경쟁적사회문화인식}_{\text{학생}})_{ij} + \beta_{11}(\text{학벌사회인식}_{\text{학생}})_{ij} + \beta_{12}(\text{사교육마케팅인식}_{\text{학생}})_{ij}$$
$$+ \beta_{13}(\text{명문상급학교진학인식}_{\text{학생}})_{ij} + \beta_{14}(\text{교과정수준보다높은입시인식}_{\text{학생}})_{ij} + \beta_{15}(\text{내신준비인식}_{\text{학생}})_{ij}$$

- 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모형

$$\eta_{ij} = \beta_{0j} + \beta_{01}(\text{Ln월평균가구소득})_{ij} + \beta_{02}(\text{모연령})_{ij} + \beta_{03}(\text{부연령})_{ij} + \beta_{04}(\text{모학력})_{ij} + \beta_{05}(\text{부학력})_{ij}$$
$$+ \beta_{06}(\text{사교육동기}_{\text{외재}})_{ij} + \beta_{07}(\text{선행학습동기}_{\text{위탁}})_{ij} + \beta_{08}(\text{선행학습동기}_{\text{경쟁}})_{ij} + \beta_{09}(\text{선행학습동기}_{\text{내재}})_{ij}$$
$$+ \beta_{10}(\text{경쟁적사회문화인식}_{\text{학부모}})_{ij} + \beta_{11}(\text{학벌사회인식}_{\text{학부모}})_{ij} + \beta_{12}(\text{사교육마케팅인식}_{\text{학부모}})_{ij}$$
$$+ \beta_{13}(\text{명문상급학교진학인식}_{\text{학부모}})_{ij} + \beta_{14}(\text{교과정수준보다높은입시인식}_{\text{학부모}})_{ij} + \beta_{15}(\text{내신준비인식}_{\text{학부모}})_{ij}$$

나) 2수준 모형 : 집단 수준 모형

2수준에서는 지역 변인을 통해 집단 간 선행학습 결정 여부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교규모})_j + \gamma_{02}(\text{사교육성행지역})_j + \gamma_{03}(\text{경쟁적사회문화인식})_j + \gamma_{04}(\text{학벌사회인식})_j$$
$$+ \gamma_{05}(\text{사교육마케팅인식})_j + \gamma_{06}(\text{명문상급학교진학인식})_j + \gamma_{07}(\text{교육과정수준보다높은입시인식})_j$$
$$+ \gamma_{08}(\text{내신준비인식})_j + \m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vdots$$
$$\beta_{15j} = \gamma_{150}$$

2수준 모형에서는 β_{0j}에 대해서만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무선효과로 설정하고 다른 개인 수준 변인은 고정효과로 설정하였다. γ_{00}은 집단전체 선행학습 결정 여부의 평균적인 수준이며 γ_{01}부터 γ_{08}은 지역 수준 변인의 영향력이다.

3) 분석 변인

1수준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가정배경 변인과 개인 수준의 사회·심리적 변인, 사회·문화적 변인, 정책·제도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가정배경 변인들 가운데 월평균 소득, 부모 연령은 범주형 변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분석에서는 각 구간의 중앙값으로 변환한 값을 투입하였다. 모 학력 수준과 부 학력 수준 변인 또한 범주형 변인으로 조사하였으나, 각 학력 수준별 교육 연한 값으로 변환한 값을 투입하였다.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은 선행학습 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학부모의 학생의견 존중, 학업 스트레스, 학생의 지적 호기심, 선행학습에 대한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설정하였다.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은 학부모의 선행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와 관련된 것들로, 선행학습 동기에 대한 외재적, 위탁적, 경쟁적, 내재적 동기 네 가지를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경쟁적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과 학벌사회 인식 변인은 다중 문

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의 평균값을 개인의 점수로 활용하였다. 각 변인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변인은 학부모 자료에서는 .779, 학생 자료에서는 .744 나타났으며, 학벌사회 인식은 학부모 자료에서는 .849, 학생 자료에서는 .769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끝으로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은 명문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Ⅳ-3〉 변인 및 문항 내용

변인			문항 내용
통제 변인	가정배경 변인	월평균소득	Ln(월평균소득)
		부학력	부학력(년)
		모학력	모학력(년)
		부연령	부연령(년)
		모연령	모연령(년)
	학생의 사회·심리 변인	학생 의견 존중	부모님은 공부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학업 스트레스	나는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있다.
		지적 호기심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다.
		막연한 불안감	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학부모의 사회·심리 변인	선행학습 동기(외재)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참여시킨다.
		선행학습 동기(위탁)	내 자녀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선행학습에 참여시킨다.
		선행학습 동기(경쟁)	내 아이만 선행학습을 안 시키면 불안하다.
		선행학습 동기(내재)	폭 넓고 심도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참여시킨다.
투입 변인 (학교 외부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 (학생·학부모)	경쟁적 사회·문화인식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에 좋은 직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쟁취할 수 있다.
		학벌사회인식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출신 대학이 결정되면 개인의 성공과 삶에 평생 동안 큰 영향을 미친다.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
		사교육 홍보 인식	학원 및 인터넷 강의 등의 광고는 선행학습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한다.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학생·학부모)	명문상급학교 진학 인식	국제중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진도보다 미리 앞서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인식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어렵다.
		내신 준비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4) 분석 절차

분석에서는 먼저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조건부 모형은 각 수준별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수준 분산이 2수준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무조건부 모형 분석에서 2수준 분산이 의미 있게 나온 경우에 앞서 제시한 분석 모형에 따라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1은 1수준에 월평균 가구소득, 모 연령, 부 연령, 모 학력수준 및 부 학력수준[3] 등 가정배경 변인을 투입하였다. 모형2는 가정배경 변인과 개인 수준의 사회·심리적 변인, 사회·문화적 변인 및 정책·제도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모형3은 모형1과 모형2에 투입된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학교배경 변인과 지역 수준의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이며, 모형4는 모형1과 모형2의 독립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학교배경 변인과 지역 수준의 정책·제도적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이다.

나. 분석 결과

1)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초등학교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모형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은 주요 교과인 영어, 수학의 선행학습 참여 유·무를 나타내는 이분변인으로 각 과목별 선행학습 참여 유무의 평균은 영어 .59, 수학 .64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본으로 추출된 학생들 가운데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영어의 경우 59%, 수학 64% 정도 선행학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배경 변인으로는 월평균 소득 수준이 4,152,000원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2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4.34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한은 13.73년, 아버지의 평균 교육 연한은 13.64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들 가운데 학습 의견존중 인식 변인은 평균적으로 3.79, 지적 호기심 변인이 1.99로 나타났으며 학습 스트레스 인식이 2.83, 막연한 불안감 인식 변인이 2.86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선행학습 동기 변인 가운데 외재적 동기의 평균은 3.14, 위탁적 동기의 평균은 2.91, 경쟁적 동기의 평균은 3.03, 내재적 평균의 동기는 2.80으로 나타나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모 연령, 부 연령, 모 학력수준, 부 학력수준에 대한 응답은 연속형 척도로 변환한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에 대한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은 3.07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2.98로 나타났으며, 학벌사회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변인의 평균은 3.33인 반면, 학생 집단 평균값은 3.24로 나타나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평균은 3.23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31으로 나타나 학생 집단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 평균은 3.07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2.99로 나타났고,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학생 개인 평균은 3.57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45로 나타났다.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평균은 3.19로 나타났지만 학생 집단 평균은 3.16으로 나타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은 학생 개인 변인들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들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02로 나타났으나 학부모 집단 평균은 3.01로 나타났고, 학벌사회 인식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19로 나타났으나 학부모 집단 평균은 3.17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 홍보 인식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98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 집단 평균은 3.97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부모 집단보다 개인 인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50인 반면 집단 평균은 3.47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수준 보다 높은 입시 수준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89인 반면, 학부모 집단 인식 평균은 3.88로 나타났다. 내신 준비에 대학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26, 학부모 집단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표 Ⅳ-4〉 기술통계 분석 결과(초등학교)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인				
영어 선행학습 유무	.00	1.00	.59	.49
수학 선행학습 유무	.00	1.00	.64	.48
가정배경 변인(1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천원)	50.00	850.00	4,152.02	2,121.43
모 연령	25.00	55.00	43.21	3.72
부 연령	25.00	55.00	44.34	2.40
모 학력수준	9.00	18.00	13.73	3.55
부 학력수준	9.00	18.00	13.64	3.23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1.00	5.00	3.79	1.14
학습스트레스 인식	1.00	5.00	2.83	1.32
지적 호기심 인식	1.00	5.00	1.99	1.12
막연한 불안감 인식	1.00	5.00	2.86	1.27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00	5.00	3.14	1.21
선행학습동기_위탁	1.00	5.00	2.91	1.28
선행학습동기_경쟁	1.00	5.00	3.03	1.24
선행학습동기_내재	1.00	5.00	2.80	1.17
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군(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07	.90
학벌사회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33	.95
사교육 홍보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23	1.16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07	1.16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생 개인)	1.00	5.00	3.57	.94
내신준비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19	1.17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군(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02	1.05
학벌사회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19	1.23
사교육 홍보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98	1.08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50	1.2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부모 개인)	1.00	5.00	3.89	.95
내신준비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26	1.12
학교배경 변인(2수준)				
학교규모	.00	1.00	.16	.37
사교육 성행지역	.00	1.00	.28	.45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학생집단)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생 집단)	2.13	3.45	2.98	.26
학벌사회 인식(학생 집단)	2.54	3.76	3.24	.25
사교육 홍보 인식(학생 집단)	2.44	4.16	3.31	.35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학생집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생 집단)	2.18	3.76	2.99	.3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생 집단)	2.58	4.13	3.45	.31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신준비 인식(학생 집단)	2.13	3.83	3.16	.32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학부모 집단)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부모 집단)	2.44	3.57	3.01	.21
학벌사회 인식(학부모 집단)	2.60	3.96	3.17	.26
사교육 홍보 인식(학부모 집단)	3.13	4.48	3.97	.28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학부모 집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부모 집단)	2.71	4.37	3.47	.3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부모 집단)	3.25	4.41	3.88	.25
내신준비 인식(학부모 집단)	2.61	3.96	3.40	.25

나) 다층 분석 결과[4)]

다음 표에 제시된 것처럼 초등학교에서의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2수준에서 영어의 분산은 .255(χ^2=277.898, $P<.001$), 수학의 분산은 .366(χ^2=335.819,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산 대비 학교 조직의 변량(variation)을 보여주는 ICC 값을 살펴보면, 영어 .203, 수학 .267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분산 대비 학교 변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어는 20.3%, 수학은 26.7%임을 의미하고 추가 변인을 투입하여 분산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5)].

〈표 Ⅳ-5〉 선행학습 참여에 대한 학교 간 차이(초등학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초기값	.374	.588	.065	.075	7.766	5.533	.000	.000
무선효과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1수준 분산 (척도인수)	1.000	1.000	81		277.898	335.819	.000	.000
2수준분산	.255	.366						
전체 변량	1.255	1.366						
집단 내 상관 (ICC)	.203	.267						

4) 국어와 과학은 부록3.에 제시하고, 본문에는 영어와 수학만 제시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이 이분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1수준의 분산이 이분산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1수준의 분산을 1로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바, 본 연구에서 ICC 값은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다(Rodriguez & Elo, 2003).

(1)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 학생 맥락 변인 투입 모형

학생 수준에서 가정배경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모형1에서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수준이 1% 증가하는 경우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299}=1.348$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한 모형2에서는 월평균 소득 수준, 모 학력 수준, 학생의 지적호기심,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 사회경쟁에 대한 학생의 개인 인식 변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수준이 1% 증가하는 경우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260}=1.29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학력 수준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025}=0.975$배로, 학생의 지적호기심에 대한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229}=1.257$배로 , 학생의 학습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172}=1.185$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끝으로 사회경쟁에 대한 학생의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105}=1.110$배 증가하였다.

모형3은 학교 배경 변인을 2수준에 통제한 모델로, 2수준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학교 규모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교규모는 대규모 학교와 중·소규모 학교의 이분변인으로 설정하였던 바,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 경우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381}=1.463$배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3과 모형4에서 2수준 변인(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변인, 정책·제도적 맥락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초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372***	.058	.397***	.056	.295***	.066	.302***	.064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299***	.068	.260***	.069	.221**	.073	.221**	.073
모 연령	.005	.010	.009	.010	.008	.010	.008	.010
부 연령	.008	.015	.002	.015	.002	.015	.001	.015
모 학력수준	-.021	.012	-.025*	.012	-.023	.012	-.023	.013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부 학력수준	−.018	.013	−.015	.013	−.015	.013	−.015	.013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42	.035	−.046	.036	−.044	.036
학습스트레스 인식			.030	.032	.031	.032	.031	.033
지적 호기심 인식			.229***	.037	.229***	.038	.227***	.038
막연한 불안감 인식			.172***	.027	.170***	.028	.169***	.028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105*	.050	.101*	.051	.102*	.051
학벌사회인식			.018	.051	.014	.052	.013	.053
사교육 홍보 인식			−.044	.038	−.044	.039	−.045	.039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06	.033	−.008	.034	−.008	.03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인식			−.031	.043	−.033	.043	−.032	.043
내신준비 인식			.022	.038	.022	.039	.021	.039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381*	.145	.326*	.137
사교육 성행지역					.135	.118	.144	.120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05	.289		
학벌사회인식					.254	.385		
사교육 홍보 인식					.126	.182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98	.31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인식							−.124	.174
내신준비 인식							.481	.314
무선효과								
2수준	.199***		.169***		.137***		.118***	

*$p<.05$, **$p<.01$, ***$p<.001$

■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 모형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소득수준과 모 학력수준, 학부모의 선행학습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 위탁적 동기, 경쟁적 동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의 개인적 인식 변인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먼저, 월평균 소득수준이 1% 증가할수록 영어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은 $e^{0.296}$ =1.3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선행학습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유발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e^{0.190}$ =1.20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적 동기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학생이 선행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e^{0.112}$ =1.118배, 경쟁적 동기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e^{0.088}$ =1.091배 증가하는 가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12}$ =.894배로 나타났다.

모형3의 2수준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학교규모로 나타났다.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 경우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374}$ =1.45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2수준에서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으로 학교규모가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초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372***	.058	.394***	.058	.315***	.078	.309***	.082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299***	.068	.296***	.071	.258**	.074	.267**	.074
모 연령	.005	.010	.007	.010	.004	.010	.005	.010
부 연령	.008	.015	-.003	.015	-.003	.015	-.003	.015
모 학력수준	-.021	.012	-.027*	.012	-.025*	.012	-.025*	.012
부 학력수준	-.018	.013	-.023	.013	-.022	.013	-.023	.013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90***	.042	.187***	.043	.188***	.043
선행학습동기_위탁			.112**	.038	.122**	.039	.120**	.039
선행학습동기_경쟁			.081*	.038	.075	.039	.075	.039
선행학습동기_내재			.088*	.035	.088*	.035	.089*	.035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13	.048	.019	.049	.013	.049
학벌사회인식			.017	.042	.009	.043	.012	.043
사교육 홍보 인식			-.112**	.041	-.122**	.041	-.115**	.041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25	.035	.019	.036	.023	.036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21	.043	.019	.044	.014	.044
내신준비 인식			−.010	.040	−.003	.040	−.008	.041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374*	.184	.373*	.182
사교육 성행지역					.075	.122	.094	.138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376	.457		
학벌사회인식					.271	.422		
사교육 홍보 인식					.456	.236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51	.317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331	.274
내신준비 인식							.561	.340
무선효과								
2수준	.199***		.186***		.150***		.151***	

$^{*}p<.05$, $^{**}p<.01$, $^{***}p<.001$

(2)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 학생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1에서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수준이 1% 증가하는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받을 가능성은 $e^{0.294}=1.34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소득수준, 학생의 지적호기심,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 명문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수준이 1% 증가하는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67}=1.306$배로, 학생의 지적호기심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312}=1.366$배,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20}=1.1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은 $e^{0.112}=1.1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2수준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학교 규모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교규모는 대규모 학교와 중·소규모 학교의 이분변인으로 설정하였던 바,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578}=1.782$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2수준 변인은 학교규모와 사교육 성행지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은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e^{0.533}=1.70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성행지역인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59}=1.29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초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566***	.067	.609***	.066	.468***	.077	.464***	.074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294***	.061	.267***	.064	.233**	.065	.237**	.066
모 연령	−.004	.010	.000	.010	−.002	.010	−.001	.010
부 연령	−.011	.015	−.019	.015	−.019	.015	−.021	.015
모 학력수준	.002	.011	−.003	.011	−.001	.011	.000	.011
부 학력수준	−.005	.011	.000	.012	.000	.012	.000	.012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47	.029	−.051	.030	−.049	.030
학습스트레스 인식			.019	.030	.019	.031	.019	.031
지적 호기심 인식			.312***	.041	.317***	.043	.315***	.044
막연한 불안감 인식			.120***	.030	.118***	.031	.118***	.031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48	.056	.043	.058	.043	.058
학벌사회인식			−.063	.047	−.069	.049	−.069	.049
사교육 홍보 인식			−.065	.041	−.067	.042	−.069	.042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12**	.039	.112**	.041	.114**	.041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27	.044	−.028	.045	−.027	.045
내신준비 인식			.037	.040	.039	.041	.038	.041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578**	.179	.533**	.162
사교육 성행지역					.210	.116	.259*	.122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323	.325		
학벌사회인식					.772	.408		
사교육 홍보 인식					.043	.189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13	.34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236	.212
내신준비 인식							.606	.344
무선효과								
2수준	.312***		.279***		.197***		.175***	

*$p<.05$, **$p<.01$, ***$p<.001$

■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 모형

학부모의 사회 심리적 변인, 사회 문화적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에서, 모형2에서는 월평균 소득수준, 학부모 선행학습 동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의 개인적 인식 변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수준이 1% 증가할수록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313}=1.367$배로, 외재적 동기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e^{0.199}=1.220$배, 위탁적 동기가 1점 증가할수록 $e^{0.140}=1.150$배, 경쟁적 동기가 1점 증가할수록 $e^{0.085}=1.088$배, 내재적 동기가 1점 증가할수록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28}=1.136$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의 개인적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93}=0.824$배로 나타나,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4에서 2수준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학교규모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463}=1.58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4에서는 학교가 대규모 학교인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476}=1.609$배로 나타났다.

〈표 Ⅳ-9〉 초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566***	.674	.607***	.068	.518***	.090	.514***	.089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294***	.613	.313***	.067	.280***	.068	.286***	.069
모 연령	−.004	.010	−.002	.010	−.004	.010	−.004	.010
부 연령	−.111	−.015	−.021	.016	−.021	.016	−.022	.016
모 학력수준	.002	.011	−.006	.011	−.004	.011	−.004	.011
부 학력수준	−.005	.011	−.011	.001	−.011	.011	−.010	.011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99***	.043	.198***	.044	.199***	.044
선행학습동기_위탁			.140***	.036	.151***	.036	.150***	.036
선행학습동기_경쟁			.085*	.039	.079*	.040	.079*	.040
선행학습동기_내재			.128**	.039	.130**	0041	.131**	.041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09	.052	.011	.053	.009	.053
학벌사회인식			−.048	.048	−.061	.049	−.056	.049
사교육 홍보 인식			−.193***	.037	−.203***	.038	−.200***	.038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01	.036	−.006	.037	−.007	.037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52	.038	.051	.040	.051	.040
내신준비 인식			.018	.042	.027	.044	.021	.044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463*	.205	.476*	.189
사교육 성행지역					.106	.127	.112	.128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214	.480		
학벌사회인식					.749	.467		
사교육 홍보 인식					.294	.275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70	.33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44	.286
내신준비 인식							.808	.448
무선효과								
2수준	.312***		0.304***		0.213***		0.210***	

*$p<.05$, **$p<.01$, ***$p<.001$

2) 중학생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중학교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모형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은 주요 교과인 영어, 수학의 선행학습 유·무를 나타내는 이분변인으로 각 변인별 평균은 영어 .55, 수학 .6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본으로 추출된 학생들 가운데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영어의 경우 55%, 수학 66% 정도 선행학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가정배경 변인 가운데 월평균 소득 수준은 4,218,000원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5.07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6.93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한은 9.02년, 아버지의 평균 교육 연한은 9.70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들 가운데 학습 의견존중 인식 변인이 3.73, 지적 호기심 변인이 2.29로 나타났으며 학습 스트레스 인식이 3.33, 막연한 불안감 인식 변인이 2.73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선행학습 동기 변인 가운데 외재적 동기의 평균은 3.28, 위탁적 동기의 평균은 2.98, 경쟁적 동기의 평균은 3.07, 내재적 평균의 동기는 2.86으로 나타나, 선행학습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에 대한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은 3.17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16으로 나타나 학생 개인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과 집단 평균이 모두 3.34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평균은 3.45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44로 나타나 학생 개인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 평균은 3.16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15로 나타났고,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학생 개인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은 3.56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54로 나타났다.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평균은 3.26로 나타났지만 학생 집단 평균은 3.21로 나타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들 모두 학생 개인 변인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12로 나타났으나 학부모 집단 평균은 3.14로 나타났고, 학벌사회 인식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30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 집단 평균은 3.31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 홍보 인식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63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 집단 평균은 3.85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부모 개인보다 집단 인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36인 반면 집단 평균은 3.51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수준 보다 높은 입시 수준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38인 반면, 학부모 집단 인식 평균은 3.81로 나타났다. 내신 준비에 대학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21, 학부모 집단 평균은 3.44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은 집단 수준의 평균 점수가 개인 수준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0〉 기술통계 분석 결과(중학교)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인				
영어 선행학습 유무	.00	1.00	.55	.50
수학 선행학습 유무	.00	1.00	.66	.47
가정배경 변인(1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천원)	50.00	850.00	4,218.23	2,120.00
모 연령	35.00	65.00	45.07	3.97
부 연령	35.00	65.00	46.93	4.37
모 학력수준	6.00	16.00	9.02	2.63
부 학력수준	6.00	18.00	9.70	2.74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1.00	5.00	3.73	1.11
학습스트레스 인식	1.00	5.00	3.33	1.18
지적 호기심 인식	1.00	5.00	2.29	1.17
막연한 불안감 인식	1.00	5.00	2.73	1.19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00	5.00	3.28	1.16
선행학습동기_위탁	1.00	5.00	2.98	1.22
선행학습동기_경쟁	1.00	5.00	3.07	1.22
선행학습동기_내재	1.00	5.00	2.86	1.15
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군(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17	.94
학벌사회인식(학생 개인)	1.00	5.00	3.34	.98
사교육 홍보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45	1.12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16	1.1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생 개인)	1.00	5.00	3.56	0.94
내신준비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26	1.11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군(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12	.93
학벌사회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30	.97
사교육 홍보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63	1.35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36	1.3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부모 개인)	1.00	5.00	3.38	1.47
내신준비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21	1.22
학교배경 변인(2수준)				
학교규모	.00	1.00	.13	.34
사교육 성행지역	.00	1.00	.24	.43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학생집단)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생 집단)	2.78	3.56	3.16	.16
학벌사회인식(학생 집단)	2.80	3.97	3.34	.24
사교육 홍보 인식(학생 집단)	2.96	3.98	3.44	.23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학생집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생 집단)	2.58	3.74	3.15	.2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생 집단)	3.00	3.97	3.54	.22
내신준비 인식(학생 집단)	2.84	3.69	3.21	.20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학부모 집단)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부모 집단)	2.69	5.00	3.14	.29
학벌사회인식(학부모 집단)	2.89	3.89	3.31	.23
사교육 홍보 인식(학부모 집단)	3.00	4.43	3.85	.26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학부모 집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부모 집단)	2.93	4.01	3.51	.2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부모 집단)	3.00	4.38	3.81	.25
내신준비 인식(학부모 집단)	3.00	3.83	3.44	.21

나) 다층 분석 결과

다음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중학교에서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학교 수준 분산은 영어 .074(χ^2=124.554, $P<.001$), 수학 .162(χ^2=183.67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CC 값을 살펴보면, 영어 .068, 수학 .139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분산 대비 학교 변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어는 6.8%, 수학은 13.9% 임을 의미한다.

〈표 Ⅳ-11〉 선행학습 참여에 대한 학교 간 차이(중학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초기값	.206	.673	.048	.062	4.261	10.772	.000	.000
무선효과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1수준분산 (척도인수)	1.000	1.000	61		124.554	183.671	.000	.000
2수준분산	.074	.162						
전체 변량	1.074	1.162						
집단 내 상관(ICC)	.068	.139						

(1)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 학생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1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모 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한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543}=1.721$배로 증가하고, 어머니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031}=0.969$배로 나타나, 학생의 영어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모 학력 수준, 학생의 학습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지적 호기심, 사교육 홍보 인식, 교육과정 수준 보다 높은 입시수준에 대한 학생의 인식,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의 인식 변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515}=1.673$배로 영어과 선행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1.6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037}=0.963$배로 나타나 오히려 영어과 선행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72}=1.187$배,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20}=1.24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홍보 인식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에 참여 가능성은 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3과 모형4에서 2수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중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10***	.045	.222***	.043	.211***	.053	.218***	.053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543***	.067	.515***	.071	.504***	.072	.506***	.073
모 연령	−.017	.011	−.017	.011	−.018	.011	−.017	.011
부 연령	−.010	.009	−.012	.009	−.011	.009	−.012	.009
모 학력수준	−.031*	.015	−.037*	.017	−.039*	.017	−.040*	.017
부 학력수준	.018	.016	.015	.018	.011	.018	.012	.018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49	.032	−.050	.032	−.049	.032
학습스트레스 인식			.045	.035	.045	.036	.044	.036
지적 호기심 인식			.172***	.037	.170***	.037	.168***	.038
막연한 불안감 인식			.036	.029	.036	.030	.036	.030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30	.051	.037	.052	.035	.051
학벌사회인식			.003	.049	−.009	.050	−.003	.050
사교육 홍보 인식			−.094**	.036	−.101**	.036	−.096**	.037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59	.041	.058	.041	.053	.041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01	.046	.001	.046	.001	.047
내신준비 인식			.220***	.042	.220***	.042	.217***	.042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36	.101	−.043	.088
사교육 성행지역					.056	.081	.030	.079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132	.351		
학벌사회인식					.311	.272		
사교육 홍보 인식					.332	.242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09	.255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16	.219
내신준비 인식							.297	.381
무선효과								
2수준	.055***		.044**		.039**		.039**	

*$p<.05$, **$p<.01$, ***$p<.001$

■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 모형

1수준에 학부모 사회 문화적 변인, 사회 심리적 변인 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모 학력 수준,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 경쟁적 동기 및 내재적 동기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개인적 인식 변인이 의미가 있었다.

모형2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e^{0.524}=1.688$배 증가하는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34}=0.966$배로 나타나 4% 가량 참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의 사교육 외재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71}=1.186$배, 경쟁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62}=1.175$배, 내재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에는 $e^{0.177}=1.19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에는 $e^{-0.069}=0.933$배, 즉, 영어과 선행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약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089}=1.09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3과 4에서 2수준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중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10***	.045	.220***	.047	.182**	.060	.187**	.062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543***	.067	.524***	.071	.516***	.070	.514***	.071
모 연령	-.017	.011	-.018	.011	-.018	.011	-.017	.011
부 연령	-.010	.009	-.011	.009	-.011	.009	-.011	.009
모 학력수준	-.031*	.015	-.034*	.016	-.036*	.016	-.037*	.016
부 학력수준	.018	.016	.021	.017	.018	.017	.018	.017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71***	.043	.171***	.043	.171***	.043
선행학습동기_위탁			.007	.043	.007	.043	.009	.043
선행학습동기_경쟁			.162***	.037	.161***	.036	.160***	.036
선행학습동기_내재			.177***	.038	.179***	.038	.178***	.038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30	.056	−.030	.057	−.029	.057
학벌사회인식			−.084	.057	−.087	.056	−.088	.057
사교육 홍보 인식			−.069**	.026	−.070**	.026	−.069**	.026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89**	.032	.089**	.033	.087**	.03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08	.031	.008	.031	.008	.031
내신준비 인식			.026	.033	.025	.032	.025	.032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66	.112	.055	.114
사교육 성행지역					.119	.080	.103	.082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76	.170		
학벌사회인식					−.021	.257		
사교육 홍보 인식					.075	.223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96	.327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157	.313
내신준비 인식							−.095	.442
무선효과								
2수준	.055***		.061***		.069***		.065***	

*$p<.05$, **$p<.01$, ***$p<.001$

(2)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 학생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1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모 연령, 양부모의 학력수준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확률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582}=1.789$배, 아버지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50}=1.0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 1세 증가하는 경우 $e^{-0.028}=0.972$배, 어머니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38}=0.962$배 등으로 점차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모 연령, 양부모의 학력수준, 학생의 학습의견 존중 인식, 학생의 지적 호기심,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변인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556}=1.743$배, 아버지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51}=1.052$배, 학생의 지적 호기심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265}=1.303$배,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00}=1.105$배, 명문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30}=1.138$배,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13}=1.237$배로 수학과 선행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 1세 증가하는 경우 $e^{-0.029}=0.971$배, 어머니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49}=0.952$배, 학생의 학습의견 존중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060}=0.941$배, 사교육 홍보 인식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086}=0.917$배 등으로 나타나, 관련 변인들은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2수준 변인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경쟁적 사회 문화에 대한 학생 집단의 인식,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집단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쟁적 사회 문화에 대한 학생 집단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956}=0.384$배로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을 6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집단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900}=2.459$배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 2수준의 맥락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중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698***	.055	.755***	.055	.727***	.057	.716***	.067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582***	.055	.556***	.062	.549***	.062	.546***	.063
모 연령	-.028*	.012	-.029*	.012	-.030*	.012	-.030*	.012
부 연령	.005	.009	.004	.010	.005	.010	.004	.010
모 학력수준	-.038*	.018	-.049**	.019	-.054**	.019	-.054**	.019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부 학력수준	.050**	.017	.051**	.018	.046*	.018	.047**	.018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60*	.029	−.063*	.030	−.060*	.029
학습스트레스 인식			.041	.037	.041	.037	.040	.038
지적 호기심 인식			.265***	.035	.265***	.036	.262***	.036
막연한 불안감 인식			.100**	.033	.102**	.033	.100**	.033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53	.059	−.039	.060	−.048	.059
학벌사회인식			−.046	.044	−.059	.046	−.051	.045
사교육 홍보 인식			−.086*	.037	−.098**	.037	−.088*	.037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30**	.040	.133**	.041	.128**	.041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02	.050	.002	.051	.002	.051
내신준비 인식			.213***	.044	.215***	.044	.210***	.045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79	.116	.059	.126
사교육 성행지역					.089	.078	.132	.101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956*	.391		
학벌사회인식					.403	.278		
사교육 홍보 인식					.900***	.229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71	.348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167	.291
내신준비 인식							.336	.513
무선효과								
2수준	.105***		.093***		.050**		.085***	

*$p<.05$, **$p<.01$, ***$p<.001$

■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모 연령, 양부모의 학력수준,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 경쟁적 동기 및 내재적 동기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개인적 인식 변인이 의미가 있었다.

먼저, 모형2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은 $e^{0.560}=1.75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1세 증가하는 경우 $e^{-0.029}=0.971$배, 어머니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46}=0.95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교육연한 정도가 1년 증가하는 경우 $e^{0.057}=1.058$배, 학부모의 사교육 외재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228}=1.256$배, 경쟁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75}=1.191$배, 내재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에는 $e^{0.181}=1.198$배 등으로 수학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09}=0.896$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에는 $e^{-0.072}=0.930$배로 나타나, 선행학습 참여 확률을 각각 11%, 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17}=1.1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2수준 변인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인으로는 사교육 선행지역 여부 및 학벌사회에 대한 학부모 집단의 인식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사교육 성행지역인 경우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97}=1.217$배, 학벌사회에 대한 학부모 집단의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495}=1.640$배 등으로 각각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4에서 2수준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중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698***	.055	.755***	.056	.707***	.066	.717***	.064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582***	.055	.560***	.061	.549***	.062	.548***	.062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 연령	−.028*	.012	−.029*	.012	−.030*	.012	−.030**	.012
부 연령	.005	.009	.006	.009	.006	.009	.006	.009
모 학력수준	−.038*	.018	−.046**	.017	−.049**	.017	−.050**	.017
부 학력수준	.050**	.017	.057**	.017	.052**	.018	.052**	.018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228***	.047	.229***	.048	.227***	.048
선행학습동기_위탁			.037	.044	.037	.044	.039	.045
선행학습동기_경쟁			.175***	.038	.173***	.039	.173***	.039
선행학습동기_내재			.181***	.042	.186***	.043	.184***	.043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109*	.055	−.104	.056	−.105	.057
학벌사회인식			−.095	.052	−.106*	.052	−.102	.054
사교육 홍보 인식			−.072*	.030	−.075*	.031	−.074*	.031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17**	.032	.118**	.033	.115**	.03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56*	.028	.054	.028	.054	.028
내신준비 인식			.037	.038	.035	.039	.034	.039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47	.123	−.003	.139
사교육 성행지역					.197*	.090	.171	.086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342	.189		
학벌사회인식					.495*	.237		
사교육 홍보 인식					0.162	.215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57	.34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56	.353
내신준비 인식							.433	.515
무선효과								
2수준	.105***		.0103***		.086***		.080***	

*$p<.05$, **$p<.01$, ***$p<.001$

3)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고등학교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모형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은 주요 교과인 영어, 수학의 선행학습 유·무를 나타내는 이분변인으로 각 변인별 평균은 영어 .29, 수학 .3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본으로 추출된 학생들 가운데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영어의 경우 29%, 수학은 36% 정도 된다는 의미이다.

가정배경 변인 가운데 월평균 소득 수준은 4,120,000원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6.70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9.34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한은 8.96년, 아버지의 평균 교육 연한은 9.76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들 가운데 학습 의견존중 인식 변인이 3.90, 지적 호기심 변인이 2.57로 나타났으며 학습 스트레스 인식이 3.62, 막연한 불안감 인식 변인이 2.74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선행학습 동기 변인 가운데 외재적 동기의 평균은 3.51, 위탁적 동기의 평균은 3.14, 경쟁적 동기의 평균은 3.21, 내재적 평균의 동기는 3.16으로 나타나, 선행학습 동기로는 외재적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에 대한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과 학생 집단 평균은 3.3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벌사회에 대한 학생 개인 변인의 평균은 3.50인 반면, 학생 집단은 3.51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평균은 3.57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58로 나타나 학생 집단 평균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개인 평균은 3.44로 나타난 반면 학생 집단 평균은 3.43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학생 개인 평균 및 집단 평균은 3.75로 나타났으며, 내신 준비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평균은 3.44로 나타났지만 학생 집단 평균은 3.42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과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은 3.24로 나타났으나 학부모 집단 평균은 3.23으로 나타났고, 학벌사회 인식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 및 집단 평균은 3.3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 홍보 인식에 대한 학부모 개인 평균과 집단 평균도 동일하게 3.72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

부모 개인 인식 평균과 집단 평균은 3.46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수준 보다 높은 입시 수준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65인 반면, 학부모 집단 인식 평균은 3.64로 나타났다. 내신 준비에 대학 학부모 개인 인식 평균은 3.42, 학부모 집단 평균은 3.44로 나타났다.

〈표 Ⅳ-16〉 기술통계 분석 결과(고등학교)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인				
영어 선행학습 유무	.00	1.00	.29	.45
수학 선행학습 유무	.00	1.00	.36	.48
가정배경 변인(1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천원)	50.00	850.00	4,120.59	2,086.44
모 연령	35.00	65.00	46.70	4.14
부 연령	35.00	65.00	49.34	5.02
모 학력수준	6.00	16.00	8.96	2.71
부 학력수준	6.00	16.00	9.76	2.80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1.00	5.00	3.90	1.02
학습스트레스 인식	1.00	5.00	3.62	1.09
지적 호기심 인식	1.00	5.00	2.57	1.19
막연한 불안감 인식	1.00	5.00	2.74	1.14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00	5.00	3.51	1.64
선행학습동기_위탁	1.00	5.00	3.14	1.66
선행학습동기_경쟁	1.00	5.00	3.21	1.58
선행학습동기_내재	1.00	5.00	3.16	1.65
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군(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37	.92
학벌사회인식(학생 개인)	1.00	5.00	3.50	.94
사교육 홍보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57	1.07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44	1.13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생 개인)	1.00	5.00	3.75	.88
내신준비 인식(학생 개인)	1.00	5.00	3.44	1.10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군(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24	.91
학벌사회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39	.94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교육 홍보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72	1.01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군(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46	1.07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부모 개인)	1.00	5.00	3.65	.89
내신준비 인식(학부모 개인)	1.00	5.00	3.42	1.01
학교배경 변인(2수준)				
학교규모	.00	1.00	.18	.39
사교육 성행지역	.00	1.00	.31	.47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학생집단)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생 집단)	2.87	3.80	3.37	.19
학벌사회인식(학생 집단)	2.99	3.96	3.51	.24
사교육 홍보 인식(학생 집단)	3.11	4.05	3.58	.23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학생집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생 집단)	2.81	4.20	3.43	.29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생 집단)	3.08	4.12	3.75	.22
내신준비 인식(학생집단)	3.04	3.99	3.42	.23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학부모 집단)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학부모 집단)	2.87	3.61	3.23	.18
학벌사회인식(학부모 집단)	2.92	3.89	3.39	.21
사교육 홍보 인식(학부모 집단)	3.16	4.37	3.72	.25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학부모 집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학부모 집단)	2.95	4.16	3.46	.25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학부모 집단)	2.80	4.17	3.64	.25
내신준비 인식(학부모 집단)	2.93	3.94	3.44	.21

나) 다층 분석 결과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 경험 여부에 대한 학교 수준 분산은 다음에 제시한 표와 같다. 영어 .197(χ^2=166.638, $P<.001$), 수학 .237(χ^2=203.29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CC 값을 살펴보면 영어 .164, 수학 .191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분산 대비 학교 변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어는 16.4%, 수학은 19.1%라는 의미로, 학교 수준에서도 다층모형 분석에 적합한 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선행학습 참여에 대한 학교 간 차이(고등학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초기값	-1.038	-0.645	.072	.070	-13.957	-9.144	.000	.000
무선효과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1수준분산 (척도인수)	1.000	1.000	54	54	166.638	203.294	.000	.000
2수준분산	.197	.237						
전체 변량	1.197	1.237						
집단 내 상관 (ICC)	.164	.191						

(1)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 학생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1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e^{0.199}$ =1.2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부 학력수준, 학생의 지적 호기심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170}$ =1.185배, 아버지의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하는 경우 $e^{0.030}$ =1.030배, 학생의 지적 호기심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93}$ =1.340배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에서 2수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고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923***	0063	-.963***	.061	-.998***	.072	-1.003***	.073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99**	.060	.170**	.063	.165*	.065	.166*	.064
모 연령	.006	.011	.008	.012	.008	.012	.008	.012
부 연령	.006	.009	.004	.009	.003	.010	.003	.010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 학력수준	.013	.019	.008	.019	.006	.019	.005	.019
부 학력수준	.033*	.014	.030*	.014	.025	.014	.025	.015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28	.045	−.032	.046	−.034	.046
학습스트레스 인식			.002	.043	−.003	.043	−.003	.043
지적 호기심 인식			.293***	.042	.294***	.042	.289***	.042
막연한 불안감 인식			.038	.045	.036	.045	.038	.045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04	.055	.005	.056	.001	.055
학벌사회인식			.008	.050	−.012	.050	.010	.051
사교육 홍보 인식			−.076*	.037	−.085*	.037	−.079*	.037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26	.040	−.030	.040	−.035	.041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59	.048	−.062	.048	−.056	.049
내신준비 인식			.119*	.05	.124*	.050	.118*	.050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67	.106	−.200	.111
사교육 성행지역					.158	.156	.219	.146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34	.390		
학벌사회인식					.725	.426		
사교육 홍보 인식					.420	.347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283	.296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276	.386
내신준비 인식							.595	.454
무선효과								
2수준	.158***		.129***		.079***		.112***	

*$p<.05$, **$p<.01$, ***$p<.001$

■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1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199}$ =1.220배, 아버지의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하는 경우 영어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033}$ =1.0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학부모의 선행학습 동기 가운데 외재적 동기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182}$ =1.199배, 학부모의 선행학습 외재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84}$ =1.20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3과 모형4에서는 모두 2수준 변인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고등학교 영어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923***	.063	-.949***	.062	-.969***	.067	-.951***	.075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99**	.060	.182**	.058	.177**	.060	.174**	.060
모 연령	.006	.011	.008	.012	.008	.012	.008	.012
부 연령	.006	.009	.005	.009	.004	.010	.004	.010
모 학력수준	.013	.019	.014	.019	.012	.02	.011	.020
부 학력수준	.033*	.014	.028	.015	.023	.015	.023	.015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184***	.049	.182***	.050	.182***	.050
선행학습동기_위탁			.060	.045	.062	.045	.064	.045
선행학습동기_경쟁			.031	.042	.029	.043	.027	.043
선행학습동기_내재			.066	.052	.067	.052	.068	.052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07	.061	.021	.063	.016	.063
학벌사회인식			-.071	.063	-.089	.065	-.079	.065
사교육 홍보 인식			.022	.043	.012	.044	.018	.044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64	.045	.062	.045	.057	.046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98	.057	-.104	.057	-.104	.057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내신준비 인식			.016	.053	.017	.053	.014	.053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99	.147	−.147	.131
사교육 성행지역					.086	.165	.064	.175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288	.514		
학벌사회인식					.807	.453		
사교육 홍보 인식					.422	.218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87	.528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43	.418
내신준비 인식							.680	.507
무선효과								
2수준	.158***		.143***		.116***		.122***	

*$p<.05$, **$p<.01$, ***$p<.001$

(2)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 학생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모형1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및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184}=1.202$배로, 아버지의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하는 경우 $e^{0.037}=1.037$배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1% 증가할 경우 학생의 수학과 선행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0.2%, 아버지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할 경우 3.7% 각각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2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부 학력수준, 학생의 지적 호기심, 막연한 불안감,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154}=1.166$배, 아버지의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하는 경우 $e^{0.030}=1.030$배, 학생의 지적 호기심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299}=1.348$배 각각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결정 가능성은 $e^{-0.084}=0.919$배로 나타나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을 8.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없었으나, 모형4의 2수준 변인 가운데 사교육 성행

지역 여부 변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성행지역인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83}=1.3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고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557***	.065	-.590***	.060	-.658***	.068	-.655***	.071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84**	.051	.154**	.052	.150**	.054	.152**	.054
모 연령	-.007	.010	-.004	.010	-.004	.011	-.005	.011
부 연령	.010	.009	.008	.009	.008	.009	.007	.009
모 학력수준	.002	.018	-.002	.018	-.004	.019	-.007	.019
부 학력수준	.037*	.015	.030*	.015	.025	.015	.025	.015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17	.036	.014	.037	.011	.037
학습스트레스 인식			-.014	.046	-.016	.048	-.019	.047
지적 호기심 인식			.299***	.039	.303***	.039	.298***	.039
막연한 불안감 인식			.127***	.033	.125***	.033	.128***	.033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40	.055	.052	.056	.046	.056
학벌사회인식			.003	.049	-.017	.051	.007	.050
사교육 홍보 인식			-.084*	.035	-.093**	.035	-.088*	.036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14	.045	-.017	.044	-.025	.045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06	.040	.003	.041	.009	.041
내신준비 인식			.078	.044	.082	.045	.076	.044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07	.134	-.170	.120
사교육 성행지역					.245	.149	.283*	.137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355	.430		
학벌사회인식					.894	.459		
사교육 홍보 인식					.253	.348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08	.297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386	.372
내신준비 인식							.703	.449
무선효과								
2수준	.187***		.140***		.092***		.099***	

*p <.05, **p <.01, ***p <.001

■ 학부모 맥락 변인 투입 모형

다음의 표는 앞 모델에서 학부모의 사회 문화적 변인, 사회 심리적 변인 등 맥락 변인들을 추가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모형2에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 학부모의 선행학습 동기 가운데 외재적, 경쟁적 동기 및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이 1% 증가하는 경우 $e^{0.161}$ =1.174배, 학부모의 선행학습 외재적 동기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216}$ =1.241배, 경쟁적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0.103}$ =1.108배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108}$ =1.114배로 나타나, 학생의 선행학습 참여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1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2수준 변인들 가운데 학벌사회에 대한 학부모 집단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e^{1.247}$ =3.479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집단 인식 점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e^{0.544}$ =1.7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4의 2수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고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557***	.065	−.582***	.063	−.607***	.056	−.581***	.062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84**	.051	.161**	.051	.160**	.054	.156**	.054
모 연령	−.007	.010	−.005	.011	−.006	.011	−.006	.011
부 연령	.010	.009	.010	.009	.009*	.009	.010	.009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 학력수준	.002	.018	.003	.019	.001	.019	.000	.019
부 학력수준	.037*	.015	.031	.016	.025	.016	.025	.016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216***	.046	.215***	.046	.215***	.047
선행학습동기_위탁			−.003	.045	−.002	.046	−.001	.046
선행학습동기_경쟁			.103*	.046	.106*	.046	.103*	.046
선행학습동기_내재			.075	.041	.079	.041	.077	.041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05	.048	.023	.050	.013	.050
학벌사회인식			−.095	.055	−.119*	.056	−.103	.057
사교육 홍보 인식			−.003	.040	−.017	.041	−.009	.041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08*	.054	.106	.055	.099	.055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54	.057	−.059*	.059	−.061	.060
내신준비 인식			−.008	.047	−.007	.048	−.011	.047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80	.139	−.158	.122
사교육 성행지역					.083	.153	.048	.147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747	.483		
학벌사회인식					1.247**	.453		
사교육 홍보 인식					.544*	.206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640	.469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102	.389
내신준비 인식							.674	.415
무선효과								
2수준	.187***		.157***		.084***		.088***	

*p < .05, **p < .01, ***p < .001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설문조사에서 분석해내기 어려운 심층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학생이 말하는 유발요인, 학부모가 말하는 유발요인, 교사가 말하는 유발요인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면담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김영천(2008)은 면담을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정의한다. 대화가 인간과 사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화가 전제된 면담은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8: 261-26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의 방식을 활용하되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면담 가이드에 따라 면담이 진행되며, 면담 중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유연성은 배제된다. 이러한 면담의 장점은 면담 가이드에 공통적으로 물을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면담자는 모든 피면담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면서 면담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영천, 2008: 263). 이 연구에서 이러한 면담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25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해 5명의 면담자가 면담을 실시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즉, 면담자의 개인적인 질문방식이나 진행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담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면담 가이드의 내용은 현재 선행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선행학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면담 조사 이전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던 선행학습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면담은 2015년 7월과 8월에 이루어졌고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체 분량을 녹음 및 전사하였다. 면담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장소는 학교 내 면담과 녹음에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그 외 부족한 내용이나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연구 참여자로부터 전화나 메일을 통해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았다. 연구참여자별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Ⅳ-22〉 자료 수집 방법

연번	면담				연번	면담			
	연구 참여자	날짜	장소	소요 시간		연구 참여자	날짜	장소	소요 시간
01	김민서	07.22.	방송실	23분	14	김혜린	07.29.	방송실	45분
02	이지현	07.22.	회의실	27분	15	김지은	07.29.		
03	정지순	07.22.	교실	17분	16	나지선	07.29.	방송실	70분
04	이승현	07.21.	교실	15분	17	김혁규	07.29.		
05	김미란	07.21.	교실	34분	18	박두식	07.29.	회의실	45분
06	박선영	07.21.	교실	23분	19	차주영	07.29.		
07	김정아	08.04.	위클래스	80분	20	주아름	07.29.	회의실	31분
08	조덕제	08.04.			21	박은하	07.29.	회의실	34분
09	김시윤	08.04.			22	차혜정	07.29.	회의실	28분
10	김윤정	08.04.	교사 협의실	105분	23	김인희	07.28.	교실	43분
11	이영애	08.04.			24	한유진	07.28.	교실	48분
12	김혜진	08.04.			25	이채영	07.28.	교실	47분
13	한정혜	08.04.	교실	21분					

나. 분석 결과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인 차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말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초등학생의 경우에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은 모두 '엄마의 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나중에 엄마가 좋은 직업 가지라고... 그냥 다니라니까... (김민서)

면담 대상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초등학생들은 특별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의 여러 대회들이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애들도 있어요. KMO(한국수학올림피아드) 준비한다고... (이승현)

중학생의 경우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불안감, 경쟁의식, 고등학교 과정 대비, 학벌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식이 남들이 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고 있지 않은 불안에서 비롯되는 유발요인이라면, 경쟁의식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유발요인이다.

> 아이들도 다 다니니까 나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김지은)

> 잘하고 싶은 욕심... 지금 상태보다 더 오르려면... (김혜린)

> 고등학교 갔을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김정아)

불안감이나 경쟁의식은 심리상태와 관련한 내적 요인이라면, 고등학교 과정 대비와 학벌주의는 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벌주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학의 서열화가 곧 그 사람에 대한 서열화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 평범한 회사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교, 예를 들어 “여기까진 들어가야 좀 잘 하는 학생인 것 같다.” 아니면 “잘하는 직장인인 것 같다.”는 그런 인식 그러다보니 하게 된 게 아닌가... (김시윤)

> 대입이 최종 목표인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덕제)

> 한국에서는...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김혜린)

고등학교 과정 대비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나 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응답이다. 이들은 선발 자체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선발을 통해 구성된 집단 내에서의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 외고를 가려면 영어가 1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스펙이 높아요... 다 같이 잘 하는 곳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할 게 뻔하니까 지금이라도... (김시윤)

>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를 생각하는데 학기 중에 따로 혼자서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다 보고... (김혜린)

고등학생의 경우도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경쟁의식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기되었고, 추가적으로 대입을 위한 내신 준비, 교과내용의 어려움 및 양의 과다, 특정교과 집중 편재의 문제, 분위기 동조도 나타났다. 경쟁의식의 경우, 중학생은 막연하게 남들보다 잘 해야 된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면, 고등학생은 구체적으로 내신 성적을 남들보다 더 잘 받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었다. 이는 대입에서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 배우고 있으니까 저만 안 배우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도 다 같이 하니까 저도... 그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김인희)

>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신의 대한 불안함... 내가 어떻게든 더 잘나봐야겠다. (주아름)

> 어떻게든 1, 2점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1등급, 2등급 안에 들려고... 결국 대학 때문이죠. (주아름)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 문제는 주로 자연계 학생에게서 제기되는 문제로 수학과목과 과학과목에서 나타났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수학 및 과학교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연계 학생에게 수학과 과학은 대학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선행학습을 통해서라도 해당 학기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교과 내용의 어려움은 자연계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 학기에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양을 다 하려면 학기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과목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인희)

> 바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도 어려운데. 그 내용을 그 학기에 따라가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김인희)

> 화학이 상당히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작해야 저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주아름)

> 솔직히 성적이 중요하니까. 성적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인희)

> 내신이 가장 컸죠. (주아름)

특정교과 집중 편재는 해당 학교가 과학 중점학교라는 교육청 주관의 선도학교라는 점 때문에 제기되는 요인이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색사업으로, 특정 과목 중점학교라는 특징이 해당 학생들에게는 해당 과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과학 중점학교기 때문에 과학 과목이 물리 실험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거든요. 그러니까 수학까지 하면 총 일곱 개씩 던져지니까 저희로서는 그걸 모두 학교 수업을 따라가며 소화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주아름)

특이한 점은 면담 대상자가 사교육이 팽배한 지역 학생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지역의 분위기가 선행학습 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면담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어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이는 학교 주변의 환경이 해당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진짜 분위기... 학원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학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인희)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집단 간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선행학습이 시작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 유발요인으로 '엄마'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지칭되고 있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입시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내신 경쟁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의식,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은 특목고 또는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학습 내용이 많고 어려운 과목에 대해 주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선행학습 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교과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이지만, 이것 역시 최종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함에서 비롯된다. 내신 성적은 대입 수시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면담대상자 자체의 특징으로서 교육과정 중점학교라는 학교적인 특성과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표 Ⅳ-26〉 참조).

2) 학부모가 말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학벌주의, 불안감, 입시에 대한 준비를 지목했다. 학벌주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도 보였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었다.

> 좋은 스펙을 쌓아 놓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그래도 아이가 조금 더 직업 선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회 구조... (김미란)

불안감의 경우 초등학생에게는 제기되지 않았던 유발요인이었다.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생이어도 이미 선행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로 부모 모임에서 대화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다보면 당연히 그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지현)

>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김미란)

또한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생이어도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시에 대한 준비는 가깝게는 고입, 멀게는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부담이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대입, 수능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지현)

> 입시 체제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랑 고등학교 입시도 해당되고... 궁극적으로 대학 입시죠. (김미란)

> 특목고 가기 위해서는... 아무튼 입시제도는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김미란)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 불안감, 고입에 대한 준비를 지목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선행학습 유발요인과 유사한 것이다.

>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 (김혜진)

>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선행학습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윤정)

> 우리 사회시스템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대우하기보다는 그래도 대학을 나온 화이트칼라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고... (김윤정)

> 알려진 그런 대학에 가면 출세가 보장이 되어있다고 믿잖아요. (이영애)

그 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고등학교 과정 대비, 상대평가 방식, 공교육의 불신, 학원의 생존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비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에게서도 나타났던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자녀를 특목고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 특목고에 가면 선행의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김윤정)

상대평가 방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이었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상대평가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 중학교부터 서열화 내지는 상대적 평가 기준을 놓고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 구도 하의 평가시스템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김혁규)

반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중학교 학부모들에게서 새롭게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다. 학생과 달리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고입이나 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이었다.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도 교사 자체의 무능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교사의 열정이 행정 업무와 같은 다른 데로 쏠리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학교는 더 이상 믿을 곳이 아니다. 내 아이를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학교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조금 없는 듯한... (김윤정)

> (교사들은)[6] 아이들 교육에 진짜 열정을 쏟고 몰입을 하고 싶어도 그 이외에도 어깨에 짊어져야 할 업무들이 너무 많더라... (이영애)

6) 인터뷰 내용 제시 과정에서 ( )는 전체 인터뷰 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한 맥락적 이해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연구자가 설명으로 제시한 것임.

학원의 생존 전략 역시 중학교 학부모들에게서 새롭게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전적으로 선행학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게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을 하게 된다는 논리에서 제기된 유발요인이다.

> 제가 선행학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학원가니까 선행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 자체가 자기네들의 생존 비법으로 만든 게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김혁규)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중학교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학벌주의, 경쟁의식, 공교육의 불신을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하였다. 경쟁의식은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대입의 당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발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은 중학교 학부모들이 선행학습의 유발요인으로 제기했던 상대평가 방식,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던 경쟁의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중학교 학부모들처럼 평가방식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쟁의식 때문에 선행학습이 유발된다기보다는 대입에서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 제가 선행 안하고 학원 안 다녔다가 느낀 것은 나만 손해구나. 수학이 탄탄하게 (선행이) 되어있는 아이들은 수학에 시간을 덜 쓰고 다른 과목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훨씬 수월한데... 대학 입시를 위한 선행이잖아요. (박은하)

반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중학교 학부모들과 달리 교사와 학원 강사 간의 학벌이나 학위, 열정 및 노력의 차이를 언급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런 종류의 불신이 선행학습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학원 강사들이 교사보다 더 뛰어나고 시간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대입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우위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학교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그 대비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한유진)

> 학원 선생님들의 스펙이 카이스트 박사 이러세요. 그리고 한 분야만 파다가 오셔서 오죽 잘 가르치시겠어요? 교사들은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정해진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 사실은 어찌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박은하)

중학교 학부모들과 달리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구체적으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다양한 전형의 입시제도가 선행학습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입시제도의 일관성 결여는 차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정보에 빠른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전형의 입시제도는 하나만 하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하였으나 오히려 모든 전형을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 입시나 이런 쪽에... 이걸 이렇게 바꾼다 하면 그걸 위한 또 뭔가가 나와서 이걸 또 시켜야 되고... (한유진)

>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학교활동 같은 것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슈퍼맨들이 아닌데... 사교육의 힘이라든가 이런 식의 선행을 해줘서 수월하게 해주는... (한유진)

> 대학 입시를 선택할 때 수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진다 하면 나중에 어쨌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행을) 시작을 했다고 봐요. 입시의 노예가 되어서... (한유진)

> 문과면 뭐가 필요 없고 이과는 뭐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좀 더 잘하려면 그거까지도 해야 하고 그런 거 있죠? (박은하)

또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평가를 위한 평가의 역할을 하여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서열화할 수밖에 없는 '등급제' 평가 방식의 문제이자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입 전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의 교과·비교과 전형 모두 등급제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시험 문제가 선행을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심화된 내용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배워서 그때 시험을 보면 절대로 1등급을 못 받아요. (박은하)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원의 홍보 전략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중학교 학부모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던 요인으로, 학원에서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학원(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대학 입시가 자꾸 바뀌는데 “이제 생기부가 중요하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엄마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이런 문자들이 오구요... 그런 걸 보다보면 엄마들이 이제 또 혹하지 않겠어요? (박은하)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학벌주의, 입시 준비 등이다.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 모두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입시에 대한 준비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막연한 입시 준비를 의미하였다면, 중학교 학부모는 구체적으로 가깝게는 고입, 멀게는 대입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불안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에게서만 제기되었다. 초·중학교의 경우 막연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선행학습을 실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내신, 수능을 위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함보다는 경쟁의식이 오히려 더 비중 있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모두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고입에 맞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었던 반면, 고등학교는 공교육 교사와 학원 강사의 스펙과 노력의 차이라는 교사의 질적인 부분을 문제로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 외 중학교 학부모들은 상대평가의 문제, 학원의 생존 전략을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제시한 반면,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평가를 위한 평가의 문제, 학원의 홍보 전략을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제기하였다. 평가를 위한 평가의 문제는 경쟁적인 대입선발의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유발요인이라 할 수 있다(〈표 Ⅳ-26〉 참조).

3) 교사가 말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초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크게 불안감, 중학교 입학 대비,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학부모에게서만 제기되었던 불안감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둘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행학습을 선택하는 주체가 학부모죠. 아이들이 원하지는 않죠. 개인적인 불안... 불안하고 뒤쳐질까봐. (정지순)

옆에 아이들은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하고 있으면... (박선영)

한편, 이런 심리적인 요인 외에 중학교 입학에 대한 대비가 처음 초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최종 목표인 대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 수준 차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제일 큰 핵심은 대입. 국제중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죠. (박선영)

영어는 보통 6학년 수준이랑 중학교 수준이랑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박선영)

중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학벌주의, 불안감, 경쟁의식, 고입에 대한 대비, 공교육의 불신, 학원의 홍보 전략이었다. 학벌주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초·중·고 학부모 모두에게서 제기되었던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교사 역시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학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게끔 만들고 싶고... 좋은 대학, 명문대 보내고 싶고... (한정혜)

중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불안감과 경쟁의식은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부모의 불안과 경쟁의식은 학생들을 학원으로 가게 하여 선행학습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

학부모의 불안 심리... 영어, 수학 떨어져서는 대학 갈 수 없고 쳐지기 시작한다.. 이런 불안 심리기 작용하니까... (박두식)

누구는 어디까지 선행을 했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하면서... “앞서 해라, 아니면 뒤떨어진다, 네가 여기서 안주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차주영)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부모의 강요, 남들이 다 학원을 다니니까 부화뇌동해서 같이 다니는... (박두식)

고입에 대한 대비는 고등학교 전형의 다양화 속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다.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과 초·중학교 학부모에게서 나타났던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교사 역시 고입에 대한 대비가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 고등학교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특목고를.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외고,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기타 특목고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특목고를 보내려고 선행학습에 몰두하는 경우도 심해지는 거죠. (박두식)

> 선행학습 정도까지를 하는 아이들은 주로 외고와 같은 좋은 특목고를 가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한정혜)

공교육의 불신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제기되었던 선행학습 유발요인인데 교사가 생각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고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했던 교사의 질에 대한 불신보다는 중학교 학부모가 제기했던 공교육 불신에 더 가까웠다. 즉, 특목고 입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도움을 완벽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이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명문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으로 인해 특목고를 선호한다는 측면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다.

>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을 할 수 없고, 그분들은 기대치가, 진로도 특수목적고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경우고 있고... (차주영)

> 학교를 못 믿는 것. 공교육만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없다. 선생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교사를 못 믿고 학교에서 하는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 (한정혜)

>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되면 훨씬 더 선행학습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몫을 한다... (박두식)

그 외 학원의 홍보 전략은 고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했던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중학교 교사 역시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체이자 요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교사는 학원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원이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학원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상태로 힘들다, 위험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불안 의식을 조장해서 이 아이가 이 학교 가려면 다음 단계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 (한정혜)

고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크게 불안감, 경쟁의식,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공교육 불신, 학원의 홍보 전략, 경쟁문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과 경쟁의식은 지속적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제기되었는데 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이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아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관련하여 수능 일정과 학교 진도의 차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거의 학원을 다니는 상황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 안 하면 불안하고 부모님들도 안 시키면 불안하고... 내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불안해해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이채영)

>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를 나보다 잘해.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만큼 하기 위해서는 다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채영)

> 3학년은 진도를 나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담인거죠. 아이들한테도... 11월에 수능을 보기 위해서 빨리 내용을 끝내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용을 빨리 끝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채영)

>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안감...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전교권에서 1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 사실 자체가 계속 불안감을 주는... (차혜정)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는 고등학생에게서도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대부분 수학 과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서 기인하였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 역시 수학 과목은 난이도와 학습 양에 있어 모두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요인도 궁극적으로는 대입을 위해 내신을 잘 받아야 하고 수능에서도 수학 과목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결국 대입에서 오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다.

> 수학은 양이 너무 많고 문제가 어렵고 정말 심화된 문제가 많아서 학교 안에서 등급을 받고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선행학습을 안 하면 수학은 실패하고 수학에 실패하면 대학에 못가고 이게 지금 정설이에요. 수학은 난이도와 방대함, 폭. 이 모든 것 때문에... (차혜정)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도 제기하였던 유발 요인으로, 교사들 역시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선행학습 유발의 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렇듯 입시제도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입시지도를 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원의 상술에 쉽게 넘어가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입시 정책이 계속 되어 있었으면...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바뀌고 막 그러니까... 단시간에 빨리 무언가를 하려면 학원에서 그걸 제일 빨리 잡아주지 않을까, 정보도 제일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채영)

> 학원에서 자꾸 하라고 한 대요... 학원을 갔다 와서 이 아이를 논술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는 논술로 대학을 많이 보냈다면서... (이채영)

공교육의 불신은 학생들이 내신과 관련해서는 학교수업을 듣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학원을 찾는 데서 야기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다. 이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인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어려운 만큼 학교는 수능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야 하고 수능에 필요한 적절한 대비를 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이다. 반면, 학원은 선행학습금지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학생들의 요구나 불안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찾고 수능 준비를 하도록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었다.

> 학교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와 다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학원에서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죠... 2학년이 끝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끝나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정말 많아요. 그러고 나면 3학년은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작년부터 선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채영)

> 방학 때 선행학습 못하게 하다보니까 방학 때 보충이 다 복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에 가서 선행을 하고 있고... (이채영)

마지막으로, 경쟁문화는 고등학교 교사에게서 처음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단순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경쟁의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경쟁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남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빨리 해야지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문화... 선점하지 않으면 다 '루저'가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선행(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문화가 아닌가... (차혜정)

교사들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중·고 교사 모두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입시에 대한 준비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불안감, 중·고등학교 교사는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제기하였는데, 초등학교에서 경쟁의식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직접적으로 입시나 내신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입시에 대한 준비는,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선행학습이 유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학습이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입시로 인해 유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측면에서의 유발 요인은 공교육 불신이다. 공교육 불신은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학교가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신으로 봐야 한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학부모들이 그러한 이유에서 학원을 찾아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은 선행학습금지법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학원의 홍보 전략은 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교사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다.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원을 믿고 의지하는 측면이 강하여 이를 악용한 학원의 상술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외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 일관성 없는 입시 제도를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도 제기되었던 유발 요인이다. 즉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 수학교과의 난이도와 학습 양의 문제, 일관성 없는 입시 제도를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경쟁문화가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순히 입시에 따른 경쟁의식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고등학교 교사는 살아남기 위해 선점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경쟁적 문화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선행학습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표 Ⅳ-26〉 참조).

3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및 시사점

먼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학교급별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3〉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변인			영어		수학	
			모형3	모형4	모형3	모형4
학생	가정 배경 변인	소득 수준	+	+	+	+
		모 연령				
		부 연령				
		모 학력 수준				
		부 학력 수준				
	사회·심리적 변인	학습 의견존중 인식				
		학습스트레스 인식				
		지적 호기심 인식	+	+	+	+
		막연한 불안감 인식	+	+	+	+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	+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	+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교배경 변인	학교 규모	+	+	+	+
		사교육 성행 지역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부모	가정 배경 변인	소득 수준	+	+	+	+
		모 연령				
		부 연령				
		모 학력 수준	−	−		
		부 학력 수준				
	사회·심리적 변인	선행학습동기_외재	+	+	+	+

변인			영어		수학	
			모형3	모형4	모형3	모형4
		선행학습동기_위탁	+	+	+	+
		선행학습동기_경쟁			+	+
		선행학습동기_내재	+	+	+	+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인식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	–	–	–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교배경 변인	학교 규모	+	+	+	+
		사교육 성행 지역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표 Ⅳ-24〉 중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변인			영어		수학	
			모형3	모형4	모형3	모형4
학생	가정 배경 변인	소득 수준	+	+	+	+
		모 연령			–	–
		부 연령				
		모 학력 수준	–	–	–	–
		부 학력 수			+	+
	사회·심리적 변인	학습 의견존중 인식			–	–
		학습스트레스 인식				
		지적 호기심 인식	+	+	+	+
		막연한 불안감 인식			+	+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	–	–	–
	학생의 정책·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	+

변인			영어		수학	
			모형3	모형4	모형3	모형4
	제도적 맥락 변인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	+	+	+
	학교배경 변인	학교 규모				
		사교육 성행 지역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부모	가정 배경 변인	소득 수준	+	+	+	+
		모 연령			−	−
		부 연령				
		모 학력 수준	−	−	−	−
		부 학력 수준			+	+
	사회·심리적 변인	선행학습동기_외재	+	+	+	+
		선행학습동기_위탁				
		선행학습동기_경쟁	+	+	+	+
		선행학습동기_내재	+	+	+	+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인식				
		학벌 사회 인식			−	
		사교육 홍보 인식	−	−	−	−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	+	+	+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교배경 변인	학교 규모				
		사교육 성행 지역			+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 사회 인식			+	
		사교육 홍보 인식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표 Ⅳ-25〉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변인			영어		수학	
			모형3	모형4	모형3	모형4
학생	가정 배경 변인	소득 수준	+	+	+	+
		모 연령			−	−
		부 연령				
		모 학력 수준	−	−	−	−
		부 학력 수준			+	+
	사회·심리적 변인	학습 의견존중 인식			−	−
		학습스트레스 인식				
		지적 호기심 인식	+	+	+	+
		막연한 불안감 인식			+	+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	−	−	−
	학생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	+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	+	+	+
	학교배경 변인	학교 규모				
		사교육 성행 지역				
	학교 외부의 사회 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	
		학벌 사회 인식				
		사교육 홍보 인식			+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부모	가정 배경 변인	소득 수준	+	+	+	+
		모 연령			−	−
		부 연령				
		모 학력 수준	−	−	−	−
		부 학력 수준			+	+
	사회·심리적 변인	선행학습동기_외재	+	+	+	+
		선행학습동기_위탁				
		선행학습동기_경쟁	+	+	+	+
		선행학습동기_내재	+	+	+	+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인식				
		학벌 사회 인식			−	
		사교육 홍보 인식	−	−	−	−

변인			영어		수학	
			모형3	모형4	모형3	모형4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	+	+	+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학교배경 변인	학교 규모				
		사교육 성행 지역			+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학벌 사회 인식			+	
		사교육 홍보 인식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 수준				
		내신 준비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①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가정배경 변인의 특징

가정배경 변인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은 모든 모형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민 외(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월 평균 가구소득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에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서 어머니들의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결과는 젊은 층의 어머니들이 선행학습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의 교육 정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교육정도는 자녀의 교육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연구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영진 외(2015)의 연구 결과인 아버지의 교육연한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 결정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Bray & Kwok(2003)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학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고, 교육성취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모든 모형에서 부적인 효과를 보았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의 특징

다음으로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인 '학습 의견 존중 인식', '학습 스트레스 인식', '지적 호기심 인식',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부모님은 공부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문항은 '학습 의견 존중' 정도를 묻는 것으로 중학교 수학과에서만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즉, 부모가 공부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과 선행학습 참여 가능성 간에는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업에 관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적 호기심 인식'은 '학업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다'로 정의하였는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인식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모형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보다 심화된 내용에 흥미를 갖고 학습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의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 모형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과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막연한 불안감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 불안하다'로 정의하였던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과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학의 경우 다른 교과와 달리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에서 수학 교과가 차지하는 위상이 다른 교과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③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의 특징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은 선행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동기를 묻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먼저, 선행학습의 외재적 동기는 초등학교 영어,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와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가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선행학습의 위탁적 동기는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위탁적 동기는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학업성적 상승 외에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대리기관으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학습의 경쟁적 동기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중학교의 모든 모형과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특이한 점은 모든 학교급의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들 가운데 막연한 불안감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 역시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에서 다른 교과보다 수학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생의 사회·문화적 변인의 특징

학생의 사회·문화적 변인 가운데 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식은 초등학교 영어 교과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학생들 개인이 우리 사회가 경쟁적 풍토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보다 영어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영어 과목에 대해 학생들 간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사교육 홍보 인식은 학생이 학원과 인터넷 강의의 광고에 개인적인 인식 정도와 관련이 있는 문항이다.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의 개인 인식은 중학교 전 교과, 고등학교 수학과에서 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2수준 집단인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사교육홍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집단 인식에서 사교육 홍보가 강하게 인식 될수록 선행학습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⑤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생의 정책·제도적 변인의 특징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 가운데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개인이 명문상급 학교 진학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과 선행학습 결정에 명문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김성천·신철균(2011), 김정민 외(2013), 이광현(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⑥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변인의 특징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가운데 학벌사회 인식은 중학교 수학의 모형3, 고등학교 수학의 모형3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학습 참여에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2수준 집단인식은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가 학벌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수록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해석하기보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들이 학벌사회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의 집단인식에서 학벌사회 인식이 강할수록 선행학습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변인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 홍보 인식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과 인터넷 강의의 광고는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한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되었으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 개인 인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수학에

서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변인 간 영향의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녀들을 선행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는 학부모들이 사교육 홍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도 추후 변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⑦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교 배경 변인의 맥락효과

학교 배경 변인 가운데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학교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학생 수가 필연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규모 초등학교들은 중·소 도시 이상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선행학습에 대한 정보 유통이나 경쟁의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이들 도시에서는 선행학습을 받을 유인가가 농·산·어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학교 배경 변인 가운데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는 학부모 표본의 중학교 수학 모형3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사교육 성행지역인 경우 중학교 수학의 경우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⑧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학교 외부 변인의 맥락효과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 가운데 사교육 홍보에 대한 효과는 중학교 수학 모형3에서 맥락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인식에서는 대부분 부적인 효과를 보여준 반면, 중학교 수학 모형3에서는 맥락효과를 보였다.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생 개인 변인에 대한 고정효과와 달리 중학교 수학에 대하여 2수준의 사교육홍보 변인에 대한 맥락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교육 홍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수록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7]. 한편, 학부모 표본에서는 학벌사회에 대한 인식 변인이 중학교 수학 모형3과 고등학교 수학 모형3에서 맥락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학벌사회 인식 변인에 대한 맥락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벌사회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수록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사교육 홍보 인식에 대한 변인은 고등학교 수학 모형3에서 맥락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 집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홍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차이가 존재할수록 선행학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7) 이하, 2수준 변인들 가운데 부적인 효과로 제시된 부분은 통계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수준 변인들 가운데 정적인 효과로 제시된 부분에 주목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면담조사 분석 결과를 학생, 학부모, 교사 차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원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Ⅳ-26〉과 같다.

〈표 Ⅳ-26〉 면담조사 결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구분	선행학습 유발요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엄마의 강요	학벌주의 불안감 경쟁의식 고등학교 과정 대비	불안감 경쟁의식 내신 준비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양의 과다 특정교과 집중 편재 분위기의 동조
학부모	학벌주의 불안감 입시에 대한 준비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 불안감 고입에 대한 준비 고등학교 과정 대비 상대평가 방식 공교육의 불신 학원의 생존 전략	학벌주의 경쟁의식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다양한 전형의 입시제도 평가를 위한 평가 공교육의 불신 학원의 홍보 전략
교사	불안감 중학교 입시 대비 중학교 과정 대비	학벌주의 불안감 경쟁의식 고등학교 입시 대비 공교육의 불신 학원의 홍보 전략	불안감 경쟁의식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공교육의 불신 학원의 홍보 전략 경쟁문화

면담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요인은 학벌주의와 불안감, 입시에 대한 준비이다.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 받는 취업, 보수, 대우에서 기인되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소위 명문대라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경쟁적으로 선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빠르게는 중·고등학교 입시에서부터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또한 경쟁 속에 자연스럽게 유발되어 특별한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남들이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따라서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경쟁적인 입시제도의 선발과 평가방식은 경쟁의식과 상급 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로 이

어져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었다. 특히 고입과 관련한 영어 등급제 평가 방식, 대입과 관련한 내신 등급제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중학교에서는 입시에 최적화되지 않은 공교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원 강사의 스펙과 열정을 비교하여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이 유발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의식은 이러한 입시제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유발되기도 하지만 학원을 통해 조장되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즉 학원이 생존하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함으로써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일하게 초등학교에서만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엄마의 강요이다.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필요나 구체적인 경쟁, 불안감으로 선행학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불안감으로 인해 학원에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이 초등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행학습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입시와 관련 있는 학교급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 선행학습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등의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이들은 입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교 진학 이후의 학습을 위해서도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도 입시와 관련하여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다양한 전형의 입시 제도가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제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의 문제와 대학 서열화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다.

고등학교에서만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인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 문제는 수학 교과에서 제기되거나, 혹은 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특정교과(과학)의 교육과정이 증가하여 제기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학 교과의 난이도와 그 학습 양의 적정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반고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중점학교 사업 역시 교육과정의 과다 문제를 확인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KEDI

PART V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3.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종합 및 시사점

V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에게 질문하였으며, 면담조사에서는 학부모 및 교사에게 질문을 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면담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해소 방안에 대한 선호도

선행학습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평균 4.49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평균은 3.66으로 응답 반응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의 선호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 개선	9,743	4.32	.89
과도한 경쟁의식 개선	9,769	4.25	.88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	9,778	4.33	.81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9,796	4.49	.74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9,781	4.46	.75
대입 내신점수 반영 시 절대평가 활용	8,803	3.72	1.00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9,240	4.04	.92
사교육 성행지역 관리·감독	9,346	3.96	1.01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절대평가 과목 확대	8,744	3.66	1.04
개인의 심화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지원체제 구축	9,401	4.12	.93
선행학습 무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9,159	3.69	1.07

나. 해소 방안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선행학습 해소 방안 가운데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4.31, 어머니는 4.2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31, 대규모가 4.36으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30점, 사교육 성행지역이 4.35점으로 사교육 성행지역 학부모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1$).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40, 중학교가 4.31, 고등학교 4.2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학벌 중심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2〉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 개선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2,082	4.31	.915	1.18	
	모	4,144	4.29	.889		
학교 규모	중소규모	8,021	4.31	.904	−2.420*	
	대규모	1,722	4.36	.822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903	4.30	.912	−2.620**	
	사교육 성행지역	2,840	4.35	.832		
학교급별	초등학교(a)	3,344	4.40	.866	30.318***	a>b>c
	중학교(b)	3,296	4.31	.915		
	고등학교(c)	3,103	4.23	.880		

*$p < .05$, **$p < .01$, ***$p < .001$

한편, 선행학습 해소 방안 가운데 '과도한 경쟁의식 개선'에 대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4.22, 어머니는 4.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24, 대규모가 4.32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24, 사교육 성행지역이 4.28로 사교육 성행지역 학부모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34, 중학교가 4.24, 고등학교 4.18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경쟁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3〉 과도한 경쟁의식 개선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2,082	4.22	.924	-.613	
	모	4,157	4.23	.887		
학교 규모	중소규모	8,039	4.24	.896	-3.720***	
	대규모	1,730	4.32	.840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920	4.24	.898	-2.241*	
	사교육 성행지역	2,849	4.28	.858		
학교급별	초등학교	3,357	4.34	.878	27.533***	a〉b〉c
	중학교	3,305	4.24	.903		
	고등학교	3,107	4.18	.871		

*p <.05, **p <.01, ***p <.001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은 4.32로 같게 나타났다. 학교 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32, 대규모가 4.37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32, 사교육 성행지역이 4.3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37, 중학교가 4.32, 고등학교 4.30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학생의 의사존중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1$).

〈표 Ⅴ-4〉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2,079	4.32	.829	.306	
	모	4,170	4.32	.807		
학교 규모	중소규모	8,045	4.32	.826	-2.355*	
	대규모	1,733	4.37	.767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932	4.32	.825	-1.012	
	사교육 성행지역	2,846	4.34	.794		
학교급별	초등학교	3,357	4.37	.815	6.002**	a〉b〉c
	중학교	3,306	4.32	.822		
	고등학교	3,115	4.30	.810		

*p <.05, **p <.01, ***p <.001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4.47, 어머니는 4.4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48, 대규모가 4.55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48, 사교육 성행지역이 4.52로 사교육 성행지역 학부모들이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62, 중학교가 4.49, 고등학교 4.36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5〉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2,091	4.47	.766	.818	
	모	4,171	4.45	.763		
학교 규모	중소규모	8,064	4.48	.763	−4.177***	
	대규모	1,732	4.55	.676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943	4.48	.762	−2.428*	
	사교육 성행지역	2,853	4.52	.714		
학교급별	초등학교	3,371	4.62	.688	94.960***	a〉b〉c
	중학교	3,309	4.49	.751		
	고등학교	3,116	4.36	.786		

*$p < .05$, **$p < .01$, ***$p < .001$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4.44, 어머니는 4.43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45, 대규모가 4.51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45, 사교육 성행지역이 4.48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55, 중학교가 4.45, 고등학교 4.38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학업 스트레스 해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6〉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부	2,088	4.44	.762	.760	
	모	4,165	4.43	.769		
학교 규모	중소규모	8,053	4.45	.767	−2.994**	
	대규모	1,728	4.51	.698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930	4.45	.763	−1.856	
	사교육 성행지역	2,851	4.48	.738		
학교급별	초등학교	3,367	4.55	.716	42.499***	a〉b〉c
	중학교	3,309	4.45	.769		
	고등학교	3,105	4.38	.773		

*p <.05, **p <.01, ***p <.001

'대입 내신점수 반영 시 절대평가 활용'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3.69 어머니는 3.6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3.70, 대규모가 3.81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3.71, 사교육 성행지역이 3.74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3.77, 중학교가 3.76, 고등학교 3.61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대입 내신점수 반영 시 절대평가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7〉 대입 내신점수 반영 시 절대평가 활용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1,895	3.69	1.004	.494	
	모	3,682	3.67	1.011		
학교 규모	중소규모	7,243	3.70	1.003	−3.847***	
	대규모	1,560	3.81	1.016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235	3.71	.999	−1.352	
	사교육 성행지역	2,568	3.74	1.022		
학교급별	초등학교	3,027	3.77	1.019	23.351***	a〉b〉c
	중학교	3,017	3.76	.993		
	고등학교	2,759	3.61	.997		

*p <.05, **p <.01, ***p <.001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3.95, 어머니는 4.0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00, 대규모가 4.19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00, 사교육 성행지역이 4.12로 나타났다($p < .001$).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13, 중학교가 4.05, 고등학교 3.91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8〉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1,964	3.95	.955	−1.954	
	모	3,914	4.00	.929		
학교 규모	중소규모	7,577	4.00	.936	−7.754***	
	대규모	1,663	4.19	.873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520	4.00	.942	−5.979***	
	사교육 성행지역	2,720	4.12	.888		
학교급별	초등학교	3,201	4.13	.919	45.400***	a〉b〉c
	중학교	3,131	4.05	.933		
	고등학교	2,908	3.91	.918		

*$p < .05$, **$p < .01$, ***$p < .001$

‘사교육 성행지역 관리·감독’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3.91, 어머니는 3.9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3.95, 대규모가 4.01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3.95, 사교육 성행지역이 3.9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07, 중학교가 3.98, 고등학교 3.81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사교육 성행지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9〉 사교육 성행지역 관리·감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1,995	3.91	1.040	-.307	
	모	3,955	3.92	1.004		
학교 규모	중소규모	7,675	3.95	1.016	-2.388*	
	대규모	1,671	4.01	.985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604	3.95	1.014	-1.267	
	사교육 성행지역	2,742	3.98	1.003		
학교급별	초등학교	3,228	4.07	1.007	53.330***	a〉b〉c
	중학교	3,183	3.98	1.013		
	고등학교	2,935	3.81	.996		

*p <.05, **p <.01, ***p <.001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절대평가 과목 확대'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3.58, 어머니는 3.64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3.64, 대규모가 3.73으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3.64, 사교육 성행지역이 3.69로 사교육 성행지역 학부모들이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3.73, 중학교가 3.67, 고등학교 3.56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10〉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절대평가 과목 확대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1,902	3.58	1.062	-1.994*	
	모	3,668	3.64	1.027		
학교 규모	중소규모	7,171	3.64	1.041	-2.962*	
	대규모	1,573	3.73	1.054		
사교육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176	3.64	1.042	-2.140*	
	사교육 성행지역	2,568	3.69	1.048		
학교급별	초등학교	2,982	3.73	1.053	19.924***	a〉b〉c
	중학교	2,985	3.67	1.051		
	고등학교	2,777	3.56	1.020		

*p <.05, **p <.01, ***p <.001

‘개인의 심화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은 4.04, 어머니는 4.0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4.08, 대규모가 4.29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4.08, 사교육 성행지역이 4.21로 사교육 성행지역 학부모들이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4.25, 중학교가 4.15, 고등학교 3.95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공교육 지원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11〉 개인의 심화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지원체제 구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1,998	4.04	.974	−1.628	
	모	3,991	4.08	.930		
학교 규모	중소규모	7,711	4.08	.952	−8.841***	
	대규모	1,690	4.29	.843		
사교육 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634	4.08	.954	−6.402***	
	사교육 성행지역	2,767	4.21	.885		
학교급별	초등학교	3,252	4.25	.921	85.308***	a〉b〉c
	중학교	3,176	4.15	.934		
	고등학교	2,973	3.95	.930		

*$p < .05$, **$p < .01$, ***$p < .001$

‘선행학습 무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하여 학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평균과 어머니의 평균 모두 3.66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평균이 3.68, 대규모가 3.76으로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부모들이 중·소규모 학교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사교육 성행지역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 사교육 성행지역이 3.68, 사교육 성행지역이 3.71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학교급별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3.74, 중학교가 3.73, 고등학교 3.59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선행학습 무효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01$).

〈표 Ⅴ-12〉 선행학습 무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학부모 성별	부	1,935	3.66	1.093	-.119	
	모	3,884	3.66	1.063		
학교 규모	중소규모	7,530	3.68	1.074	-2.696*	
	대규모	1,629	3.76	1.077		
사교육선행지역유무	비 사교육 성행지역	6,487	3.68	1.075	-1.177	
	사교육 성행지역	2,672	3.71	1.075		
학교급별	초등학교	3,163	3.74	1.101	18.434***	a〉b〉c
	중학교	3,109	3.73	1.079		
	고등학교	2,887	3.59	1.035		

*$p<.05$, **$p<.01$, ***$p<.001$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학생, 학부모, 교사 차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이 제안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초등학생들의 경우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나 목적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고 부모님의 강요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핵심 주체로 엄마를 손꼽았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방법 역시 '엄마'에게서 찾고 있었다. 즉,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은 학부모 인식의 변화와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금지 조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나 교사, 정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 선생님이 엄마한테... 학교에서 안 하게 부모님들 설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법 세워주는 거. (김민서)

반면에 중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선택하는 이유가 불안과 경쟁의식, 고입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대비, 학벌주의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해결 방안 역시 이와 관련하여 불안감 해소, 대학 서열화 완화, 사회인식의 변화, 교사의 충실한 수업, 진로교육의 강화, 기업 선발 방식의 개선 등을 제시

하였다.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고 취업 과정에서 학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대입을 위한 경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불안감이 사라지고 대학의 서열화가 완화되고 사회인식이 달라진다면 선행학습이 해소될 것으로 중학생들은 생각하였다.

> 다 같이 '선행학습 안 할거다.'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혜린)

> 좋은 대학교, 서열 이런 것들 없어져야... (김지은)

> 취업할 때나 일단 중요한 게 그거(대학)니까. 그거 할 때 학교를 좀 더 덜 봐야겠죠. (김혜린)

> 교육의 중요성이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행학습이 없어지려면. (김혜린)

특히, 학교교육에 바라는 점으로 선행학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사의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지나치게 공부에만 한정하여 미래를 생각하는 현 상황에서 선행학습의 과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 선행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방법 또는 방안을 내놓아야... (김시윤)

>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학교에서 능력을 이끌어줘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와주어야... (조덕제)

> 자기계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찾든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그쪽에 조금 더 적합한 교육체계가... (김시윤)

고등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불안감 해소, 입시 경쟁 해소,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금지 조치, 절대평가 도입, 교과내용의 적정화, 보조 자료 강화를 제안하였다. 불안감 해소라는 해결 방안은 고등학생들 역시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의 효과와 필요에 의해 선행학습을 받기보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행학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모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 같이 안 하면 안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하는데 제가 안하면 그만큼 뒤처지니까... (김인희)

진짜 법으로 완전 강력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뭔가 강력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김인희)

입시 경쟁의 해소와 절대평가 도입은 경쟁의식으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입시 제도라는 더 큰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쟁적 선발에 의한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끊임없이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선행학습이 유발되는 것이다.

학생들 간의 경쟁 같은 거 좀 줄이고. 성적만을 너무... (김인희)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선행이 완화될 거라 생각해요. 상대평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주아름)

중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다양화 속에 공부에만 몰입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미 인문계로 진학하여 실제 대입을 위한 경쟁 속에 노출되어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내용 양의 적정화, 보조 자료의 강화와 같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내용 자체를 줄이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긴 한데. 수학이 정말 많아요. (학습) 양을 줄이다 보면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낄 것 같고... (김인희)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방과후(수업)나 EBS같은 인강(인터넷강의)을 좀 더 강화하면... (주아름)

그러나 이러한 교과내용 양의 적정화나 보조 자료의 강화는 선행학습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기보다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하다. 이는 학생들이 선행학습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여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이 과열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가체제의 변화라는 해결방안 속에서도 나타난다.

저는 절대평가요.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선행이 완화될 거라 생각해요. (주아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해소 방안은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만 강요하지 않으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결국 부모님도 대입을 위한 경쟁 속에 선행학습을 강요 혹은 권유한다는,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 속에 불안감 해소, 대학 서열화 완화, 사회인식의 변화, 입시경쟁의 완화, 절대평가의 도입을 그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불안감의 해소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만약 남들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굳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반영이다. 즉,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하는 방어적 행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선행학습의 필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중학생은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교과 내용 양의 적정화, 보조 자료의 강화,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선행학습의 금지보다는 과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학부모가 제안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입시에 대한 준비, 학벌주의를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 역시 사회구조의 변화, 상대평가 폐지,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서 찾는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자기주도학습력의 향상을 제안한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중·고등학생들도 제안하였던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도 이를 중요한 해소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이나 공부에 실패해도 다른 길을 통해 충분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경쟁 우위를 위해 선행까지 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대입에 실패하거나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자들도 쉽게 일어설 수 있는,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미란)

또한, 대입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 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유발하는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제를 폐지하고 학교 시험이 쉬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학부모도 있다.

나아가 수능 역시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도록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도 있었다.

> 일단 학교에서 그 문제를 정말 수업만 들으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낸다면 내신(을 위해) 그렇게 선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렵게 내는 이유가 등급을 매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입시험도 그렇게 (학교 수업만 들으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나온다면... (김미란)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서는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학부모가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제기된 엄마의 강요가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국 자녀들의 학업 능력이 미덥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지현)

중학교 학부모는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간 중심의 교육 강조,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체 구성, 다양한 평가 방식 마련,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대학 차원에서는 입시제도(선발기준)의 단순화, 졸업정원제 실시, 학교 차원에서는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교사의 충실한 수업, 수업내용과 평가내용의 일치를 제안하였다.

중학교 학부모들은 정부에 제안하고자 하는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현재 교육정책들의 경쟁적 측면에 대한 반성과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실제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못할 뿐더러 요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 사람을 만드는 교육, 지식이 먼저, 순서를 정해서 아이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위기관에서 그런 교육제도 자체를... (나지선)

> 교육정책도 학부형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할 수는 없을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이영애)

다양한 평가 방식의 마련은 지금의 내신 등급제가 학생들을 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그것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에서 제안된 해결 방안이다.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평

가가 평상시에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되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험에 있어 경쟁을 줄이고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 순수하게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보고 실력, 인성 이런 걸 온전히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성실성 같은 거나 그런 걸 봐주실 수 있고. 몰아서 하는 일시적인 시험 그런 것보다도... (김혜진)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마지막으로 제안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이다. 이는 지나치게 공부로만 성공하려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의 해소를 통해 선행학습의 유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 그런 학교(특성화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요. 분산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대학 안 가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이영애)

대학에서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선발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 혹은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되 졸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졸업정원제의 도입이었다. 입시제도의 개선이나 선발기준의 단순화는 대입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것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된 해결 방안이다. 졸업정원제는 대입을 향한 지나친 경쟁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어 입학보다는 졸업에 제한을 둠으로써 입시 경쟁을 막아보겠다는 관점에서 제안된 해결 방안이다.

> 대학에서 뽑는 어떤 기준이 바뀌어야죠. 입시제도 같은 거... (김혜진)

> 전형 자체도 거의 3,000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정)

> 입학사정관 그런 전형을... 그게 오히려 더 부담으로. 실은 엄마들을 학부모들을 훨씬 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애)

> 졸업정원제... 일단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점 안 되면 졸업 안 시키고... (김혜진)

학교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은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충실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

생에 열정과 헌신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학부모들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의 부족을 교사 개인의 탓으로 보기보다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선생님이 한글을 모르고 오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을 거라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낙오될 수밖에...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지선)

> 선생님들은 너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온전히 열정을 다 쏟아 부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저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이 짐을 덜어줘야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오는 효과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이영애)

마지막으로, 선행학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평가를 받더라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중학교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교육만으로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평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지 선행학습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김혁규)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요인으로 교과내용 양의 적정화, 대학 선발방식의 개선, 현실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교과내용 양의 적정화는 고등학생에게서도 제안되었던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학부모들 역시 교과내용의 양이 적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배워야 할 양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한 해결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양은 줄지 않고서는 주어진 시간에서 그걸 다 소화하라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저는 강력하게 가지치기를 좀 해서... (한유진)

선행학습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선발방식을 개선하고 현실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준비의 어려움, 평가를 위한 평가 등의 대입 관련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학 입시가 바칼로레아 시험처럼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총체적으로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생각으로 풀어내는 그런 시험이... 내신 1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문제가 아닌... (박은하)

>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선생님들의 입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라고 내놨을 때 보면 사실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한유진)

학부모들의 선행학습 해소 방안을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의 변화,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제안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제도적·정책적 차원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안한 자기주도학습력의 향상은 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학원을 강요하고 있고, 학생들이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학부모의 강요를 제기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자녀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못미더움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아 결국 이들은 학부모에 등 떠밀려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초등학교 학부모는 현 입시제도 안에서의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상대평가 폐지, 수능의 난이도 조절을 제안한 반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학 선발방식 자체의 개선과 인간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 현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학교 학부모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특성화고의 활성화,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어 수업과 학생에 열정과 헌신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교과내용에 있어 그 양의 적정화를 제안한 반면, 중학교 학부모들은 다양한 평가 방식과 졸업 정원제를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표 Ⅴ-13〉 참조).

다. 교사가 제안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초등학교 교사들은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진로의 안내,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특성화고 수립, 학교 내 대회 축소를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살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공부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고등학교만 나오면 기술 쪽으로 가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든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정지순)

> '그래 공부가 다가 아니지, 너의 재능을 살리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공부할 아이는 공부하고 아닌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길을 찾아 나가는... (박선영)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점은 초등학생은 교내 대회를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의 각종 대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 학교가 대회를 축소하는 이유가 사교육에 대한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정지순)

중학교 교사들은 선행학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반고 역량 강화,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 탈피,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학 차원의 입시제도 개선,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 제공,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리 활성화, 진로교육의 강화, 수월성 교육의 여건 마련, 학급 인원수 감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를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고입에 대한 대비를 제시한 만큼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목고를 줄이는 것이 특목고로 인해 유발되는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양분된 고등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목고에 대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특목고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는 방법,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려 놓으려면 특목고를 줄여야 한다. 특목고를 줄이고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일반계고 (활성화) 해서 양분화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해소될 수 있는데... (박두식)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나치게 경쟁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정책들이 수시로 변하기보다 일관성 있게 제시되는 것이 불안감이나 경쟁의식으로 인한 선행학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정책이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차주영)

> 정부의 교육정책이 한 쪽에 경쟁, 한 쪽에 인성과 협력이라는 두 바퀴를 달고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서 그것이 학교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박두식)

중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급 내에서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의 인원수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탐색의 경험을, 학부모에게는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 본인이 간절히 (선행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학교에서 떠안을 수 있으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차주영)

>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그게(수준별 지도) 다 해소가 안 된다고 봤을 때,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과학 동아리나 수학 동아리나 수준별로 그 수준에 맞게... (차주영)

> 학생 수가 적으면 선생님이 수준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데 30명 넘어가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박두식)

> 같이 대화도 하고 진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주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주영)

> 학부모의 의식 전환과 관련한 학부모 연수... 공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사실 사회 나가서 기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박두식)

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학부모가 일단 학교 교육을 믿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한정혜)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선행학습 유발 요인으로 경쟁의식, 불안감,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공교육 불신, 교과내용의 어려움과 학습 양의 과다 등을 제시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사회 차원에

서 기업 선발방식의 개선, 대학 차원에서 입시제도의 일관성, 대입 선발방식 개선,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충실한 수업, 진로교육의 강화, 교과내용 양의 적정화, 절대평가 도입, 개인 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제안하였다.

입시제도의 일관성은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의 해결 방안으로, 입시제도가 일관되고 안정적일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쟁의식으로 인한 선행학습은 대입 선발방식의 개선과 절대평가의 도입, 기업 선발방식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안되었다.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쟁의식은 줄 세우기 방식과 이를 통한 선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시 정책이 자주 바뀌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꾸 그렇게 전달하는 말에 의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채영)

> 절대평가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줄 세우기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완화되는 측면은 있겠죠. (차혜정)

> 대입 평가 방법하고 이제 기업에서 직원을 뽑는 방법 이것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차혜정)

중학교 교사는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를 제시하여 이를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학교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선행학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 3학년이 방학 중에 방과후(수업)가 50강좌가 넘거든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높아요... 사교육이 너무 심하고 선행학습이 너무 심한 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돼 줄 수가 있어요... (차혜정)

수학 교과는 선행학습의 핵심 과목으로, 고등학생들이 실제 수학 교과에서 많은 어려움과 학습 내용의 과다를 호소하는 만큼,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서 수학교과 양의 적정화는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 선행학습의 모든 문제는 수학이에요.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돼요. 평가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차혜정)

한편, 중학교 교사는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를 제안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키우는 것이 학원을 가지 않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진로와 꿈을 분명하게 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 진로가 명확해지면... 진로나 그런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지금 당장에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채영)

>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키운다면 굳이 학원을 안 가겠죠. (이채영)

선행학습 해소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고 교사 모두 학생들이 선행학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부만을 강요하고 공부만이 미래를 위한 대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 체험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스스로 공부하게끔 도와주어, 학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선행학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의 일관성 부족에 기인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사들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고등학교 교사들은 입시제도의 일관성을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중학교 교사는 학교 차원에서 수월성 교육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의 유발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리의 활성화, 학급 내 원활한 수준별 교육을 위한 학급 인원수 감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교사의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학교 차원의 교육력 제고(교사의 충실한 수업)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초·중학교 교사들은 특목고의 선행학습 유발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교사는 취업이 보장되는 특성화고의 설립을, 중학교 교사는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각각 선행학습 해소 방안으로 제안하였다(〈표 Ⅴ-13〉 참조).

3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방안으로 첫째,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둘째,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셋째,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 넷째, 학벌 중심 사회적 인식 개선, 다섯째, 과도한 경쟁의식 개선, 여섯째, 개인의 심화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입시제도 개선이나 사교육 성행지역 관리, 홍보 등의 정책 및 제도 측면의 방안보다는 교수·학습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사회·문화적 인식 측면의 개선 방안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정책 및 제도 측면의 개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인 교수·학습 측면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면담조사 결과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방안으로 초·중·고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것은 사회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 입시제도의 개선, 평가 방식의 개선, 진로교육의 강화이다. 학벌주의로 인한 경쟁의식과 불안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만큼 학벌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차별받는 사회구조와 사회인식의 변화는 모든 학교급에서 제시된 선행학습 해소 방안이었다. 또한 현재의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입시제도의 일관성, 수능의 난이도 조절, 선발기준의 단순화, 상대평가 폐지, 절대평가 도입 또한 학교급을 막론하고 제안된 선행학습 해소 방안이다.

한편 진로교육의 중요성 역시 모든 학교급에서 언급되었는데 그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만을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이는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안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제기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통한 진학 선택이 빠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선행학습 해소 방안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 각종 대회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각종 교내 대회를 축소하는 것이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중학교는 교사의 충실한 교육활동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소해

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수업을 충실히 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수월성 교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목할 점은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끌어안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 선행학습 문제를 해소하자는 접근이 교사들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일선학교에 적용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막는 방법이 되어 왔음을 의미한다[8].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밖의 선행학습이 과도하게 유발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학교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학교급과 달리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선행학습 해소 방안은 교과내용의 적정화, 교사의 충실한 수업, 보조 자료의 강화이다. 선행학습 유발요인에서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해당 학기에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학 교과의 내용이 많아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호소한 바 있다.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수학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해소 방안으로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통한 학교 교육력의 제고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즉 고등학교 교사들도 선행학습 유발의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기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양질의 수업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학교에만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사교육까지 확대된 보다 강력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한 학생, 학부모, 교사 차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원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방안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13〉 면담조사 결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구분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방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인식의 변화 법적 금지 조치	불안감 해소 대학 서열화 완화 사회인식의 변화 교사의 충실한 수업 진로교육의 강화 기업 선발 방식의 개선	불안감 해소 입시 경쟁 해소 법적 금지 조치 절대평가 도입 교육내용 양의 적정화 보조 자료 강화

8) 방학 동안에 화법, 작문, 문법을 개설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들었고... 방과후 수업을 들었으면 됐는데 왜 안 들었냐고 당연히 들었어야지 다른 아이들은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차혜정)

구분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방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사회구조의 변화 상대평가 폐지 수능 난이도 조절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인간 중심의 교육 강조 교육정책 협의체 구성 다양한 평가 방식 마련 특성화고 활성화 입시제도(선발기준)의 단순화 졸업정원제 실시 교사의 충실한 수업 수업과 평가의 일치	교과내용 양의 적정화 대학 선발방식의 개선 현실적인 교육정책 수립
교사	다양한 진로의 안내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특성화고 설립 학교 내 대회 축소	일반고 역량 강화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 탈피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입시제도 개선 학부모 대상의 연수 강화 교육과정 관련 동아리 활성화 진로교육의 강화 수월성 교육의 여건 마련 학급 인원수 감축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	기업 선발방식의 개선 입시제도의 일관성 대입 방식의 개선 교사의 충실한 수업 진로교육의 강화 교육내용 양의 적정화 절대평가 도입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KEDI

PART VI

정책적 제언

1. 정책·제도 측면의 해소 방안
2. 사회·문화 측면의 해소 방안

Ⅵ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밝히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초점집단 면담,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을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 보다 한 학기 이상 앞서서 과외, 학원,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를 활용하여 유료로 한 달 이상 지속하는 학습'으로 정의하였고, 선행학습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대략 29%에서 61%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고등학생들은 조사 대상의 29%가 영어 선행학습을, 36%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였다. 중학생들은 44%가 영어 선행학습을, 54%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54%, 수학 과목에서 61%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선행학습 시점을 보면, 고등학생 가운데 7% 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영어 및 수학 교과 선행학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중학생 가운데 22% 이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영어 교과 내용을, 19% 이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 교과를 선행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밖의 요인은 정책·제도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책·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며 이와 더불어 '자사고 및 특목고 입학을 통한 대학입시 우위 선점'이 중요한 유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의 높은 난이도'와 '사교육업체의 불안감 조성' 등도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사회·문화 인식'과 '학벌사회 인식' 그리고 '사교육 홍보 인식'이 중요한 유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역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학습에 대한 학생 의사 존중', '학벌 중심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순으로 방안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면담조사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으로 초·중·고 공통적으로 '사회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 '입시제도의 개선', '평가 방식의 개선', '진로교육의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자료를 토대로 초점집단 면담과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제도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으로 나누어 해소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제도 측면의 해소 방안

본 연구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명문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과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임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 선행학습은 명문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하고 과학 선행학습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선행학습이 명문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네 과목 모두에서 선행학습이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데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고등학생들은 국어, 영어 과목에서 선행학습이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데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명문상급학교 진학'에 해당하는 문항은 국제 중학교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학교급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 면담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담 결과를 볼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며 이와 더불어 '자사고 및 특목고 입학을 통한 대학입시 우위 선점'이 중요한 유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라는 유발 요인 역시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대학입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내신이 활용되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서울지역 제외) 입시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선행학습은 학생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설문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함이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상의 두 가지 유발요인 외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높은 난이도와 많은 학습량,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 성적 산출, 대학입시제도의 빈번한 변경, 대학 입시 준비에 학교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의 만연, 입시 불안감과 공교육 불신을 조성하는 사교육 업체의 홍보 전략 등의 요인들이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유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정책·제도 측면에서 특목고 및 자사고 관리, 입시 관리, 교육과정 관리, 사교육업체 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가. 특목고 및 자사고의 학교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

교육부는 2011학년도부터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고 「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2014.1.)하는 등 학교 내신 성적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 실시로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을 개선해 왔다.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2015)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을 토대로 정원의 2배수 이내로 학생을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자사고(서울 외 지역)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출결을 토대로 정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외고·국제고와 같이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지필시험을 보던 과거보다는 고교입시 요인이 줄어드는 등 선발방식이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고교 입시를 통해 대학입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선행학습 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 준비 요인은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진학을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생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라는 인식에 따라, 학생들이 보다 더 선행학습에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수학, 중학생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요인은 주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고교 유형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목고를 통한 대학입시에서의 우위 선점은 특목고 설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학입시를 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을 통한 대학입시 우위 선점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선행학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입시에서는 관련 학과에서 선발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안의 취지는 특목고 및 자사고 입시를 개선하고 대학입시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도록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입학전형의 목적은 학생 선발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가이다. 고교나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은 '우리 학교 해당 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기에 적합한 학생인가?'와 '이 학생이 정말로 우리 학교의 해당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을 즐기고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학생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을 것인가?'이어야 한다. 고등학교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학으로 입학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학생들이 거쳐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학생과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일반고 외의 학교 학생 선발은 중학교 교육에서의 산출물(학교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을 활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중심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자사고 및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공계열 또는 고교 전공과 동일계열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목고 평가 시 동일계열 진학 비율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입시에서는 비 동일계열로 진학 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서 동일계열 여부를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사고의 경우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비교과 영역과 인성영역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자사고 출신 학생의 '설립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안의 장점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교 진학과 대학의 관련 학과로의 진로 선택 유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탐색 후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전공과 진로를 미리 결정해야 하므로, 고교 단계 또는 대학 단계에서 트랙 간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Ⅵ-1〉과 같다.

〈표 Ⅵ-1〉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구분		설립취지	대학 진학시 관련 전공	개선 방안
특목고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인재 양성	어문학 계열	• 특목고 학교평가 지표에서 동일계열 진학 비율 지표 강화 • 비동일계열로 대학 진학시 감점 강화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서 동일계열 여부를 반영하는 대학 우선 지원
	국제 고등학교	국제 인재 양성	국제 계열	
	과학 고등학교	과학 인재 양성	과학 및 이공 계열	
자사고		학교설립 취지에 맞는 인재 양성	전체 계열	• 자사고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비교과 및 인성 영역 비율 대폭 확대 •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자사고 출신 학생의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반영

장기적인 접근 방안으로는 학교 유형별로 선발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안의 취지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지향하되 선발시기에서 일반고가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까지 비평준화지역의 일부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전기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이를 볼 때 다른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

어 보인다.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선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성취수준 중심의 절대평가 실시 및 진학 자료 활용

연구 결과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과도한 경쟁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5점 만점 중 각각 4.4점, 4.2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내신 경쟁 완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특목고 및 자사고 입시에서 성취도를 사용하여 중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급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선발이라는 목적이 있는 이상 대학입시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목고 및 자사고 입시 준비를 위한 중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10월 현재, 외국어고와 국제고 입시에서는 중학교 2학년 영어 성취도(절대평가 결과)와 3학년 영어 내신 석차 등급(상대평가 결과)을 사용하며,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과 출결(감점)을 합하여 1단계 전형의 점수를 산출한다. 4개 학기 중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5:5). 따라서 3학년 영어 내신 석차 등급 대신 성취도를 사용하는 조치를 통해 중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5학년도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 실시되고 있는 성취평가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학교에서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산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석차등급을 활용하는 것은 중학교 교육의 방향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소가 된다. 현재 중학교 교육정책의 방향은 대표적으로 성취평가제와 자유학기제를 통해 나타난다. 성취평가제는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던 석차는 더 이상 기재되지 않는다.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13)에 따르면, 성취평가제는 학생들 간 무한경쟁을 피하고, 성취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창의 · 인성을 위한 교육과정, 성취중심의 공정한 학사관리, 공교육 중심 입시정착을 통한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은 진로교육 강화, 교수학습방법 혁신, 학생부담 해소와 이의 안정적인 정착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6).

이와 같이, 무한경쟁 탈피와 학생의 부담감 해소, 공교육 중심의 입시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평가제에 따라 고교 입시에서 그 자료가 활용되도록 하고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한편, 대입에서도 상대평가 결과가 아닌 절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점 만점에 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면담에서도 학교 시험이 학생들을 서열화 시키는,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하여 비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실제로 선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비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욱 우수한 수준에서 실시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시 석차 등급을 제외하고 완전한 절대평가제를 적용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내신 성적 경쟁 완화를 통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교과 성적을 활용하지 않고 절대평가와 학교 활동 등 관련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여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의 목표를 '성적이 높은 학생을 뽑아서 잘 가르치겠다.'는 것보다는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뽑아서 잘 가르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2단계 평가지표 중 '학교교육중심의 전형운영' 평가항목의 '학생부 전형 운영의 고교교육 정상화 취지 부합 여부'지표를 활용하여 성취수준 중심의 내신을 대입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양 축소

면담조사 결과, 고등학생들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많고, 수학과 과학 등의 과목은 학습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교육 기간 내에만 공부하여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입학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 중 교과 내신 전형과 비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참조).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논술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고 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높고 양이 많으면 고교 교육을 통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낮추고 양을 축소하여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새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가 개발될 때,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학습량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 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낮추고 양을 줄이는 방안은 필수적으로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대학별 고사가 출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방안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를 개정하여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는 대학 이외의 정부 기관 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각 대학이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내용을 출제하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교육 업체 홍보의 영향 평가 및 관리·감독 강화

사교육 업체가 사교육 상품에 대한 광고의 일환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학교 교육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회 공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등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감독은 정부의 규제임과 동시에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교육 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헌법학적 관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무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이는 '자신이 결정한 직업 또는 직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착수·계속·종결하는 자유'를 의미한다(권영성, 1999).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교육 업체의 과대광고는 직무수행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무수행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업체의 과대광고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사회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다. 물론, 제한의 정도[9]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교육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타당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인이 사교육 선행학습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교육 업체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사교육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는 강력한 규제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9) 이와 같은 제한은 행정법학에서 '비례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 실현함에 있어 그 목적 실현(공교육의 정상화)과 수단(과대광고 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김동희, 2002).

위와 같은 규제를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의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 〈표 Ⅵ-2〉와 같다.

〈표 Ⅵ-2〉 사교육 업체의 홍보 관리를 위한 법률화 방안

개정 전	개정 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좌동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좌동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좌동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좌동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좌동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좌동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7. 좌동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좌동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선행학습 광고 및 선행학습의 효과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불법신고포상제가 가능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불법신고포상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의 제17조 1항의 9호(선행학습 광고 및 선행학습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문화 측면의 해소 방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학교급별·과목별·대상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들은 영어 과목의 경우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수학에서 2수준인 집단의 '사교육 홍보 인식'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수학에서 2수준인 집단의 '학벌사회 인식'으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생들은 수학에서 2수준인 집단의 '사교육 홍보 인식'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수학 과목에서 2수준인 집단의 '학벌사회 인식'으로 인해 자녀를 선행학습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학생들은 주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지적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교급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초등학교 영어,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등도 유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부모의 경우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자녀를 선행학습에 참여시키는 동기 요인으로 외재적, 위탁적, 경쟁적, 내재적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과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 동기가 '위탁' 동기였으며, 중학교는 '경쟁'과 '내재' 동기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외재'와 '경쟁' 동기가 영어(외재)와 수학(외재, 경쟁) 과목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학생들은 막연한 불안감 또는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학부모들은 '엄마들의 조바심'과 '학벌 우선주의 사회구조'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도 초·중·고등학생들 모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유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인식 개선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가. 학벌사회 인식 해소를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 영역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학벌사회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모두에서 나타난 결과였고, 학교급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모두 학벌사회에서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므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경제주체의 입시과외행위, 즉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효용재이자 필수재로 인식한다. 이로써 고등교육재화의 획득으로 얻게 되는 효용과 과외라는 사적 재화의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가져오는 득과 실을 고려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지하·백일우, 2006). 부모들은 사회를 학벌중심사회로 인식하고 자녀가 학업성취에서 상대적으

로 우위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선행학습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학부모의 타산적·전략적 의사결정이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받아 더욱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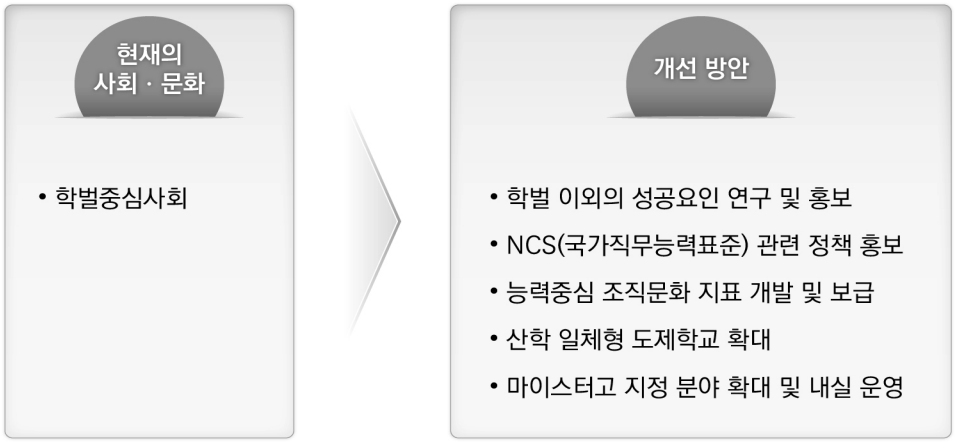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선행학습 및 조기교육의 역사는 서구와 다르게 학벌사회의 인식과 함께 발전되었다. 서구에서의 조기교육은 대체로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교육의 초점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사회화 교육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기교육은 1970년대 이후 갑작스런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계급상승의 목적을 갖고, 자녀에게 남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시작이 되었다(우남희, 1992). 그러므로 다른 아이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서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학벌을 기반으로 더 나은 직업을 가지도록 해야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과 경쟁심이 선행학습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학벌주의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사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강인원·전성일, 200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나 학생의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갑작스러운 경제발전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은 학벌을 기반으로 한 '교육재(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등)'를 얻기 위한 경쟁 문화 내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의 학벌사회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를 재건하던 과거에 비해 학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신화는 많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의 맹목적인 믿음은 사회불안을 조장하며 확대되고 재생산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벌사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학벌이외의 성공요인을 밝히고 연구하며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벌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정책 내용을 홍보하고,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하는 인사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능력중심 조직문화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의 직업교육을 개선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 추진하고, '마이스터고'가 고등학교 단계 한국형 직업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다양한 분야로 지정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실행되면 일류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벌이게 되는 불필요한 경쟁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학벌사회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 Ⅵ-1]과 같다.



[그림 Ⅵ-1] 학벌중심 사회 개선 방안

나.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교육 홍보 효과 조사 및 학부모 교육 강화

연구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불안이라는 정서적 요인은 전염성이 강하여 사회구성원 간에 확산이 될 수 있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요인인 학벌사회 인식이 불안 심리의 한 원인일 수 있지만, 사교육 업체의 홍보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국의 선행학습의 특징은 정부나 대학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시장경제의 주요 대상으로서 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상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원중심의 사교육 문화가 팽배하여 현재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우남희, 2004).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 업체의 홍보를 인식하고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홍보가 선행학습의 주요 유발 요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에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의 홍보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교육 업체의 홍보로 인한 불안감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조사하고, 불안하다고 느낀 것들이 사실인지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교육 업체의 홍보에 대한 정책적 제약을 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강인원과 전성일(2003)은 학부모의 학력 및 거주 지역의 속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클럽

효과(club effect)에 따른 과외수요의 발생과 지역별 독특한 과외문화가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 성행지역 변인이 학부모가 자녀에게 선행학습(중학교 영어, 수학)을 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사교육 홍보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홍보를 제약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업체의 홍보를 감독하는 방안으로는 앞 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개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급 학교에서 인지발달 및 뇌 기능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폐단을 알리는 학부모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의 폐단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인지발달과 뇌 발달에 기반 한 학습

인지발달 관점에서 효과적인 학습이란 아동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 내용이 학습자 내부의 인지구조를 확장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뇌 발달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의 뇌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 환경과 피드백이 제공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선행학습을 논할 때에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과 두뇌 발달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다행스럽게도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인식하고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더 알고 싶다는 이유로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호기심이 주로 학부모나 사회의 교육에 의한 것이고 이들의 인지적 역량이나 발달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동기의 저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의 원인이며 국제적으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2003년 UN에서는 한국의 아동들이 지나친 사교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권고하였다(한겨레신문, 2003. 1. 26.). 2013년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33.3%이므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높은 것이다(김미숙, 2015).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이제는 선행학습을 접근할 때 학습을 하는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과열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자신의 정신건강과 인지발달 및 뇌 발달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동권리협약 제 27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하려는 1차적 책임을 갖고 있고,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의 인지발달과 뇌 발달이 중장기적으로 저해받지 않도록 학습 내용과 수준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라. 교육현장에서 과정에 기반 한 교사의 피드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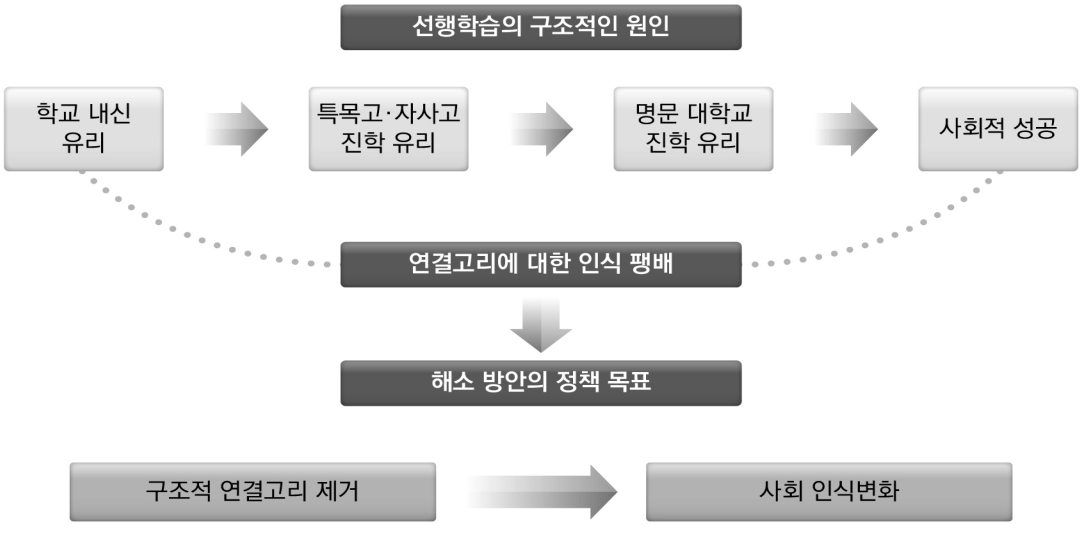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선행학습을 바라볼 때에, 학교현장에서 제공하는 바람직한 피드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학교 밖에서의 선행학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과 선행학습 없이도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이 어떠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적인 접근방식은 학교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선행학습을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선행학습을 조장케 하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학습 결과인 학업성취만을 강조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우선시하고 칭찬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행학습을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상대적 결핍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결과 중심적인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학습의 과정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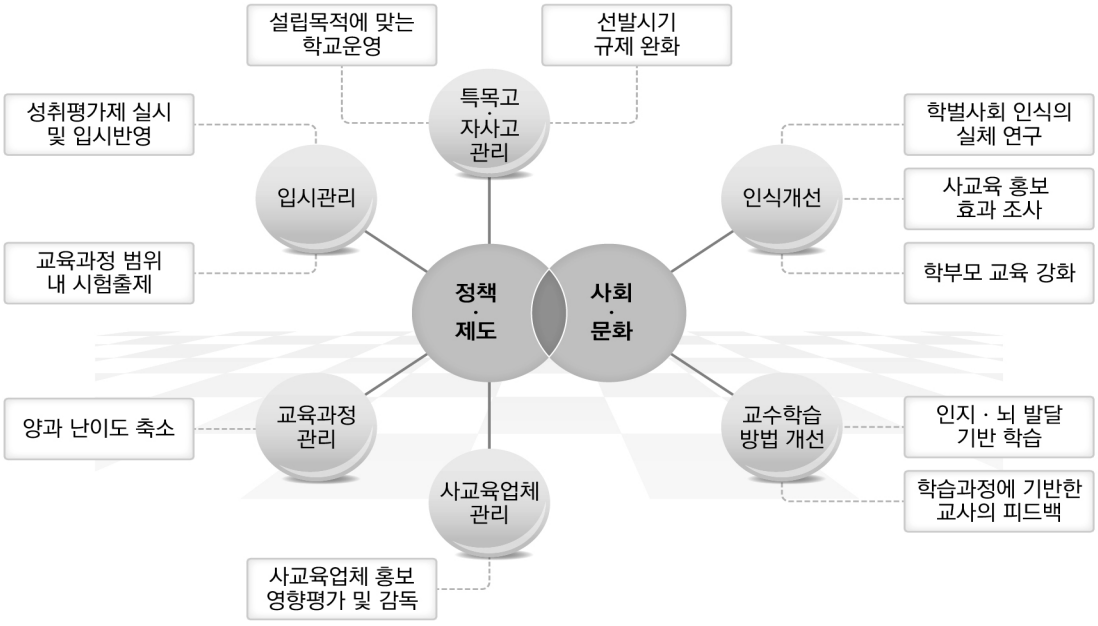
필요하며, 선행학습 없이 학교 수업내용을 충실히 따라오는 학생들을 칭찬하거나 혹은 더 높은 평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정책 제안은 선행학습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의 구조적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연결고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Ⅵ-2]와 같다.



[그림 Ⅵ-2] 선행학습의 구조적인 원인 및 정책 목표

위의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수단을 정리하여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Ⅵ-3]과 같다. 정책·제도 측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관리, 입시관리, 교육과정 관리, 사교육업체 관리로 유형화 하였고,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의식 개선,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유형화 하였다.



[그림 Ⅵ-3]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종합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목고·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2020년에는 특목고 2주기 평가에서 동일계열 진학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시기 규제완화는 정책연구를 수행한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방안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입시에서 성취평가제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안은 2017년까지 공론화를 거쳐 2018학년도 입시부터 고등학교(외고)와 대학교가 같은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외의 정책들은 2016학년도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Ⅵ-4]와 같다.

[그림 Ⅵ-4] 정책 제안 로드맵

참고문헌

강인원·전성일(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7.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2학년도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 - 중학교용.

교육부(201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도 1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 교재. 연수교재 TM 2014-04-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충청남도교육청(2015).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 평가 매뉴얼.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서울: 문음사.

김동일·김신호·이근재·정일호·정종진(2003). **아동발달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김동희(2002). **행정법 Ⅰ**. 서울: 박영사.

김미숙(2015).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0호**, 14-26.

김성이·김은아(2004).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7**, 11-195.

김성천·신철균(2011). 인문계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효과 분석 연구. **열린교육연구**, **19**(4), 87-108.

김양분·김미숙(2002). **입시학원의 교육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천(2008). **질적연구방법론 Ⅰ**. 서울: 문음사.

김영철(2003).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포럼**, **17**, 13-14.

김정민·김일혁·김정숙(2013).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민·김정숙·김일혁(2014).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2), 135-166.

김지하·백일우(2006). 게임이론에 기초한 입시과외 수요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187-215.

김진영(2007). 고3 수험생들의 시간활용과 사교육의 효과. **한국교육**, **34**(4), 57-78.

김현철·윤유진(2011). **선행학습 실태 및 학습 부담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김희삼(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32**(3), 27-59.

_____(2011).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가?. **KDI 정책포럼**, **제231호**(2011-01). 한국개발연구원.

도승이·김성식·김현철·손수경(2012). 사교육 의존도에 따른 학업우수 중학생의 특성 분석-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0**(4), 185-200.

류지은(2005).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차이와 교육적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26**(2), 21-33.

박현정·상경아·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4), 107-127.

송경오·이광현(201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특성에 대한 패널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301-3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2). 선행학습실태 전국조사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 제5차 토론회 자료집.

신재한(2009). 수학영재교육원 선발대상자의 선행학습 경험과 가정환경이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5**(2), 180-199.

안상진(2013).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우남희(1992). 아동의 언어발달에서의 모방의 역할: 각 이론에 따른 연구 절차 분석. **한국아동학회**, **13**(1), 5-15.

_____(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_____(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471-492.

우민정(2009). 스트레스 유발 처치에 따른 시공간과제 수행력과 뇌 활성화 변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31-42.

이광현(2012). 특목고, 자사고 진학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2), 155-178.

이수정·민병철(2009). 사교육 수요와 학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4), 179-206.

이종태·김양분·이인효·윤초희·성기선·김미숙 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영진·권순형·김도기·문영빛(2015).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1), 309-330.

최정선·박종근·구인선·김봉곤(2007). 선행학습과 성취도의 상관성. **중등교육연구**, **19**, 194-214.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담당관 업무 길라잡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보도자료.

한지선·박형빈·이헌수(2013). 수학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대학 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6**(1), 87-112.

황윤한(2004). 개별화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의 본질에 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17**(2), 269-300.

홍진곤·장보윤·김경록·진석언(2008). 초등학교 수학영재의 수학교과 선행학습 정도와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3), 123-138.

Alexander, P. (2006). *Psychology in learning and instruction*.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earson.

Battro, A., Fischer, K., & Léna, P. (2008). *The Educated Brain: Essays in Neuroeducation*. 김유미 역(2009). **마음, 뇌, 교육의 연결고리를 찾아**. 서울: 학지사.

Bray, M., & Kwok. P. (2003). Demand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 Conceptual Consideration and Socio-economics Patterns in Hong-Ko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6), 611-620.

Byrnes, J. P. (2001). *Cognitive development and learning in instructional contexts*. Boston: Allyn and Bacon.

Chetty, S., Friedman, A. R., Taravosh-Lahn, K., Kirby, E. D., Mirescu, C., Guo, F., Krupik, D., Nicholas, A., Geraghty, A. C., Krishnamurthy, A., Tsai, M-K., Covarrubias, D., Wong, A. T., Francis, D. D., Sapolsky, R. M., Palmer, T. D., Pleasure D., & Kaufer, D. (2014). Stress and glucocorticoids promote oligodendrogenesis in the adult hippocampus. *Molecular Psychiatry*, 19(12), 1275-1283.

Cole, M., Cole, S. R., & Lightfoot. C. (2005).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Macmillan.*

Driscoll, M. (2002). *Psychology of learning for instruction (3rd Ed.).* 양용칠 역(2007).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Eggen, P., & Kauchak, D. (2010).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신종호·김동민·김정섭·김종백·도승이·김지현·서영석 역(2011).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8판). 서울: 학지사.

Elkind, D. (1983). *The Hurried child*. New York: Management & Music Publish Inc.

Fischer, L., & Layna, J. (2003).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Workflow handbook 2003*. Lighthouse Point: Future Strategies.

Fitts, P. M., & Posner, M. I. (1967). *Human performance. Belmont*. Oxford: Brooks/Cole.

Granott, N. & Parziale, J. (2002). *Microdevelopment : transition processes in development and learnin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pern, J. Y., & Weissman, V. (2008). Using First-Order Logic to Reason about Policies, *ACM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Logic*, 11(4), 1-39.

Kim, J. S., Moon, D. H., Kim, G. E., Cho, Y. P., Kim, J. S., Ryu, J. S., & Lee, H. K. (2000). Acetazolamide Stress Brain-Perfusion SPECT Predicts the Need for Carotid Shunting During Carotid Endarterectomy. *The Journal of Nuclear Medicine*, 41(11), 1836-1841.

Knowles, M. (1975). *Self-direction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 New York: Association Press.

Perkins, D. N., & Salomon, G. (1989). Are Cognitive Skills Context-Bound?. *Educational Researcher*, 18(1), 16-25.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California: Sage.

Rodriguez, G., & Elo, I. (2003). Intra-class correlation in random-effects models for binary data. *The Stata Journal*, 3(1), 32-46.

Schwartz, M. S., & Fischer, K. W. (2005). Building general knowledge and skill: Cognition and microdevelopment in science. In A. Demetriou & A. Raftopoulos (Eds). *Cognitive developmental change: Theories, models, and measurement*.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7-185.

Siegler, R. S., & Alibali, M. W. (2005). *Children' Thinking*(4th Ed.) Uppe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Sime, M. (1973). *A child's eye view: piaget for young parents and teachers*. 문용린 역(1998). **아이들의 인지 세계**. 서울: 학지사.

Zheng, Y., & Fischer, K. (2002), Always Under Construction. *Human Development*, 45(3), 141-160.

[신문 기사]

한겨레신문(2003. 1. 26). 유엔 "한국 조기 입시교육 아동권 침해."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1/005000000200301262254051.html (2015년10월30일 검색)

The Study on Solutions for the Outside-School-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Jaeduck Lee(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ungmin Kim(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oonHyoung Kwon(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Doki K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unglee Do(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and to seek solutions to those factors, thereby setting forth long-term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phased strategies to carry out such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such purpose,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surveys, interviews, focused group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In this study, the term prior learning is defined as 'learning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by paying certain amount of fee, at least one semester in advance, for at least one month through private tutoring, cram schools, e-learning courses."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subjects of Korean, English, mathematics and science which are expected to show whether the students are engaged in prior learning or not more clear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approximately 29% to 61% of students among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re engaged in prior learning. More specifically,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29% had been engaged in prior learning for English while 36% had been for mathematics. Percentage of students involved in prior learn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urned out to be 44% for English and 54% for mathematics. However, it turned out to be 54% for English and 61% for mathematic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erms of the point at which these students started prior learning, it turned out that

not less than 7% of the high school students had started to learn high school English and mathematics from their elementary school years. Also, it was found tha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not less than 22% had started to learn middle school English and not less than 19% had started to learn middle school mathematics from their elementary school years.

There are various outside-the-school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to choose prior learning, mainly in policy & institutional aspects and in social & cultural aspects. In terms of policy & institutional aspects,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prior learning turned out to be "in order to win in th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and "to preoccupy an advantageous position for college entrance by getting into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special-purpose high schools". In addition, others such as "high level of difficulty of the curriculum" and "creation of anxiety by private education companies" are identified as major affecting factors. When it comes to social & cultural aspects, not only are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culture as being competitive", "perceptions putting high emphasis on educational backgrounds" and "perceptions of advertisements of private education" factors that are significantly affecting prior learning but also "vague anxiety" due to the foregoing turned out to be a factor affecting prior learning.

Finally, from the survey on solutions to 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solutions to such factors are suggested in the following order: "developing diverse education programs which reflect students' interest and level of learning", "relieving students' stress from studying", "respecting students' opinion about learning" and "improving social perception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educational backgrounds". Furthermore, from the interview,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perception", "improving college entrance policy", "improving evaluation methods" and "reinforcing career education" are suggested as solutions to 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commonly for all school levels.

By conducting focused group interview and expert consultation based on materials which integrate the above research findings, we have set forth the final solutions to the 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Such solutions proposed in term of policy & institutional aspects and in social & cultural aspec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policy & institutional aspects, first of al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special-purpose high schools shall be reinforced so that those schools ar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ir purpose of establishment. Except for general high schools, students shall be selected based on their talent and aptitude by using students' output accumulated during their middle school years (i.e., school records, portfolios). Also,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policy which can lead the colleges to select their freshmen in such a way that students from special-purpose high school go on to the majors that fall under the same field as their majors in high school.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all proceed with policies such as reinforcement of index of ratio of students entering the same field of major when evaluating special-purpose high schools, "Support Project for Colleges Contributing to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etc. so as to give preferential support to colleges which reflect whether the students are entering the same field of major in their admission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the achievement-level-centered academic performance (Naeshin) in the entrance exams for the upper schools. It shall faithfully reflect the purpose of the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scape from endless competition, relieve burden of students and establish entrance exams centering on public education. These materials shall be used in high school entrance exams so as to supplement insufficient parts of the admission processes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Third, high school curriculum shall become less difficult and reduce the quantity of its contents. Thi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prepare college entrance exams based on high school education if the high school curriculum has high level of difficulty and large quantity of contents. Also, it would be a good idea to prepare questions of exams for each college within the scope and level of high school curriculum. It is anticipated that imposing such sanctions would be possible if the policy "evaluation on the impacts of the admission process" is operated soundly.

Fourth, evaluation on the influence of private education companies' advertisements shall be carried out an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such advertisements shall be reinforced. To this end, supervision on such advertisements could be strengthened

by amending Article 17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In terms of social & cultural aspects, first of all, research and publicity shall be reinforced in order to resolve the perceptions putting high emphasis on educational backgrounds. It is necessary to study to what level is the Korean society being obsessed with educational backgrounds and carry out research and publicity activities which identify factors other than educational backgrounds that lead to success.

Second, parents' perception and anxiety which are dependent on the advertisements regarding private education shall be resolved. After conducting a research on to what extent is the parents' anxiety aggravated by the advertisement policy of private education companies and exploring whether such anxiety is based on the reality, results of such research shall be properly notified to the parents. Also, policy measures which aim to restrict the advertisement regarding private education shall be imposed unless they infringe upon one's freedom.

Third, learning based on cognitive and brain development shall be reinforc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ublicize the importance of adjusting the learning contents with the students' development level in order not to make students feel anxious and stressed out and not to impede development of cognition and brain in the medium to longer term. In addition, studies which can provide grounds for such adjustment are required.

Fourth, in the education field, feedbacks shall be given based on the process, not on the results. In school, teachers shall put efforts to form a good culture by praising or evaluating more highly the students who are faithfully following the school curriculum without prior learning than those who engage in prior learning.

▣ keyword : prior learning, prior education, 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private education

부 록

[부록1]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학생용 설문지)
[부록2]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학부모용 설문지)
[부록3]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국어, 과학)

부록 1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하시는 데에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각 질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생각에 대한 설문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 완료한 설문지는 학생의 동의서, 학부모용 설문지 및 동의서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나 선생님과 관련하여 결과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창의인성교육연구실

※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137-715)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연구동 307호
□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창의·인성교육연구실 선행학습 연구진
- 000 (02-3460-8927, marines863@kedi.re.kr)
- 000 (02-3460-0296, moonmj@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본 설문지에서 '선행학습'** 은, 학교 수업 준비를 위하여 1~2주일 가량 전에 하는 간단한 예습이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를 통하여 학교 수업 진도보다 **최소 한 학기 이상 미리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을 1학년 2학기 및 겨울방학 때 미리 공부하는 것)

※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 또는 √로 표시하세요.

※ 위에 기술된 선행학습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읽어보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Ⅰ. 선행학습 실태

문1.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을 선행학습한 때는 언제입니까?

1) 국어	2) 영어
①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⑤ 중학교 1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⑥ 중학교 2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⑦ 중학교 2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⑧ 중학교 3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⑨ 중학교 3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⑩ 선행학습 안 했음	①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⑤ 중학교 1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⑥ 중학교 2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⑦ 중학교 2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⑧ 중학교 3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⑨ 중학교 3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⑩ 선행학습 안 했음
3) 수학	**4) 과학**
①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⑤ 중학교 1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⑥ 중학교 2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⑦ 중학교 2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⑧ 중학교 3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⑨ 중학교 3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⑩ 선행학습 안 했음	① 초등학교 4학년(또는 그 이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⑤ 중학교 1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⑥ 중학교 2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⑦ 중학교 2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⑧ 중학교 3학년 1학기(여름방학 포함) ⑨ 중학교 3학년 2학기(겨울방학 포함) ⑩ 선행학습 안 했음

☞ 네 과목 모두 ⑩번(선행학습 안 했음)에 응답한 학생은 문4.로 이동하세요.

문2. 그 당시 참여한 선행학습은 어떤 형태로 1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하였습니까?

*단위: 시간(이상–미만)

과목	형태	0	1 미만	1–2	2–3	3–4	4–5	5–6	6–8	8 이상
국어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영어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수학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과학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문3. 당시 선행학습 하는 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____1) 학생 본인 ____2) 부모님 등 타인

문4. 5월 현재까지, 어느 학년 어느 학기까지의 내용을 선행학습 한 상태입니까?

1) 국어	2) 영어
① 선행학습 안 했음 ②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③ 중학교 1학년 1학기 ④ 중학교 1학년 2학기 ⑤ 중학교 2학년 1학기 ⑥ 중학교 2학년 2학기 ⑦ 중학교 3학년 1학기 ⑧ 중학교 3학년 2학기 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⑩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⑪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⑫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① 선행학습 안 했음 ②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③ 중학교 1학년 1학기 ④ 중학교 1학년 2학기 ⑤ 중학교 2학년 1학기 ⑥ 중학교 2학년 2학기 ⑦ 중학교 3학년 1학기 ⑧ 중학교 3학년 2학기 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⑩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⑪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⑫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3) 수학	**4) 과학**
① 선행학습 안 했음 ②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③ 중학교 1학년 1학기 ④ 중학교 1학년 2학기 ⑤ 중학교 2학년 1학기 ⑥ 중학교 2학년 2학기 ⑦ 중학교 3학년 1학기 ⑧ 중학교 3학년 2학기 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⑩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⑪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⑫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① 선행학습 안 했음 ②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③ 중학교 1학년 1학기 ④ 중학교 1학년 2학기 ⑤ 중학교 2학년 1학기 ⑥ 중학교 2학년 2학기 ⑦ 중학교 3학년 1학기 ⑧ 중학교 3학년 2학기 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⑩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⑪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⑫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 네 과목 모두 ①번에 응답한 학생은 문7.로 이동하세요.

문5. 5월 현재, 미래에 배울 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은 어떤 형태로 1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단위: 시간(이상–미만)

과목	형태	0	1 미만	1–2	2–3	3–4	4–5	5–6	6–8	8 이상
국어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영어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수학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과학	① 학원									
	② 과외 (개인·그룹과외, 방문 수업 등)									
	③ 유료 인터넷 강의									
	④ EBS 강좌									
	⑤ 방과후 수업									
	⑥ 기타									

문6. 현재 진행되는 선행학습 하는 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____1) 학생 본인 ____2) 부모님 등 타인

Ⅱ. 선행학습 요인

문7. 다음의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설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1)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우리 사회에 좋은 직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쟁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출신 대학이 결정되면 개인의 성공과 삶에 평생 동안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국제중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진도보다 미리 앞서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점수 위주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9) 대학입시를 위해 논술시험을 준비하려면 학교 공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0)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⑨
11) 학원 및 인터넷 강의 등의 광고는 선행학습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2)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3)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4) 부모님은 공부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⑨
15) 나는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16) 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7)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⑨

Ⅲ. 학생 배경 정보

문8. 현재, 학생의 학급 내 과목별 성적은 어느 수준입니까?
(지난 시험 점수가 다음 5가지 수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과목	매우 낮은 수준 (E)	낮은 수준 (D)	보통 수준 (C)	높은 수준 (B)	매우 높은 수준 (A)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4)	과학	①	②	③	④	⑤

문9. 다음은 진로 및 진학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진학 희망 중학교 **(초등학생만 응답)**	① 일반 중학교 ② 국제 중학교 ③ 예술, 체육 중학교 ④ 기타
진학 희망 고등학교 **(초등학생, 중학생만 응답)**	① 일반 고등학교 ②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국제 등) ③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 체육 등) ④ 자사고 ⑤ 특성화 고등학교 ⑥ 마이스터고 ⑦ 기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 **(중학생, 고등학생만 응답)**	① 전문대학 ② 대학(4년제 이상) ③ 대학원 ④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 자율형 사립고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확대한 고등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마이스터 고등학교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문10. 다음은 학생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성별	① 남	② 여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 (학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하시는 데에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각 질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생각에 대한 설문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 완료한 설문지는 부모님의 동의서, 자녀의 동의서와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응답 자료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나 선생님과 관련하여 결과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

창의인성교육연구실

※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137-715)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연구동 307호
□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창의인성교육연구실 선행학습 연구진
- 000 (02-3460-8927, marines863@kedi.re.kr)
- 000 (02-3460-0296, moonmj@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본 설문지에서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 준비를 위하여 1~2주일 가량 전에 하는 간단한 예습이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를 통하여 학교 수업 진도보다 최소 한 학기 이상 미리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을 1학년 2학기 및 겨울방학 때 미리 공부하는 것)

※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 또는 √로 표시하세요.

Ⅰ. 선행학습 실태

문1. 조사지를 가져온 자녀가 5월 현재 선행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1개월에 얼마입니까?

1) 국어	2) 영어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⑤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⑥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⑦ 100만원 이상 ⑧ 선행학습 안 함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⑤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⑥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⑦ 100만원 이상 ⑧ 선행학습 안 함
3) 수학	**4) 과학**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⑤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⑥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⑦ 100만원 이상 ⑧ 선행학습 안 함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⑤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⑥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⑦ 100만원 이상 ⑧ 선행학습 안 함

Ⅱ. 선행학습 요인

문2. 다음의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설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1)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우리 사회에 좋은 직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쟁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출신 대학이 결정되면 개인의 성공과 삶에 평생 동안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국제중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진도보다 미리 앞서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점수 위주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9) 대학입시를 위해 논술시험을 준비하려면 학교 공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0)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⑨
11) 학원 및 인터넷 강의 등의 광고는 선행학습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2)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3)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4)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⑨
15) 내 자녀의 학습활동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선행학습에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⑨
16) 내 아이만 선행학습을 안 시키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17) 폭 넓고 심도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⑨

Ⅲ.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문3. 다음의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설문(선행학습 예방를 위해 ~)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국민들의 과도한 경쟁의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대입에서 내신점수 반영에 절대평가 점수를 활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사교육 성행지역 내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①	②	③	④	⑤	⑨
9)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0) 개인의 심화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공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1) 선행학습이 효과(학습에 대한 흥미, 창의성)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문4. 기타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문5. 다음은 학부모님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구분	어머니	아버지
3) 교육 정도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원 졸업(석사) ⑤ 대학원 졸업(박사)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원 졸업(석사) ⑤ 대학원 졸업(박사)
4)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결과 (국어, 과학)

1. 초등학교 국어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311***	.060	−.315***	.061	−.269**	0080	−.274**	.084
가정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029	.074	−.062	.076	−.042	.078	−.047	.077
모 연령	−.008	.010	−.005	.010	−.004	.010	−.004	.010
부 연령	−.030*	.013	−.036**	.013	−.036**	.013	−.036**	.013
모 학력수준	.014	.011	.010	.011	.009	.012	.010	.012
부 학력수준	.015	.010	.020	.011	.020	.011	.020	.011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39	.029	−.038	.029	−.038	.029
학습스트레스 인식			.048	.032	.050	.032	.050	.032
지적 호기심 인식			.259***	.037	.265***	.038	.263***	.038
막연한 불안감 인식			.039	.029	.040	.029	.039	.029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49	.056	.053	.057	.051	.057
학벌사회인식			−.001	.049	.001	.049	.001	.048
사교육 홍보 인식			−.052	.034	−.056	.034	−.055	.034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35	.037	.038	.037	.037	.037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48	.044	−.047	.045	−.045	.045
내신준비 인식			.022	.036	.024	.037	.022	.037
학교배경 변인(2수준)								
학교규모					.184	.152	.084	.156
사교육 성행지역					−.271*	.106	−.198	.125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35	.369		
학벌사회인식					−.004	.411		
사교육 홍보 인식					−.409*	.202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226	.305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338	.248
내신준비 인식							.301	.345
무선효과								
2수준	.216***		.224***		.210***		.214***	

*$p<.05$, **$p<.01$, ***$p<.001$

2. 초등학교 국어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311***	.060	−.331***	.060	−.298**	.084	−.317**	.088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029	.074	−.001	.079	.012	.082	.014	.081
모 연령	−.008	.010	−.007	.010	−.006	.011	−.007	.011
부 연령	−.030*	.013	−.037**	.013	−.037**	.013	−.037**	.013
모 학력수준	.014	.011	.005	.011	.004	.011	.004	.011
부 학력수준	.015	.010	.009	.010	.009	.010	.009	.010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051	.041	.052	.042	.051	.042
선행학습동기_위탁			.208***	.033	.208***	.033	.208***	.033
선행학습동기_경쟁			.087*	.036	.088*	.036	.089*	.036
선행학습동기_내재			.058	.036	.058	.037	.058	.037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92	.051	.092	.051	.090	.051
학벌사회인식			−.079	.044	−.076	.044	−.077	.044
사교육 홍보 인식			−.144***	.036	−.142***	.036	−.143***	.036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71	.039	−.069	.039	−.065	.039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47	.048	−.047	.049	−.046	.048
내신준비 인식			.133**	.042	.131**	.043	.130**	.043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99	.163	.230	.164
사교육 성행지역					−.236	.133	−.183	.134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242	.432		
학벌사회인식					−.052	.414		
사교육 홍보 인식					−.187	.269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471	.328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176	.293
내신준비 인식							.300	.421
무선효과								
2수준	.216***		.216***		0.216***		0.208***	

*$p<.05$, **$p<.01$, ***$p<.001$

3. 초등학교 과학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403***	.063	−.410***	.063	−.385***	.086	−.380***	.089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050	.068	.015	.068	.032	.071	.027	.070
모 연령	−.003	.009	−.001	.010	.000	.010	.000	.010
부 연령	−.033*	.013	−.039**	.013	−.038**	.013	−.039**	.013
모 학력수준	.018	.011	.015	.011	.014	.011	.014	.011
부 학력수준	.005	.010	.009	.011	.009	.011	.009	.011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38	.031	−.036	.031	−.036	.031
학습스트레스 인식			.057	.033	.058	.033	.057	.034
지적 호기심 인식			.214***	.042	.219***	.042	.216***	.042
막연한 불안감 인식			.088**	.028	.089**	.028	.088**	.028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11	.055	−.008	.055	−.010	.055
학벌사회인식			.033	.046	.034	.046	.034	.046
사교육 홍보 인식			−.056	.033	−.059	.034	−.058	.033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07	.038	.009	.038	.008	.038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03	.043	−.002	.043	−.001	.043
내신준비 인식			.076*	.038	.078*	.038	.076*	.038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46	.152	.039	.162
사교육 성행지역					−.176	.109	−.131	.129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48	.420		
학벌사회인식					−.020	.416		
사교육 홍보 인식					−.442*	.215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24	.33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326	.265
내신준비 인식							.135	.387
무선효과								
2수준	.248***		.253***		.249***		.262***	

*$p<.05$, **$p<.01$, ***$p<.001$

4. 초등학교 과학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403***	.063	−.426***	.063	−.401***	.089	−.416***	.093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050	.068	.074	.071	.083	.074	.085	.073
모 연령	−.003	.009	−.002	.010	−.001	.010	−.001	.010
부 연령	−.033*	.013	−.042**	.013	−.042**	.013	−.042**	.013
모 학력수준	.018	.011	.009	.011	.008	.011	.008	.011
부 학력수준	.005	.010	−.001	.010	−.001	.010	−.001	.010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선행학습동기_외재			.077*	.038	.078*	.038	.078*	.038
선행학습동기_위탁			.188***	.037	.187***	.038	.187***	.038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선행학습동기_경쟁			.105**	.039	.106**	.039	.107**	.039
선행학습동기_내재			.041	.036	.041	.036	.042	.036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35	.054	.037	.054	.034	.054
학벌사회인식			−.018	.043	−.016	.043	−.016	.043
사교육 홍보 인식			−.183***	.037	−.183***	.037	−.183***	.037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53	.036	−.052	.036	−.049	.036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39	.046	−.039	.046	−.039	.046
내신준비 인식			.095*	.044	.094*	.044	.093*	.044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31	.173	.144	.173
사교육 성행지역					−.167	.139	−.117	.137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400	.467		
학벌사회인식					.109	.461		
사교육 홍보 인식					−.135	.290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397	.328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026	.338
내신준비 인식							.168	.470
무선효과								
2수준	.248***		.254***		.268***		.263***	

*$p<.05$, **$p<.01$, ***$p<.001$

5. 중학교 국어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888***	.068	−.917***	.069	−.841***	.073	−.836***	.080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62*	.062	.149*	.065	.159*	.066	.158*	.066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모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56	.036	−.057	.037	−.058	.037
학습스트레스 인식			.107**	.035	.107**	.035	.109**	.035
지적 호기심 인식			.098**	.036	.100**	.036	.096**	.037
막연한 불안감 인식			−.012	.032	−.011	.032	−.010	.032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87	.054	−.091	.055	−.087	.054
학벌사회인식			.059	.044	.055	.046	.058	.044
사교육 홍보 인식			−.122**	.039	−.118**	.040	−.120**	.039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60	.043	.061	.043	.062	.044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117**	.043	−.117**	.044	−.120**	.044
내신준비 인식			.247***	.044	.250***	.045	.251***	.045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39	.169	−.076	.154
사교육 성행지역					−.267	.205	−.306	.198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614	.712		
학벌사회인식					.378	.561		
사교육 홍보 인식					−.504	.272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82	.398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은 입시에 대한 인식							.312	.411
내신준비 인식							−.370	.512
무선효과								
2수준	.219***		.240***		.220***		.242***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 <.05, **p <.01, ***p <.001

6. 중학교 국어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888***	.068	−.920***	.069	−.866***	.078	−.888***	.083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62*	.062	.191**	.064	.199**	.065	.200**	.065
모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모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사교육동기_외재			.012	.044	.012	.045	.016	.045
사교육동기_위탁			.119**	.041	.120**	.041	.117**	.041
사교육동기_경쟁			.129**	.043	.130**	.043	.131**	.044
사교육동기_내재			.121**	.041	.120**	.042	.121**	.042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70	.062	.068	.063	.067	.063
학벌사회인식			−.170**	.054	−.171**	.055	−.168**	.054
사교육 홍보 인식			−.065	.034	−.063	.034	−.064	.034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18	.029	−.018	.029	−.019	.029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010	.029	−.008	.029	−.007	.029
내신준비 인식			.115**	.039	.115**	.039	.117**	.039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79	.171	.204	.165
사교육 성행지역					−.298	.179	−.275	.186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30	.329		
학벌사회인식					.302	.446		
사교육 홍보 인식					−.515	.402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507	.530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296	.380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내신준비 인식							−.961	.593
무선효과								
2수준	.219***		.240***		.232***		.226***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 <.05, **p <.01, ***p <.001

7. 중학교 과학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815***	.058	−.841***	.059	−.790***	.064	−.779***	.068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295***	.066	.254***	.067	.262***	.068	.259***	.068
모 연령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부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모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58	.036	−.058	.037	−.059	.036
학습스트레스 인식			.097**	.032	.096**	.032	.097**	.031
지적 호기심 인식			.160***	.039	.163***	.039	.162***	.040
막연한 불안감 인식			.058	.034	.057	.034	.056	.034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80	.059	−.086	.060	−.078	.059
학벌사회인식			−.027	.043	−.030	.044	−.030	.043
사교육 홍보 인식			−.085*	.039	−.082*	.040	−.084*	.039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22**	.039	.123**	.039	.125**	.039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057	.043	−.055	.043	−.059	.043
내신준비 인식			.151**	.050	.152**	.051	.149**	.050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001	.127	.012	.144
사교육 성행지역					−.234	.153	−.273	.161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1.029*	.509		
학벌사회인식					−.072	.430		
사교육 홍보 인식					−.266	.270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89	.352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142	.355
내신준비 인식							.418	.449
무선효과								
2수준	.137***		.151***		.139***		.155***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05$, **$p<.01$, ***$p<.001$

8. 중학교 과학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815***	.058	−.844***	.059	−.823***	.065	−.828***	.071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295***	.066	.305***	.066	.313***	.066	.315***	.066
모 연령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모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학력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사교육동기_외재			.007	.045	.007	.046	.009	.046
사교육동기_위탁			.119**	.042	.118**	.042	.117**	.042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사교육동기_경쟁			.115**	.044	.116**	.044	.116**	.044
사교육동기_내재			.172***	.042	.171***	.042	.172***	.042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14	.063	.012	.063	.012	.063
학벌사회인식			−.119*	.053	−.118*	.054	−.116*	.054
사교육 홍보 인식			−.067*	.031	−.065*	.031	−.066*	.031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06	.030	.006	.030	.006	.030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042	.030	.044	.030	.045	.030
내신준비 인식			.042	.040	.042	.040	.043	.040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92	.149	.237	.162
사교육 성행지역					−.212	.144	−.209	.156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115	.245		
학벌사회인식					.072	.410		
사교육 홍보 인식					−.412	.358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203	.473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386	.326
내신준비 인식							−.344	.530
무선효과								
2수준	.137***		.152***		.149***		.153***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 <.05, **p <.01, ***p <.001

9. 고등학교 국어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1.769***	.062	−1.801***	.061	−1.761***	.078	−1.783***	.071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098	.058	.085	.058	.086	.058	.091	.059
모 연령	.002	.012	.002	.013	.002	.013	.003	.013
부 연령	−.015	.011	−.015	.011	−.015	.011	−.015	.011
모 학력수준	.011	.023	.007	.023	.008	.023	.008	.023
부 학력수준	−.011	.018	−.009	.019	−.007	.018	−.005	.018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024	.049	−.022	.049	−.020	.049
학습스트레스 인식			−.051	.057	−.050	.058	−.045	.058
지적 호기심 인식			.172**	.053	.174**	.052	.177**	.053
막연한 불안감 인식			−.018	.053	−.018	.053	−.017	.054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65	.068	−.067	.068	−.073	.068
학벌사회인식			.030	.056	.026	.055	.036	.057
사교육 홍보 인식			−.044	.045	−.042	.045	−.042	.045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59	.047	−.057	.048	−.057	.049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150*	.059	−.149*	.059	−.139*	.059
내신준비 인식			.178**	.055	.178**	.055	.175**	.056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47	.168	−.079	.167
사교육 성행지역					−.050	.231	−.019	.194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69	.484		
학벌사회인식					.184	.441		
사교육 홍보 인식					−.089	.370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51	.364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618	.387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내신준비 인식							.026	.477
무선효과								
2수준	.085**		0.076**		0.095**		0.086**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 <.05, **p <.01, ***p <.001

10. 고등학교 국어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1.769***	.062	−1.788***	.060	−1.764***	.068	−1.769***	.073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098	.058	.092	.060	.095	.060	.097	.060
모 연령	.002	.012	.003	.013	.003	.013	.003	.013
부 연령	−.015	.011	−.015	.011	−.015	.011	−.015	.011
모 학력수준	.011	.023	.014	.024	.015	.024	.015	.024
부 학력수준	−.011	.018	−.014	.019	−.011	.018	−.011	.018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사교육동기_외재			.061	.062	.063	.062	.064	.062
사교육동기_위탁			.056	.068	.053	.068	.053	.068
사교육동기_경쟁			.035	.059	.039	.060	.039	.059
사교육동기_내재			.082	.056	.080	.057	.079	.056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58	.085	.049	.084	.053	.084
학벌사회인식			−.100	.082	−.093	.082	−.096	.082
사교육 홍보 인식			−.045	.051	−.041	.051	−.041	.051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46	.051	.049	.051	.044	.053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100	.073	−.098	.072	−.095	.072
내신준비 인식			.032	.063	.030	.063	.032	.064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27	.175	−.144	.165
사교육 성행지역					−.005	.211	.022	.220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204	.653		
학벌사회인식					−.215	.590		
사교육 홍보 인식					−.071	.270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561	.552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367	.629
내신준비 인식							−.488	.562
무선효과								
2수준	.085**		.079**		.097**		.096**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05$, **$p<.01$, ***$p<.001$

11. 고등학교 과학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생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049***	.065	−2.093***	.066	−2.074***	.088	−2.065***	.085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49	.084	.121	.084	.125	.086	.122	.085
모 연령	−.002	.015	−.001	.016	−.001	.016	−.001	.016
부 연령	.008	.012	.007	.012	.007	.011	.007	.011
모 학력수준	.003	.025	−.001	.025	.000	.025	.000	.025
부 학력수준	−.006	.022	−.009	.022	−.007	.022	−.008	.022
학생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학습 의견존중 인식			−.122	.064	−.121	.064	−.120	.064
학습스트레스 인식			−.091	.061	−.089	.062	−.089	.062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지적 호기심 인식			.237***	.064	.238***	.063	.238***	.062
막연한 불안감 인식			.040	.055	.041	.055	.042	.055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08	.087	−.012	.086	−.013	.087
학벌사회인식			−.010	.075	−.002	.074	−.002	.075
사교육 홍보 인식			−.033	.056	−.033	.055	−.031	.056
학생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042	.058	.043	.058	.045	.059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131	.075	−.131	.075	−.125	.076
내신준비 인식			.044	.066	.042	.066	.037	.066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07	.157	−.161	.164
사교육 성행지역					.005	.164	.006	.136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88	.529		
학벌사회인식					−.251	.465		
사교육 홍보 인식					.128	.409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77	.306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389	.394
내신준비 인식							.535	.429
무선효과								
2수준	.074**		.065*		.086**		.084**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05$, **$p<.01$, ***$p<.001$

12. 고등학교 수학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결과(1수준 학부모 맥락 변인 통제 모형)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049***	.065	−2.082***	.062	−2.042***	.076	−2.004***	.082
가정 배경 변인(1수준)								
Ln소득수준(월평균)	.149	.084	.137	.084	.133	.085	.132	.085
모 연령	−.002	.015	.000	.016	−.001	.016	−.001	.016
부 연령	.008	.012	.008	.011	.008	.011	.008	.011
모 학력수준	.003	.025	.007	.026	.009	.026	.005	.026
부 학력수준	−.006	.022	−.012	.022	−.012	.022	−.014	.023
학부모의 사회·심리적 변인(1수준)								
사교육동기_외재			.036	.063	.035	.063	.035	.064
사교육동기_위탁			.055	.074	.053	.074	.056	.074
사교육동기_경쟁			.046	.076	.046	.076	.042	.076
사교육동기_내재			.072	.062	.073	.063	.073	.062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인(1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088	.092	.088	.091	.096	.092
학벌사회인식			−.102	.085	−.100	.084	−.107	.085
사교육 홍보 인식			−.054	.063	−.061	.063	−.055	.063
학부모의 정책·제도적 인식 변인(1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121	.063	.121*	.062	.110	.063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130	.085	−.132	.085	−.126	.085
내신준비 인식			.086	.083	.084	.082	.080	.082
학교배경변인(2수준)								
학교규모					−.127	.141	−.209	.141
사교육 성행지역					−.065	.149	−.142	.152
학교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2수준)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					.364	.619		
학벌사회인식					−.252	.541		
사교육 홍보 인식					.397	.267		
학교 외부의 정책·제도적 맥락 변인(2수준)								
명문 상급학교 진학 인식							.858	.550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551	.569
내신준비 인식							.335	.573
무선효과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2수준	.074**		.063*		.077**		.061*	
1수준								
전체								
집단내상관(ICC)								

*$p<.05$, **$p<.01$, ***$p<.001$

연구보고 RR 2015-07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연구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인 : 윤종혁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전화:02)3460-0114
FAX:02)3461-0121
http://www.kedi.re.kr
등 록 :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